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인도돕기)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4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418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동대 선학과 기사회생

폐과위기에 있던 동국대 선학과가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

동국대 교무처 입학전형위원회가 최근 2004년도 입시부터 '선학전공' 스님 종비생 18명을 뽑기로 한 것.

동국대 교무처는 12일 "스님 종비생 제도를 개정해 총 23명중 18명은 '선학전공'으로 수시모집하고, 5명은 정시모집을 통해 불교학부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학과 폐과문제는 2003년 2학년 전공지원에 일반학생 1명만 지원하고, 스님 종비생이 모두 불교학과로 지망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선학과는 복학생까지 합해도 7명에 불과, 학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정원 8명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선을 종지로 한 조계종의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선학과가 존폐위기에 처한 것이어서 교계에 파장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대학당국이 선학과를 존치시키기 위해 스님 종비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도 여전히 과제는 남는다. 우선 입학하는 스님 종비생들이 선학과 학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교과목들은 강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기에 스님들은 전공 선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또 불교학과가 BK21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불교대학의 학부제 시행은 그대로 두기로 한만큼 일반학생을 선학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선학을 공부한 일반학생들이 일반사회에 나가서도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서구에서 각광받는 선상담사나 마음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학과 교수 종호스님은 "그동안 학생들이 선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일부 커리큘럼에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겠다"며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한 선과 관련한 내용을 개발하여 선불교정신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삼척: (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이라크에 연꽃을 피우자"

난민구호 성금모금 · 자비 등달기 전국 확산

종단협, 타종교와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운동
경불련, 현지에 사무실 설치 구호활동 전개
재가연대, 여의나루축제 조성 성금 지원키로

조계종 · 천태종 · 경불련 등 불교계의 이라크 난민 구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태종은 19일부터 2백여 소속 사찰과 산하단체,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전 광수사, 인천 연화사 등 천태종 소속 전국 2백여 사찰은 5월 법회를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특별기원법회'로 전환해 봉행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등 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자비의 등 달기에서 조성된 수익금은 전액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성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도 16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이라크 난민 돕기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남원실상사(주지 도법)는 5월 5일 오후 7시 보광전 앞뜰에서 '평화의 밤'을 개최하며 이라크 어린이 돕기 행사를 펼친다.

불교종단협의회는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 단체와 공동으로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법회를 통한 성금 모금, 반전평화 콘서트 개최, 반전평화 걷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경불련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도 난민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경불련은 불교계 최초로 임인기(경불련 이라크 긴급구호 대책반 팀장, 41) 씨를 25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임인기 씨는 이라크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본격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경불련, 조계종 중앙신도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단체들은 '이라크난민 돕기 범불교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인 난민 구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일 열린 여의나루 작은 축제에서 조성된 기금 중 10%를 난민구호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반전평화 불교대책위도 이라크 난민 지원 운동을 펼친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29일 조계종 임시종회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 등의 안건을 다룰 조계종 제158회 임시중앙종회가 29일부터 5월3일까지 5일간 회기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 · 3면

이번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의건,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건, 기타 안건 등이 다뤄진다.

총무원은 종헌 부칙에 '1962년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는 종헌 부칙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는 종헌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우린 크면 싸우지 말자"

"이라크 친구들아. 다쳐서 아야 하는 너희를 보면 막 울음이 나와. 우리들은 이다음에 어른이 되면 싸우지 말자."

조계사 동자승 12명이 18일 서울 이태원 이슬람 중앙성원을 방문, 이라크 어린이 돕기 성금과 평화를 위한 동자승 발원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중앙성원 성직자들은 방문한 동자승들을 안아주며 "이라크 어린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무척 기뻐할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고영배기자



◇'빛으로 꽃으로 오신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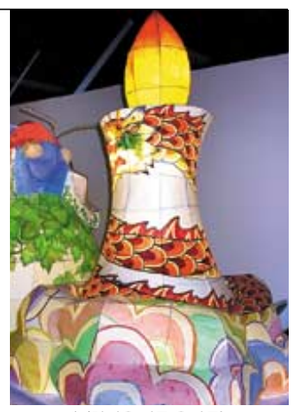
등경연 최우수상 선정

'개인작품' 선민수 씨
'단체행진' 한마음선원

봉축위원회 주최 제4회 등 경연대회에서 선민수씨의 '빛으로 꽃으로 오신 부처님'과 한마음선원의 '한마음 지구 용빛등'이 개인 작품등과 단체 행진등 최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단체 행진등 부분의 경우 연등축제날인 5월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인 작품등은 5월2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 개막식에서 열린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마음 지구 용빛등'.

'북한산도로' 노선재검토위 구성

불교계 · 건교부 각 5인, 6월말까지 활동

조계종 · 건교부 합의

북한산 관통도로 및 천성산 · 금정산 고속철도 문제가 조계종과 정부 간의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과 대안노선검토위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각각 돌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14일 총무원장실에서 건교부 최재덕 차관, 건교부 도로국장,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과 만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기존 노선을 검토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불교계와 건설교통부 양측에서 각각 10인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들 가운에 쌍방이 합의한 각 5인씩으로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해 6월말까지 45일간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불교계와 정부의 입장이 달랐던 검토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의정부 외곽 노선, 북한산 국립공원외곽 우회노선, 기존노선 등 3개 노선으로 하되, 노선의 경제성과 효율성, 환경생태적 가치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아직까지 노선재검토위에서 활동할 5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45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노선 검토가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등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도 안고 있다.

금정산 · 천성산 문제도 16일 시민종교대책위와 정부 측이 대안노선검토위 구성을 위해 실무모임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을 보이고 있다.

한명우 · 천미희 기자

스님!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차 5월 19~6월 13일, 2차 6월2~28일
해당지역 스님 · 종무원 많은 참여바랍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스님과 종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반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실시 지역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1차 구리 · 남양주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 상	기 간	장 소
경기	구리 · 남양주시 스님 및 종무원	5월 19일~6월 13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구리 우체국 4층 정보화교육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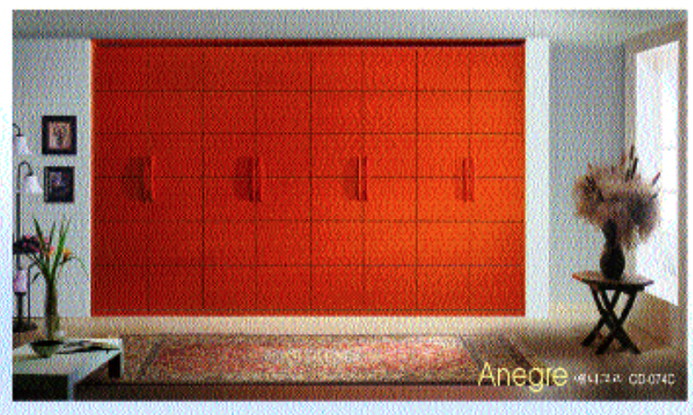
제2차 춘천 및 강릉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 상	기 간	장 소
춘천	춘천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2일~6월 28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춘천우체국 정보화교육실
강릉	강릉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9일~6월 27일(3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 30분	강릉우체국 정보화교육실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수강료: 무료(교재비 4천원 본인부담)
▦신청 접수: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국장 임연태 02-722-4162, ytlim@buddhapia.com
▦신청 기간: 5월 4일까지 전화 및 전자우편
▦모집 인원: 각 지역 15명

※3차 이후 교육은 추후 공지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www.dhsystem.co.kr
ISO 9001 KAB
불자님들께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空間藝術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희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시험 입품 예표 모델 •탑홈사 •삼문사 등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불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3-7(남동공단 167블럭 8롯트)
TEL:(032)822-0022~30 FAX:(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터:(032)822-0030

사 설

난민 구호는 불교도의 사명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 수호라는 점에서 공존공영과 평화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종교 공동의 관심사다. 이 같은 공동선의 실천이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점은 불교 역시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생명의 현양과 자비의 실현은 불교의 핵심인 것이다.

로히니강의 물을 독점하기 위해 상·하류에 거주하는 부족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물이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단 말인가?"라며 이해 당사자들을 화해시켰다.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부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라 가르치기도 했다. 복전 중에서 빈궁전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이 빈궁전을 실천하면 무량한 복덕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이라크전쟁이 끝나자 조계종, 천태종, 경불련 등 많은 불교 단체들이 이라크 난민 구호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궁행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쟁 당사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죽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위안이나마 줄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자 작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구태여 한국전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들은 이민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불교도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의 연등축제

일반 시민 및 외국인들까지 부처님 오신뜻을 기리고 즐거움을 나눌수 있는 봉축 행사가 해가 갈수록 풍성해진다. 외국인들이 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기간에 맞춰 방한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연등이나 염주 만들기 등 하루 참가보다도, 사찰에서 묵으며 발우공양, 다도, 참선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이 여러 사찰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때 처음 시작한 템플라이프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참가자 대부분이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찬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포교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사찰밖에 없다. 앞으로도 템플라이프 참가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외국인들에게 많이 보여준다거나 한국수행법의 우수성을 알린다고 다짜고짜 참선만을 시키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 스스로 편안해 하고 한국불교의 깊은 멋을 느끼게 하는, 그 사찰만의 특색을 살린 조촐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하나 시급한 문제는 통역인력의 확보다. 템플라이프는 활성화 되는데 한국불교를 제대로 설명할 통역자가 부족해서야 되겠는가.

이렇듯 세계인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불자들은 더욱 서원을 세워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외국인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잇달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대생 30여명이 16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컵등을 직접 만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화란 아인트호벤 공대생 30명
조계사서 발우공양·등 만들기

주한외교사절·상사임원 부인
봉은사 선식강연·사찰음식체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 라이프 프로그램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조계사는 16일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학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템플 라이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외국인학생들은 참선 발우공양 연등만들기 예불을 체험했다.

또 26일에는 호주 관광단이 조계사 불교문화체험에 참가할 예정이며,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창 선운사와 해남 미황사에서 외국인 불교체험 사찰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34명 정원의 외국인 불교체험 답사여행은 사찰소개, 발우공양, 다도, 새벽예불, 부도전 탁본 등으로 진행된다.

우곡선원은 5월 4~5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10개국 외국인 유학생(대학, 대학원) 참선, 발우공양 체험 수련을 실시한다.

봉은사도 5일 제 1회 주한외교사절 및 상사임원부인 초청 전통사찰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템플라이프를 시작했다. 봉은사는 하루일정으로 사찰참배, 발우공양, 다도시연, 선식 강연, 사찰음식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월 2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등 전시회' 개막식에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주한외교사절을 초청, 차담 및 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봉은사 외국어통역봉사모임인 문사수회 이정희 총무는 "월드컵 이후 한동안 뜸했던 외국인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다시 늘고 있다"며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템플 라이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헌·종법개정특위 열려
특별소위 구성키로 합의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간사에 혜림스님을 선출하고, 다음 회의 때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특위의 활동범위 및 방향은 다음 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8일 2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및 특위 활동방향과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공동대표의장 법장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 추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6일 삼청각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공동대표의장으로 추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등 7개 교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대와 화합을 위한 기구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17일 서울 하림각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장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대변인 현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종무회의를 열고 기획실장 현고스님을 종단 대변인으로 지정했다.

현고스님은 "종책 방향을 알리고 종단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종정예경실장 선각스님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14일 종정예경실장에 선각스님을 임명했다.

선각스님은 혜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뒤 해인사 수선안거 이래로 17안거를 성만했다. 제11, 12대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 방장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스님 341명 새로 탄생

조계종, 통도사서 23회 구족계 수계산림

조계종에 비구·비구니 341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15일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23회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비구 172명, 비구니 169명 등 모두 341명이 구족계를 받고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지난 9일 사미(173명), 식차마나니(171명) 신분으로 입방한 이들은 4급 승가고시와 일주일간의 정진을 거쳐 이날 수계증과 법계증을 받았다. 3명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돼 구족계를 받지 못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회향식에서 전계대화상 보성스님은 "항상 도를 닦음에 모든 인연과 장애를 벗어나서 정법을 이어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국가와 민족이 평안함을 기원하고 서로 화합하여 참고 견디는 수행의 힘을 길러 도업을 이루는데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라는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회향사에서 "금강석 같이 단단한 신심으로 오늘 세운 서원을 굳게 다짐하라"고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폭력책임 통감…원융화합 전기 되길"

98년 조계종 사태 징계자 90여명 참회 성명

월탄, 정우, 성문, 원학 등 98년 종단사태 때 멸빈 등의 징계를 받은 징계자 90여명이 17일 참회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록 그 동기가 종정스님의 교시 봉대와 교단 정화 및 민주화에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과 종도 여러분에게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야기시키는 폭력사태로 비화되게 한 책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98년 총무원장 선출절차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월주 전 총무원장스님에게 누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원융화합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10일 사면복권 검토위원회가 멸빈자를 포함하는 대사면을 단행키로 하면서, '멸빈 징계자 중 참회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의 경우는 교계 신문 지상에 공개적 참회를 해야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붙인데 따른 것이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회향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가사불사 회향과 보살계 수계 산림은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47(2003)년 4월27일(음 3.26) ~ 28일(음 3.27) 2일간

4월 27일	4월 28일
◇오전 10시 : 가사불사점안 및 삼대화상탱화점안	◇새벽 3시 : 새벽예불
◇오후 2시 : 보살계 입재식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오후 3시 : 보살계 법문	◇오전 7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잡
◇오후 7시 : 송광사 신도 총회	◇오전 10시 : 보조국사 종재봉행 및 영가천도재
◇오후 9시 : 철야정진	◇오전 11시 : 점심공양 및 회향

2. 동참방법 : 삼월불사나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9 / FAX : 061)755-0408

3. 동 참 금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가사불사 : 한 벌 동참금 : 300,000원
· 온라인 번호 / 우체국 : 501676-01-000849(예금주 송광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현봉 합장



‘대안노선’에 역사문화 가치 고려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재검토 합의 의미

불교계 주장 등 수용 문제해결 진일보
각 단체·지역간 불협화음 극복이 과제

지난 14일 조계종과 정부가 수락산·불암산(5, 6공구) 공사를 중단하고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그동안 노선 재검토를 계속 주장해온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수용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노선의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경제성과 똑같이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북한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던 불교계와 환경·지역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이 그것이다. 환경·지역단체들은 △수락산 불암산 구간에 대한 불교계 대표성 위임문제 △짧은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기간(45일) △합의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거론하며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안노선 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안게 되는 부담을 떨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조계종 공대위와 정부가 14일 합의한 문서에는 △의정부 외곽 노선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 우회 노선 △기존노선 등 3개의 노선을 검토대상으로 한정했다.

각 노선별 특징을 보면 ▲의정부 외곽 노선은 사패산(4공구), 수락산(5공구), 불암산(6공구)을 모두 우회하는 노선이다. 조계종 공대위와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 노선을 최적의 대안노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이미 진행된 공사와 투입된 경비 문제. 3월 말을 기준으로 17%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3천 3백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그러나 작년 7월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관통도가 우회도로보다 사회·환경적 비용이 1조 34억원 정도 더 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 우회 노선은 사패산 구간은 우회하되 수락산, 불암산 구간은 관통하는 것이다. 이 중 수락산 터널은 30%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불암산 구간 일산방향은 6일자로 관통됐으며 퇴계원 구간도 관통을 100m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 노선이 선정될 경우 선정 책임에 대한 조계종 공대위의 부담이 예상된다. 즉 최종 결론은 노선재검토위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정·결정하게 되어있지만, 불교계는 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기존노선은 사패산 뿐 아니라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노선의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패산만 우회하든 사패산 수락산 불암산 모두를 우회하든 이것은 도로공사의 제시안일 뿐 불교계나 지역·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선 결정 후 파장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천성산 문제는 대안노선검토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일단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선검토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안노선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기존노선과 비교 검토하자는 시민종교대책위측의 주장과 모든 노선을 함께 검토하자는 정부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명우·천미희·남동우 기자

멸빈자 사면 늦춰질듯

종헌개정·대상자 심사 기간 너무 촉박

‘6월 임시종회 통한 사면 가능성’ 지배적
부처님오신날엔 제적이하 징계자만

지난 10일 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를 포함하는 모든 징계자를 사면키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29일 임시중앙종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부처님 오신날을 기한 사면 단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멸빈자들에 대한 사면은 이번 사면조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멸빈자들과 제적 이하 징계자들의 사면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처님 오신 날 사면에서 멸빈자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종회나 총무원의 다른 관계자 대부분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와 똑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종헌 개정에서부터 사면 대상자 심사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일을 감안할 때 종회가 열리는 29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10일간으로는 멸빈자 사면을 위한 모든 절차를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멸빈자 사면이 이뤄지기까지는 ‘29일 종회에서 종헌 개정→개정된 종헌의 원로회의 인준→중앙종회의장의 개정 종헌 공포→멸빈자 사면 공고→사면 신청 접수→대상자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오신 날 멸빈자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고스님이 “이번에는 모든 징계자를 사면할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일정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 임시종회를 통한 멸빈자 사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다.

물론 부처님 오신 날 멸빈자 사면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종헌 개정에서부터 멸빈자 사면 공고까지 이틀 안에 이뤄지고, 일주일 안에 대상자 심사를 마친다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조계종은 보름여 전부터 멸빈자를 제외한 징계자를 대상으로 사면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멸빈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종회와 총무원 집행부가 엄격한 심사보다 ‘대화합’에 무게를 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다. 종회 내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면 시기와 달리 종헌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종정스님과 원로회의가 교시와 유시를 통해 사면의지를 밝힌데 이어, 종회 내 모든 계파의 중진스님들이 참여한 사면복권검토위원회가 대사면을 결의함으로써 멸빈자 사면의 전제조건인 종헌 개정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각 교구본사간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고, 종회 내 각 계파의 결속력이 과거와 달리 다소 느슨하다는 점에서 재적의원(81명) 3분의 2(54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종헌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총력

법장 총무원장·탁연 스님 정부·국회 방문
21~22일 행자위 법안 소위 심사서 윤곽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양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종단의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장 탁연 스님이 이달 들어 국회를 잇달아 방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16일 오후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접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찾아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21세기는 지식·정보와 함께 문화가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는 문화의 세기”라며 “1급청인 현재의 문화재청 구조와 인력으로는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계종이 이처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윤곽이 21~22일쯤이면 드러나기 때문.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3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승격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례상 소위원회 법안심사가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

조계종의 잰걸음 속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 강찬석)는 16일 논평을 내고 “문화재청 승격은 단순히 행정조직 확대나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15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도 소속 의원들은 이창동 문광부장관에게 “장관이 직접 행자부장관을 만나 문화재청 승격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宗團和合을 위한 懺悔의 글

佛菩薩과 歷代 祖師前에 懺悔三拜 하옵니다.

僧伽란 眞理를 中心으로 和合을 生命과도 같이 여기며 모인 修行者들의 共同體입니다. 僧伽에 있어 構成員들의 利害와 得失은 결코 和合보다 優先할 수 없다는 엄연한 眞實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側面에서 지난 98年 일어난 宗團事態는 그 名分과 動機의 當爲性을 擧論하기에 앞서 國民과 宗徒들 앞에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그 動機가 宗正 猊下의 敎示 奉戴와 敎團淨化 및 民主化에 있었다 하더라도 國民과 宗徒 여러분에게 커다란 失望과 憂慮를 惹起시키는 暴力事態로 飛火되게 한 責任은 어떠한 辨明으로도 容納될 수 없음을 가슴깊이 痛感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自省과 懺悔가 있었기에 小衲들은 지난 5年餘間 各者의 修行道場에서 衲子의 本分을 受持하고 懺悔精進하며 自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宗正 猊下와 元老大德 큰스님들께서 敎示와 元老會議 諭示를 통해 慈悲寬容을 베풀어주시고, 宗團發展과 僧伽和合을 念願하는 全 宗徒들의 期待를 안고 總務院長 法長스님 體制가 出帆하면서 大乘的 決斷으로 宗團大和合 措置를 積極 推進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8年 總務院長 選出節次를 놓고 葛藤을 빚었던 宋月珠 前 總務院長스님에게 本意아니게 累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眞心으로 謝過의 말씀을 드리며, 너그럽게 攝受해 주셔서 眞正한 圓融和合의 轉機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비록 紙面을 빌어서나마 다시 한 번 國民과 宗徒 여러분에게 甚深한 懺悔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省察과 自肅의 時間을 거울삼아 和合僧伽 俱現과 宗團發展을 위한 隊列에 初發心의 姿勢로 돌아갈 것을 佛菩薩 前에 엎드려 誓願드립니다.

佛紀 2547年 4月

'98年 宗團事態 關聯 懲戒者 一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평상 전북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전주 정혜사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일주문



부산문화대상 선정

효담 원효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은 부산 농악을 발굴 전수해온 공로로 제4회 부산문화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천남부경찰서 봉축법요식

성인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대덕사 주지)은 29일 오전 11시 서내 경승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거행한다.



26일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수완 현대불교문인협회장은 26일 오후 3시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8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불교의 관점…' 주제 발제

법현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은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의 관점에서 진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日 묘엄사서 찬불가 공연

지범 제주 불광사 주지는 일본 도쿄 묘엄사의 초청을 받아 '부모은중경' 등 찬불가 공연을 하고 23일 귀국했다.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

혜광 단양 금수사 주지는 27일 오전 10시 대웅전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노인들을 초청 경노잔치도 개최한다.



강릉에 금강선원 개원

보혜 전 부산 세존정사 주지는 최근 강릉시 초당동 84번지에 금강선원(천국사)을 개원했다.(033)652-2799



진흥원 4월 다보법회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3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혜담스님을 초청해 4월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전북불교대학 성지순례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20일 졸업생 및 재학생들과 충남 예산 수덕사, 천장사, 보덕사로 상반기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수스님 초청 법회 봉행

하만경 부경대교수불자회 회장은 26일 오후 3시 부경대 대연캠퍼스 본관에서 성수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묘주스님 초청 경전강좌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은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오후 7시 30분 묘주스님 초청 경전강좌를 실시한다.031)251-1083



파라미타 신입생 환영법회

김석조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장은 13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2003년 신입생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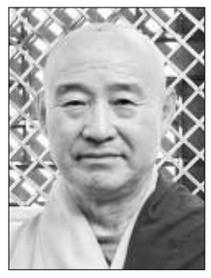


무진장 스님 초청 법회

김용태 부산불교교수연합회 회장은 24일 오후 6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무진장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佛法 전할 웅변술 가르쳐요"

서울에 설법대학 개교한 자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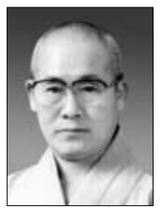


"웅변(雄辯)이란 말은 원래 '부처님의 설법'이란 뜻에서 연유했습니다. 설법대학은 부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웅변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12일 서울 홍제동에 불교웅변인협회 부설 설법대학을 개교한 자원 스님(서울 광명사 주지 · 사진)이 밝힌 대학 설립 취지다.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면 불교 교리가 아무리 우수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웅변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년 과정의 설법대학은 △설법 불교 교리 △웅변 · 연설 · 스피치 · 화술 △방송 · 성우 등의 강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예 · 동양화 △사진 △불교문학 △불교의식 · 다도 등의 강좌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원 스님은 "대한웅변인협회 전회장 이종례 교수, KBS 성우 김계원 씨 등을 교수진으로 확보해 놓았다"며 불교 포교에 관심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불교웅변인협회는 33년 전 경북 영천에서 창립돼 전국 10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매해 봉축을 기념, 불교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범추 스님 6대 회장취임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제6대 회장 범추(풍주사 주지) 스님 취임식이 8일 청주 웨딩프라자에서 열렸다. 취임식에서 범추 스님은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일봉 충북지사장



정연 대종사 열반재 봉행

전북 완주 봉서사는 5일 경내에서 효산당 정연 대종사 열반재 및 주지 법원 스님 진산식을 열었다. 행사에서 법원 스님은 "정연 스님의 노고 덕분에 진묵대사가 주석한 봉서사가 오늘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열반재는 봉서사 중창 불사를 한 정연 스님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원통사 불교대학 개강법회

서울 원통사 불교대학 입학식 및 개강법회가 13일 관음보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21명의 신입생 및 사부대중 40여명이 참석했다. 원통사 주지 황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절에 10년 넘게 다녀도 배우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며 신입생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선서화로 불우이웃에 힘 주고파"

암투병중 전시회 연 탄정 스님



12일부터 1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서화 전시회를 개최한 탄정스님(울산 세심선원 주지)은 '암' 투병 중에도 불우이웃을 위해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최초의 '금강경 전서체'와 함께 '33조사도'가 10폭 병풍으로 소개되는 등 스님의 대표적 수작 150여점이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부처님과 사하라사막 완주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장지애 부회장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늘 저를 격려해준 청년불자들의 마음을 느끼며, 마음속의 부처님과 함께 달렸습니다."

부산청년불자산악회 부회장 장지애(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 사진)씨가 6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개막된 사하라 사막마라톤 250km를 완주하고 돌아왔다.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창립 회원인 장 부회장은 6박 7일 동안 10kg의 배낭을 메고 사막의 악조건을 이겨내야 하는 사하라사막 마라톤 국내 참가자 24명 중 단 둘뿐인 여성 중 한사람.

"뜨거운 태양, 섭씨 45도의 열기, 발목을 휘감는 모래, 뚝 떨어지는 밤의 한기, 모래바람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월 한번씩 청년불자들과 함께 했던 산행에서 다져진 체력과 신심이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완주 소감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해 대덕사 삼존불 점안식

동해 대덕사(주지 백암)는 4일 대웅전에서 삼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동해 사암연합회장 교덕스님, 최연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주지 백암스님은 "아집과 아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법장 총무원장 초청법회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13일 시왕탱화 점안 및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비롯해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장스님은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만족이 행복이며 해탈"이라며 "불자들은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해인불교경전대학 입학식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7일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 5기 해인불교경전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수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법에 따라 진실된 행을 하는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가난해 넉넉한 삶' 강연

김중미 '괭이부리말 아이들' 저자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함께 가난해서 넉넉한 삶'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정토회 산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주최하는 '늘 푸른 대화마당' 15회째다.(02)587-8998

우리모두 부처님 같이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시민연등축제 상징물 점등식

· 일시 : 4월 25일(음 3. 24 / 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부산역 광장
· 내용 : ① 탑, 용, 연등 점등식
② "우리 모두 부처님같이!" 봉축 슬로건 촛불점등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

· 일 시 : 5월 3일(음 4. 3/토) 오후 8시 ~ 4일(일) 오전 4시
·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50여명의 스님과 500명의 불자들이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3천배 철야정진

부산불교합창음악회

· 일 시 : 4월 26일(음 3. 25/토) 오후 3시
· 장 소 : 문화회관 대강당
· 내 용 : 1,500여 합창단원이 함께하는 찬불가 공연

시민문화축제

· 일 시 : 5월 4일(음 4. 4/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체험마당 – 연등만들기, 컵등 만들기
놀이마당 – 전통다도 시연, 연예인 축하공연, 전통무용 공연 등

연합대법회

일 시 : 5월 4일(음 4. 4 / 일) 오후 4시 30분
장 소 : 부산역 광장

· 내 용 : ① 부산발전기원 영산재
② 3만여명이 참석하는 연합대법회
③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1,500명 합창단원의 대합창

제등행진

· 일 시 : 5월 4일(음 4. 4 / 일) 오후 6시 30분
· 코 스 : 부산역광장 → 부산진역 앞 → 부산불교방송 앞 → 범냇골로타리 → 서면로타리

시민과 함께 전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금정산 환경살리기 동문 주변 청소	3.30	금정산	개인택시법륜회	503-1205
환 경 보 호 캠 페 인	4.	이기대 일원	동명불원	624-7667
연합봉축행사 동참캠페인	4. 2	범어사 일원	범어사신도회 사회봉사단	898-2672
53존 불 탑 등 점 등 식	4. 4 18:00	삼광사53존분탑전	삼광사	808-7111
푸른부산가꾸기 꽃씨 나누어주기 활동	4. 5	금정산 동문광장	범어사신도회 사회봉사단	898-2672
푸른부산가꾸기(금정산 동백섬고 가꾸기)	4. 5 11:00	금정산 동문광장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영 위 탑 기 공 식	4.10 10: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신모라(운수사경내) 자연보호	4.13	신모라	부산불교운전기사회	624-2207
차 공 양 활 동	4.13	경주남산 일원	범어사신도회 사회봉사단	898-2672
수 륙 고 혼 영 가 천 도 대 재	4.16	다대1동 수협공판장	약천사	264-1936
연 등 만 들 기	4.16 14: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환 경 보 호 캠 페 인	4.17	오륙도 일대	운불련	011-852-3864
연 등 만 들 기 대 회	4.21~4.30	낙동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삼 광 합 창 제	4.24 19: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환 경 보 호 캠 페 인	4.24	범어사계곡	운불련	011-852-3864
제 3차 학 술 세 미 나 개 최	4.25 14:00	부산국제신문 강당	사단법인불국토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868-0951
촛 불 점 등 식	4.25	부산역 광장	한마음선원	403-7077
불 교 사 상 대 강 연 회	4.26	부경대 대강당	부경대교수,동문,학생회공동주최	620-1597,806-4717
제5회 부산불교합창음악회	4.26 15:00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867-0501
봉 축 탑 탑 돌 이	4.26~5. 7	부산역 광장	삼광사	808-7111
연 등 만 들 기 경 연 대 회	4.27	범어사 탑전	조계종부산광역시불교청년년회	867-8048
명륜동(자비암) 주변 환경보호	4.27	명륜동	개인택시법륜회	503-1205
53사단 군법당(홍국사) 낙성식	4.30 11:00	홍국사	삼광사	808-7111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의 탁발"	5. 1	광복로 일대	내원정사 · 내원정사 유치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봉 축 시 낭 송 회	5. 3 18:00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문인협회	011-870-9871
연 등 시 연 회	5. 3	부산역 광장	한마음선원	403-7077
삼 천 배 기 도	5. 3	부산역 광장	통도사 부산포교원	816-2241
사물놀이, 바라밀 무용단 공연	5. 3~5. 4	부산역 광장	통도사 부산포교원	816-2241
" 제 5회 낙 동 가 족 축 제 "	5.24	복지관 및 인근 공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다 례 시 연 , 헌 공 다 례	5. 4	부산역 광장	어여선원,다도회	011-558-9911
전통문화행사 (연극 · 심청전)	5. 7~ 5. 8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외국인 사찰 안내 봉사 활동	5. 8	범어사 일원	범어사신도회 사회봉사단	898-2672
환 경 보 호 활 동	5. 둘째주	용궁사경내환경청소	부산개인택시불자회	016-882-8160
무 료 영 화 상 영 회	5.24 16:00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소극장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UN묘지 , 대청공원 대청소	5.29	UN묘지, 대청공원	부산불교운전기사회	624-2207
제11회 불교 및 전통문화 사 진 공 모 대 전	5.31~6. 2	비추미 전시관 (삼성생명빌딩 1층)	주)대한불교 신문	867-1515

나눔의 장 복지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거 동 불 편 노 인 일 일 나 들 이	4월초	경주	개금사회복지관	893-5034
거 동 불 편 장 애 인 나 들 이	4월초	경주 불국사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민 족 문 화 체 험 한 마 당	4월중	함지골청소년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405-5223
장애인가정 방문 아동목욕봉사	4. 2 10:00	사하구일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치 매 노 인 목 욕 봉 사	4. 3 09:00	노인건강센터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할아버지,할머니 간식 만들기	4.15 13:00	애광양로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부 산 교 도 소 위 문 법 회	4.16	부산교도소	부산여성불자회	817-3166
불우이웃돕기 백미전달식	4.16	다대1동 수협공판장	사하불교연합회	205-4535
경 로 잔 치	4.17	관음사 앞마당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제7507부대 위문 경찰전투중대 용호중대	4.17	제7507부대 육군문서보관서, 용호중대	동명불원	624-7667
장 애 인 야 유 회	4.18	부산근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장애인의날 맞이 어울림한마당	4.18	몰운대복지관 일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장 애 인 가 정 지 원 활 동	4.20 10:00	부산일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보 현 행 원 위 문	4.24	보현행원	동명불원	624-7667
부 산 교 도 소 위 문	4.25	부산교도소	효자암	555-9702
장애우 점심공양 봉사활동	4.25 11:00	성우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경 로 위 안 잔 치	4.28 13:00	동래문화회관대강당	동래구 사암연합회	552-8909
사 회 복 지 시 설 방 문	4.28~5. 7	평화의 집 정화의 집 종덕원 황전양로원 천마재활원 성우원 성애원 미애원 보현행원 평화노인 초읍동불우세대	삼광사	808-7111
제9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제13회 삼광경로잔치	4.28 11: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거 동 불 편 어 르 신 나 들 이	4.30	을숙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이웃과 가족을 부처님과 같이 활동	4.30	부산시일원	범어사신도회사회봉사단	898-2672
독 거 노 인 방 문 말 벗 및 밑 반 찬 지 원 봉 사 활 동	4.30 10:00	부산일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독 거 어 르 신 온 천 관 광	5월초	태종대 온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소년소녀가정돕기 쌀전달	5. 1	효자암	효자암	555-9702
영 세 가 정 비 상 약 품 지 원	5. 1~5. 7	각기정	개금사회복지관	893-5034
자비의 헌혈 및 헌혈 증서 기부	5. 2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개금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불국토	868-0951
노인주간 어르신 근거리산책	5. 2 14:00	범어사	양정 재가노인복지센터	866-0454
무 차 만 발 공 양	5. 3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867-0501
무 료 급 식	5. 4	부산역 광장	불교아카데미제2기 조계종자원봉사단	506-0146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생 수 공 양	5. 4	부산진역 주위	반야선	784-5022
주촌 무의탁 양로원 위문 방문	5. 4	김해 주촌 무의탁 양로원	불교부산방송 나눔회	862-9762
제9회 경로잔치 및 카네이션달아드리기	5. 6	개금테마공원	개금사회복지관	893-5034
석탄일맞이 "기쁨의쌀나누기"	5. 6	복지관2층 강당 및 대성가정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경 로 잔 치	5. 6 11:00	서동노인센터내강당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531-9887
어 버 이 날 행 사	5. 7	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뜸 사 랑 무 료 진 료	5. 7, 21	복지관1층 진료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어 르 신 야 유 회"	5. 7	경북경주시일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어버이날 맞이 "사랑나누기"	5. 7	몰운대 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경로잔치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 7 12:00	복지관 사랑방	공창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경 로 잔 치	5. 7 10:00	복지관 내 강당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비상의약품(한방파스)지원	5. 7	대상노인 가정	양정 재가노인복지센터	866-0454
어르신큰잔치 및 카네이션달아드리기	5. 7 10:00	용호종합사회복지관앞마당	용호종합사회복지관	628-6737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회	5. 7 10:00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경노 영정사진 무료 찍어주기	5. 8	부산역 광장	운불련	011-852-3864
육군 제53사단 위문법회 해군제3함대사령부 위문법회 김해공군기지 위문법회 부산교도소 위문법회 부산구치소 위문법회	5. 8	육군제53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김해공군기지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삼광사	808-7111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활동	5. 8 10:00	부산일원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898-2672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카네이션달아드리기	5. 8	부산보현의집	부산보현의집	506-0146
한부모가정 아동문화행사	5.10 13:00	어린이대공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0115
실직자 등반대회 및 사찰순례	5.10	금정산 및 산내사찰	부산보현의집	506-0146
보 현 행 원 위 문	5.11 10:00	보현행원	큰수레	862-9762
이 · 미 용 서 비 스	5.15	복지관1층 미용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	271-0560
장 학 금 지 급	5.15	두송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노 인 대 학 온 천 나 들 이	5.30 10:00	경주온천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531-9887

미래의 장 청소년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일본가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체험캠프	3.31~4.1	함지골청소년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405-5223
어 린 이 날 안 전 봉 사 활 동	5. 5	범어사경내	범어사신도회 사회봉사단	898-2672
어 린 이 봉 축 한 마 당	5. 4 14:00	옥련선원 도솔천	옥련선원	757-9067
삼광 백일장, 독경, 찬불가 경연	5. 8 13:00	삼광사 5F 회의실	삼광사	808-7111
제16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 및 제10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수 상 자 시 상 식	5.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808-7111
지역문화애호활동전시회	5.26~5.31	부산광역시지하철전시관	사)파라미타부산청소년협회	018-576-5987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주관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051)867-0501

"'제적명령·보충역편입' 공무담임권 침해"

김태복장군, 취소심사 청구

불기협 국방장관 간담요청, 동산불교대 학생회 특별사면 청원



◇14일 김태복 장군이 국방부에 제적처분 취소 심사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 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명 운동이 바빠지고 있다.

김 장군은 석탑 현물 시주가 뇌물로 둔갑한 사건과 관련 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근거 국방부는 3월 25일자로 김 장군에게 제적 명령 및 보충역 편입 조치를 취했고, 김 장군은 9일 이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장군은 14일 '제적 명령 및 보충역 편입 조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앞으로 제적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서에 김 장군은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적명령 및 보충역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 규정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군은 △제적처분 취소의 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김 장군 사건과 관련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 불기협)도 국방부장관과 기자간담회를 요청하는 등 공식대응을 천명했다.

불기협은 15일 국방부에 접수한 공문에서 "본 협회는 지난 4년간 시주를 뇌물로 간주한 불자장성 김태복 장군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19일까지 기자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내에서 법당 뿐 아니라 다른 종교시설도 신축하려면 그 재원이 대부분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상황에서 김태복 장군 건만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종교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우 · 남동우 기자

'여의나루 작은축제' 열려

3대 기금조성사업 일환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미래불교를 책임질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불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과 불교 디지털 교재 개발, 불교핵심인력 양성 등 3대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여의나루 작은 축제'를 개최했다.

12일 한강유람선에서 열린 행사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윤청하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아카데미는 5년간 8억원을 총 목표액으로 불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3년간 1억 6천만원을 총 목표액으로 설정한 불교 디지털 교재 개발기금은 1차로 군포교 교재를 개발, 일선 군법당 등에 무료보급하기 위해 조성된다. 3년간 1억 3천만원을 총 목표액으로 하는 불교핵심인력 양성기금은 전문인력 연구 지원, 불교사회화 연구지원을 위해 조성된다. 후원계좌:국민)817201-04-000634(예금주 사)불교아카데미)

남동우 기자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무산

문화재위 "위치·규모·본존불 모형재질 재고 필요"

경주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8일 문화재위원회 7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석굴암 전시관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되나, 현 건립계획(안)처럼 석굴암 경내에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시관 위치를 포함한 건립 규모, 본존불 모형 재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 재추진하지 않는 한 백지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과 불국사는 석굴암 본존불에서 동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위치에 본존불 모형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전시관 건립을 추진해 왔고, 2001년 10월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분과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론이 거세지자 지난달부터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해 문화재위원 전체 의견을 들어왔다.

석굴암 보존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모형 전시관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은 지난 70년대와 90년대 중반에도 있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

권형진 기자

총무원 "장관 사과하라", 승가사 "정상처리"

이남기 전 공정위장 10억기부 '외압의혹'

17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측에 10억원을 서울 북한산 승가사에 기부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찰 수사내용이 알려지자, 조계종 총무원과 승가사는 18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수증을 발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 대변인 현고스님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교도와 조계종도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승가사 측은 지난해 9월경 주지 상륜 스님이 직접 기부금을 받고, 현재 용인에 건립 중인 복지원 건립 불사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SK 외압 여부 진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승가사 모 신도의 계좌추적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우 기자

위덕대 불교학자료실 일반공개

각종경전·밀교자료 등 자유롭게 이용

위덕대 회당학술정보원은 15일 불교학자료실을 확장 이전하고, 일반인도 이용증을 발급 받으면 08시부터 24시까지 자유열람과 자료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현재 불교학연구소 소장자료는 티베트 대장경, 중화대장경 등의 경전과 밀교 자료 등 일반자료 15,000여권과 참고자료 5,000여권, 불교학 학위논문 2,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또 연구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교학회 및 불교문화-사찰관련 DB의 이용도 가능하다.

김원우 기자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의 대좌 노출 모습.

안계리 석불좌상 원래 제모습 찾아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이 본래 형태를 되찾았다.

지난 2월부터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2차 발굴조사를 벌여온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 조계종 문화부장)은 8일 "석조여래좌상 밑에서 결구나 조각수법이 불상 조성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대좌의 하대석과 지대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석조여래좌상은 그 동안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방형대석과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자연석 위에 모셔져 있어 원래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형진 기자

경기 가평일대 대규모 통일교 관련시설

매장 불교문화재 훼손우려

가평군청, 공사중단 명령

통일교 산하 재단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수백만평 부지에 신학대학원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어 불교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교측은 송산리 일대에 청심신학대학원 및 대학원박물관(건설부지 4만5천여평)과 청심병원(건축면적 1800평), 체육관(2만여명 수용규모) 등 수련원·노인복지시설·전원주택·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측은 "송산리 일대가 '절터골'과 '장승백이' '미사리(彌沙里)' 등의 지명이 있어 불교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 이전에 당연히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산리 지역은 팔당 상수원과 가까운 곳으로 상수원 오염 및 자연훼손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통일교 재단측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을 일축했다.

한편 공사 허가관청인 가평군청은 문화연대 등의 항의를 받고 10일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일엽스님 문학세계 조명

여성문학인회, 세미나

일엽(1898~1971) 스님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26일 오후 4시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다. 이번 '제8회 작고여성문인 문학재조명 세미나'에는 일엽 스님의 아들 일당 스님도 참석해 추억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시인 한분순(한국여성문학인회 사무국장) 씨가 사회를 맡고 시인 신달자(명지대 교수) 씨가 '신(新)여자 김일엽의 파격과 종교적 귀의'를, 평론가 김현자(이화여대 교수)씨가 '자유의 길, 구도의 글쓰기'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02)365-6569 여수령 기자

대구에 보은노인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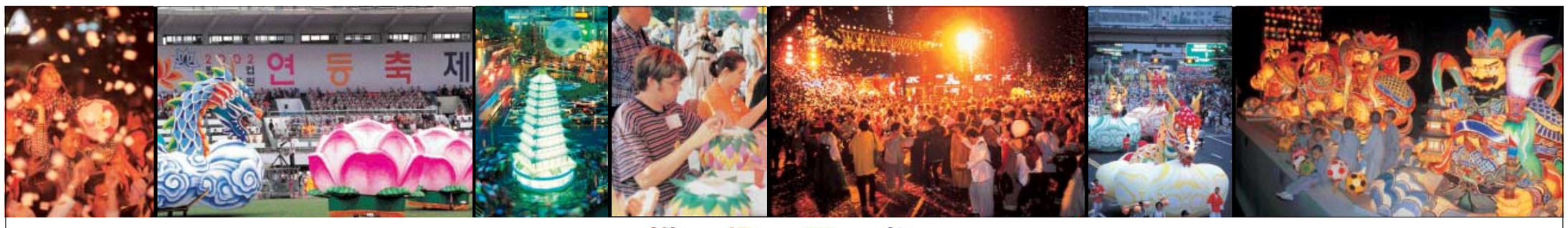
진각복지재단, 내달개원

진각복지재단이 5월 중순에 실비노인요양원을 개원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대구보은노인요양원은 대구시 서구 원대3가에 위치한 옛 진각종 지정심인당을 개·보수한 것이다.

대구보은노인요양원은 연건평 124평 지상 2층 규모로 생활방, 물리치료실, 목욕탕 등이 들어서며, 대구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31명이 입주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평화통일기원 연등 밝혀
봉축위·각 종단, OP서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8일 천태종이 백골부대 멸공OP 봉축등을 점화한데 이어 봉축위원회와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각 종단이 북녘 땅을 비추는 평화통일 기원 연등을 밝힌다.

진각종과 관음종은 24일 25사단 509연꽃OP와 5사단 열쇠전망대에서 각각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연등을 점화한다. 27일에는 법화종이 1사단 도라OP에서 자비의 등을 밝힌다.

이에 앞서 봉축위원회와 종정협은 18일 해병 2사단 애기봉OP와 101여단 까치봉OP에서, 태고종이 22일 6사단 월정리전망대에서 각각 봉축등을 점등했다.

경주소재 대규모 산내연수원 인수

진각종, '정진과 휴양' 도량 세운다

부지 30만평…강당·생활관·체육시설 갖춰
시설보완후 쉼터·수련회·교육공간으로

진각종이 대규모 연수시설을 인수하고 종단 분위기 쇄신과 포교활성화에 나선다.

진각종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164-2번지 소재의 산내연수원을 인수하고, 이달 초 현지에서 혜일 총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진산 종의회의장 등 종단 간부와 스승, 신교도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지난해부터 인수작업이 추진돼 이날 지진불사를 연 산내연수원은 부지 30만여 평에 실내 강당과 25개실의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 식당, 야외 공연장, 눈썰매장 등 체육활동 공간, 자연체험학습장, 수련의 숲,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간단한 내부 수리와 시설 개조를 거쳐 종단 신교도는 물론 불자, 일반인 등 이용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쉼터 개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이·청소년 캠프, 단체별 수련회, 자연환경캠프, 심신수양센터, 예절·전통민속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의 연수시설과 차별화된 수련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친환경적인 시설 신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교와 종단 이미지 개선은 물론 포교 활성화 등을 꾀해 나갈 방침이다.

산내연수원 운영이 본격화 될 경우, 진각종은 신교도들의 휴양을 겸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자리 잡아 진각문화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과 불자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진각종을 대외에 알리는 포교도량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각종 관계자는 "회당대종사 탄신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종단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전개된 이후 종단 분위기가 가라앉았던게 사실"이라며 "이번 수련원 인수와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종단 분위기를 쇄신하고 포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등 경연대회…작품부문 최우수상 '병풍등'

진각종이 주최한 제2회 등(燈) 경연대회에서 작품상부문 최우수상에 김정민(남부심인당)씨의 '병풍등'(사진)이, 단체행진등부문 최우수상에 김창민·김지영(전국청년회)씨의 '깨침이 우산등'이 각각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무애심인당 홍선욱씨가 출품한 '어화등'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김정님(탑주심인당)씨의 '은혜경등', 김산(통리원 포교부)씨의 '사면 깨침이등' 선정됐다.

시상식은 26일 서울 총인원에서 열리며, 출품작은 5월 8일까지 총인원에서 전시된다.

천태종 봉축행사 '눈에 띄네'

미아찾아주기·연극·사생대회 등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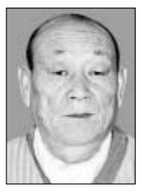
천태종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해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천태종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달간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종단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봉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와 별도로 펼쳐지는 천태종 봉축행사는 미아찾아주기, 연극 공연, 시민 화합 한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등으로, 서울, 부산, 울산, 춘천 등 각 지역과 천태종 소속 사찰에서도 마련돼 불자들의 호응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은 5월 7~8일 강남역과 양재역, 관문사 등에서 미아찾아주기, 소원성취 축원문 달기, 들차 시연회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5월 6~8일 삼광사에서 열리는 부산지역에서는 연극 '심청전' 공연, 백일장, 찬불가 경연대회 등이 개최된다.

울산에서는 봉축 음악제와 전통등 전시,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 위로잔치 등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5월 4일 중구 성남동 고수부지에서 열린다. 춘천 삼운사와 춘천노인복지관은 5월 2일 호반체육관에서 어른신 한마음 체육대회, 삼운사 합창단 발표회 등을 갖는다. 박봉영 기자

기획감사실장 법선스님
교무부장 학현스님 임명
태고종 총무원 부장급 인사





태고종은 15일 총무원 기획감사실장에 법선스님(사진 왼쪽), 교무부장에 학현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법선스님은 62년 불국사에서 풍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후 총무원 사회부장, 교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학현스님은 62년 백양사에서 인공스님을 은사로 득도,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법규위원 등을 역임했다.

게 시 판

행사 ▲문화답사 모임 터사랑은 26~27일 해금강과 거제외도 해상공원으로 문화답사를 떠난다. 뼈아픈 현대사를 증언하고 있는 거제 포로수용소도 들른다. (02)725-1284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25일 정토회 강당에서 '내 마음의 푸른 마당'을 개최한다. 쓰레기 제로 운동 차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등을 주제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02)587-8997

▲은평구립도서관은 효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대상은 은평구 어린이, 청소년이며 응모기간은 5월 10일까지. 또 5월 7일 '도서관을 찾아온 인형극'이란 주제로 공연이 펼쳐진다. (02)385-1671

강좌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중·고교생 흡연예방과 금연 교육을 위한 '금연 Day Camp'를 개최한다. 기간은 5월 21~22일, 6월 18~19일, 7월 23~24일 오후 2시~6시로 총 3회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학교 또는 개인별로 접수받는다. (02)838-8559

▲서울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골다공증 공개강좌와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인원은 선착순 150명. (02)804-4058

모집 ▲부산 맑고 향기롭게는 노인건강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 분야는 어르신 목욕 보조, 청소, 말벗 등이며, 정기 목욕 봉사는 매주 목요일 9시~12시까지. (051)898-2672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민요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민요교실은 매주 목요일 주 1회 진행되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 내방 접수. (02)365-3677

인사 ▲조계종 △총무부 총무과장 함동철 △총무부 총무주임 지정학 △재무부 재정과장 진준호 △사회부 사회과장 직무대리 김영주 △호법부 사무과장 직무대리 황철기 △호법부 주임 김정호 △기획과장 직무대리 박재현 △기획실 감사주임 윤승환 △기획실 전산계장 권상혁 △교육원 전창훈 △교육원 이상봉 △포교원 포교연구실 차장 박희승 △포교원 최영 △포교원 조현우 △사회복지재단 부장 이석심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태고종

1차 기본 습의과정 개설

태고종은 행자교육을 강화하고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2주간의 1차 기본습의 과정을 개설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4주간의 수계산림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태고종은 향후 종립 동방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한 승려에 한해 득도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기간 연장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행자 수계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은 6월 30일까지 행자교육기관인 정수원에 입교할 합동득도 수계대상자 등록을 받는다.

천태종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은 12일 구미역 광장에서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장애 발생 원인과 예방법 등을 담은 입간판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으로 전개됐다.

진각종

일헌정사 등 대정사 품수

진각종은 16~17일 서울 총인원에서 진기 57년도 춘기스승 강공을 열었다.

'스승으로서의 위의와 덕성을 함양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스승강공에서는 선본 정사(남도심인당), 상제 정사(홍원심인당), 증광 정사(경산심인당), 법정 정사(지원심인당), 일헌 정사(범석심인당) 등 5명의 스승이 대정사 법계를 품수했다. 또 자비훈 전수(보광심인당), 자각혜 전수(명선심인당)가 대전수 행계를 받았다.

혜일 총인은 법어를 통해 "일상의 자기 모습에서 화도하는 귀의처로 삼아 스승의 본분을 지키는 참 스승이 되라"고 당부했다.

총지종

종조전 조성공사 착공

총지종은 16일 서울 총지사에서 종조전 조성을 위한 지진불사를 봉행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 전당건설위원회의 승인 이후 탄력을 받은 종조전 불사는 6월 중순경 회향된다. 총지종은 종조전 조성을 통해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바로 세워나갈 계획이다.

조동종

금란가사 점안법회 봉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25일 서울 평창동 청련사에서 금란가사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대선사, 선사, 종덕 법계의 스님들이 수하게 될 금란가사는 25조로 제작된다. 조동종은 수년간 의제 연구를 진행해 지난 2월 열린 중앙종회의 인준을 거쳐 조동종 가사를 제정했다.

대승종

구족계 수계산림 열어



대한불교대승종은 11일 총무원 법당인 안양 만장사에서 구족계 산계산림을 열고 비구 25명, 비구니 7명 등 모두 32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총무원장 일오스님을 전계사로, 중앙종회의장 만춘스님을 갈마사로, 원로원장 서봉스님을 교수사로 열린 수계산림은 전통 수계의식으로 진행됐다.

원효종

원효스님 1317주년 추모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내 원효성사 동상 앞에서 열반 1317주년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추모대재에서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부각시키고 포교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한다.

- 참나무 목초 수액시트 -
발건강법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밤을 자고나서 수분(노폐물)을 직접확인하십시오.
2 Box 주문시 1Box 무료 증정
체험사례
※ 무릎이 좋아졌어요. (분당, 유영순)
작년 여름 넘어진 후 무릎이 아파 고생했는데 무릎에 붙이고 떼어보니 시커멓고 걸죽한 액체가 추축하게 나와 있더군요. 계속 붙이면서 효험을 보았어요.
※ 관절에 효과를 보았어요. (강남,김상원)
저는 60대주부입니다. 50대부터 발가락이 아파서 목초수액을 1개월정도 붙였습니다. 차츰 통증과 노폐물이 줄어들어 2개월부터는 밤 중에도 편하게 잘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주요납품처 : 광시한의원, 현대의원, 태용한의원, 경희한방병원, 원목실, 그랜드 약국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분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수도자
●운동선수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가정주부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굳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배꼽다이어트炭씰 ★수입완제품 ★일본大핫터!!
●일본에서 매월 6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이학박사 "시카이 미쯔루"증언
●배변 원활, 체중감소, 배가 따뜻함 허리날씬, 냉증
정가 : 69,000원
수액시트2Box×(160,000원)을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300분한)
※ 별도구입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3-5851 Fax. 02)454-064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고의 빛과 소리 테크놀로지 -노바프로100
노바프로100 기본사양
오라진동 쿠션 옵션사양

*명상, 릴렉세이션, 학습, 창의력 등 100세션
*더 진보된 세션을 창조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세션
*CD나 카셋트 음악을 광안경 불빛으로 전환기능
*순백색광안경과 고급 다이내믹 헤드폰 등
*미국 포토소닉-마이크로펄사 제품

*오라진동쿠션(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미국 포토소닉 사 제품- 뉴욕 타임즈 기사 내용
"예전에 당신은 화롯가의 점멸하는 불빛에 의해서 마음이 안정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빛과 소리 기기가 당신을 이완시켜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라고 빛과 소리 기기의 사용자들은 말합니다…사용자들 중 일부는 세션 동안 이완되어서 수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즉각적인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의 감각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빛과 소리 기기가 적어도 나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명상에 잠기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리 기기들은 명상 동안 방황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점멸하는 빛은 집중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Rickhi박사는 "우리는 명상 하는 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 뇌파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빛과 소리 기기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의식의 변형을 가속화시키고 명상과 릴렉세이션 기기가 될 수 있다…빛 자극은 수동적이다; 당신은 릴렉스 이외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작동하게 놔두기만 하면 된다. 빛 자극은 두뇌의 인산염(phosphate) 수준을 상승시키고, 두뇌 대사작용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신경 통로들, 동조라고 부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뉴욕 타임즈 2003년 1월 30일
이 기사는 노바프로100을 생산하는 같은 회사 제품인 인너펄즈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드리고 상담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766-6343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0,000
조끼·몸배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라복
적삼·조끼·바지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마 ₩160,000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30,000 ~ 50,000원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삭발식 후 한 동자승이 어색한듯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동자승이 삭발수계식후 엄숙한 표정으로 가사를 이마까지 올리며 '계를 받들겠다' 서원하고 있다.



◇동자승들이 16일 삭발 수계식을 갖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첫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부처님 지혜 배울래요"

동자승 12분 탄생하던 날

이슬 같은 12명의 동자승이 탄생했다.

동자승 12명의 삭발수계식이 열린 16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부처님 마음 같은 해맑은 동심을 간직한 5~6세의 동자 12명이 4일간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삭발수계를 위해 가지런히 앉아있다.

잠시 후 계사인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이 법좌에 오르자, 동자들도 여법한 모습으로 입정에 든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동으로 오시었네. 깊은 뜻 말씀 믿음으로 출가하고자 하옵니다'라는 거향찬에 이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염송된다.

향과 꽃으로 수계를 청하자 계사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은 "부처님과 인연공덕을 쌓고, 자비정신을 배우라"며 "이러한 자비정신이 나중에 커서 선악의 갈림길에 설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둥이 출가시키고 "생애 가장 기쁜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번뇌 망상을 다 살라낸 삭발식. 6명의 스님이 동자들의 머리를 몇 번 커터기로 밀자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하지만 동자승들은 어색한 듯 손으로 없어진 머리를 만져볼 뿐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지난해에는 동자승들의 삭발식장이 울음바다로 변했지만 올해는 12일부터 나흘간 행자생활을 한 덕에 으젓해진 것이다.

'계를 수지하여 받들겠다'는 서원으로 연비를 마치고, 오탁악세와 인연을 끊는 수계식으로 이어지면서 간간히 장난기가 발동하던 동자들도 엄숙해진다. 드디어 가사를 입는 수착만의. 동자승들은 가사를 두 손에 들고 이마까지 올린 뒤 부처님께 발원한다.

동자승 정향스님(정인영)은 "저희들은 꼬마스님이 된 만큼 친구스님들과 싸우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겠으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동자들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마지막 순서는 꽃다발 증정.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다. 동자승들과 부모들은 잠시 손을 맞잡는다. 동자들은 부모님들과 헤어짐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다. 오히려 부모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동자승 정원스님(곽경민)은 "머리를 깎아 시원해진 것이 달라진 점"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기 위해 30일간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참을 것"이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정관스님(박재욱)의 아버지인 박영철(마포소방서)씨는 "나름대로 승복과 삭발한 모습을 보니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간 느낌이 든다"며 "부모의 뜻이었지만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쌍둥이인 정법(심명관) 정행(심명석)스님을 출가시킨 석주현 보살은 "생애 가장 기쁜 순간"이라며 "부처님의 공덕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고 밝혔다.

가사를 걸친 동자승들은 바로 총무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애기스님들 머리를 깎으니 좋지?"라며 복주머니와 사탕을 한아름 선물한 뒤, "부처님 열심히 믿으라" 말했다.

"새만금 살려주세요" 수경 스님 방문



◇동자승들이 17일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에게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출가 이튿 날인 17일 동자승들은 새벽부터 충남 대천으로 향했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에게 오랜만에 웃음꽃을 선사했다. 동자승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개펄그림을 전달하며 "새만금 갯벌을 살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수경스님은 "어이구 꼬마스님들이 오셨구만. 제대로 된 개펄 하나 물려주지 못하다니 미안해"라며 어린이들 손을 꼭 잡았다.

동자승들은 18일 평화사절로 이슬람 사원 방문, 오후 8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리는 만화영화 오세암 시사회에 참석등 바쁜일정을 거뜬히 감당해냈다.

올해로 네번째다. '동자승 출가 30일간의 출가'에 참가한 동자승들은 일반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과 경전공부, 저녁예불을 하며, 일반시민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무언으로 전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헌법 위배되는 조항이 아직 '행세' 해서야…



◇지난 2000년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 내걸린 현수막. 문화재 도난 방지와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공소시효 조항과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대정부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안 마련에 들어감에 따라 불교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사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불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불교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짚어봤다.

보완 시급한 불교관련법률… 그 방향

'재산관리인 임명'과 관련한 제12조도 불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전통사찰주지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문광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제6조에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행위시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것과는 달리 소속 대표단체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 임명 사유도 불분명하다.

조계종은 이처럼 종단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찰 경내를 관통하거나 주변 지역에서의 각종 도로 개설 · 건축 · 토목 행위, 케이블카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사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 문화재의 64%가 불교문화재이고 이중 42%를 소유하고 있는 불교계에서 가장 피부에 맞닿는 문제가 바로 문화재 도난 · 도굴 및 불법유통이다. 특히 8만여 건으로 추정되는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는 그동안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다행히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에 대한 처벌 규정(2001년)과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2002년)이 마련되는 등 처벌 규정은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고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말하기엔 곤란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난 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난 후 유통시키는 관례를 볼 때 공소시효 특례 조항과 민법상 선의취득 배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재청과 불교계의 생각이다. 이 두 조항의 신설은 의원발의, 문화재청 입법예고의 형태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다른 법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문제도 불교계에서 현안으로 부상하는 부분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소유주를 찾는 공고를 내게 되어 있으나 해당 소유주에게 공고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어 '알면 신청을 하고 모르면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찰 출토 매장문화재처럼 소유권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공고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는 법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 건축 관련 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에 관해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해 도시와 농촌,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구분해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 법률상의 용도지역에 '문화환경보전지역'을 두고, 용도구역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구역'을 신설해 사찰 문화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이 법률에 의한 영향평가에는 '문화사적 및 문화유산 영향평가' 항목이 없다. 따라서 불교 문화유산은 각종 개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조계종은 이 같은 항목을 신설하고, 이 법의 시행령 평가서 내용에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을 포함한 '문화사적 및 문화유산' 분야가 포괄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최근 조계사의 문화지구 지정이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문화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문화예술진흥법이다. 그러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주요 조항에는 '전통문화' 조항이 빠져 있어 불교계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우 · 권형진 기자

전통사찰보존법 종교행위, 재산권행사, 침해요소 많아

문화재보호법 공소시효 · 선의취득 특례조항 필요

국토이용법 '문화재구역' 등 신설 환경훼손막아야

●**전통사찰보존법**= 불교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률이 바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이다. 전사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찰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이 위협받는 사례가 적지 않고,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전통사찰에 대한 재산권 침해 △주지의 인사권, 재산취득 및 목록비치 등 사유재산을 간섭하는 행위 △불교계 내부의 분쟁에 대한 정부의 개입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전통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다르고, 실제로 전통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사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사찰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종교행위에 대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사법 제7조 재산목록 작성 비치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과 시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도록 소속대표단체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법에서 이를 다시 규정해 놓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구동현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과장

유학 온 외국인 스님의 꿈

"사회 복지 전공후 귀국 봉사하는 수행자 될 터"

'보성님, 스님이 아파요' 벨 소리에 놀라 잠을 깨어 전화를 받으니 다급히 들려오는 나빈의 목소리다. '왜? 어떻게 아파요?' 놀란 목소리로 불을 밝히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직까지 한국말이 서툰지라 이말 저말 섞어가며 대충 이해를 하고는 통리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스님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큰 눈망울엔 눈물이 글썽인다.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추어 나빈과 함께 시라라다나 스님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소화기능 장애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서 발생하는 증상이란다. 말은 안 해도 한국에 와서 한국음식과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말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가 보다.

얼마전 나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방 한구석에 앉아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너무 측은해서 네팔행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성수기라 일주일 후에나 티켓을 구할 수 있단다. 나빈에게 일주일 후에 고향에 갔다 오라고 했더니 '한국어 학당 수업도 빠질 수 없고, 참았다가 방학 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 일주일 후에는 머리를 깨끗이 삭발을 하고 네팔 전통불교 방식으로 혼자서 고인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다.

또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풀 죽은 모습의 나빈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오며 '보성님 나빈이 다쳤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랑 야외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다 장난삼아 뜀박질을 했는데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단다. 병원은 들렀다 온 모양인데, 팔 다리에 피 뭍은 붕대에다 스님의 부축을 받고 절룩거리는 모습이 측은하다는 생각보다도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나빈 조심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좀 어때?' 서투른 한국말로 '조금 아파요' 하고는 금새 눈물을 글썽인다.

시라라다나 스님은 JGO 스리랑카 지부의 추천으로 한국불교를 공부하러 온 스리랑카 시얌종 소속의 스님이다. 나빈은 JGO 네팔지부 청년회 멤버로서 한국에 온 네팔전통불교회 소속 재가 성직자이다. 두 사람은 일년 남짓 진각종 통리원에 머물면서 동국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수학하고 금년 봄 위덕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을 했다. 학교로 내려간 지 한 달 보름이 지나간다. 학교생활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는지. 일년 조금 넘게 같이 있으면서 고운 정보다는 미운정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저께는 전화를 했더니 나빈이 보고 싶다고 능청을 떤다. 무슨 과목이 어렵냐고 물으니 영어가 제일 쉽고, 불교 기초 한문이 너무 너무 어렵단다. 한국말도 이제는 곧 잘 한다. 학교로 내려가기 전에 장만한 핸드폰으로 문자도 가끔 보내온다. 그리고 전화를 자주 해 달란다.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용돈을 아껴야 된단다. 보고 싶다는 말이, 전화통화를 자주 하고 싶다는 말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치레 말이기를 바란다. 여기에서의 생활보다 학교생활에 푹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남방불교의 보고 스리랑카, 북방불교의 실크로드 네팔, 비록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 차도 많이 나지만 두 사람의 꿈은 한결같다. 불교성직자로서 불교사회복지를 전공한 후 귀국하여 자기 나라가 두루두루 잘 사는 나라, 부처님 은혜 가득한 향기로운 나라가 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NGO 활동도 중요하지만 인력 계발과 같은 정신적 지원이 더 큰 미래로 향하는 지원이라 생각하며, 제2의 시라라다나 스님, 제2의 나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두 사람의 한결같은 꿈이 꼭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앞날에 부처님의 은혜로움이 가득하길 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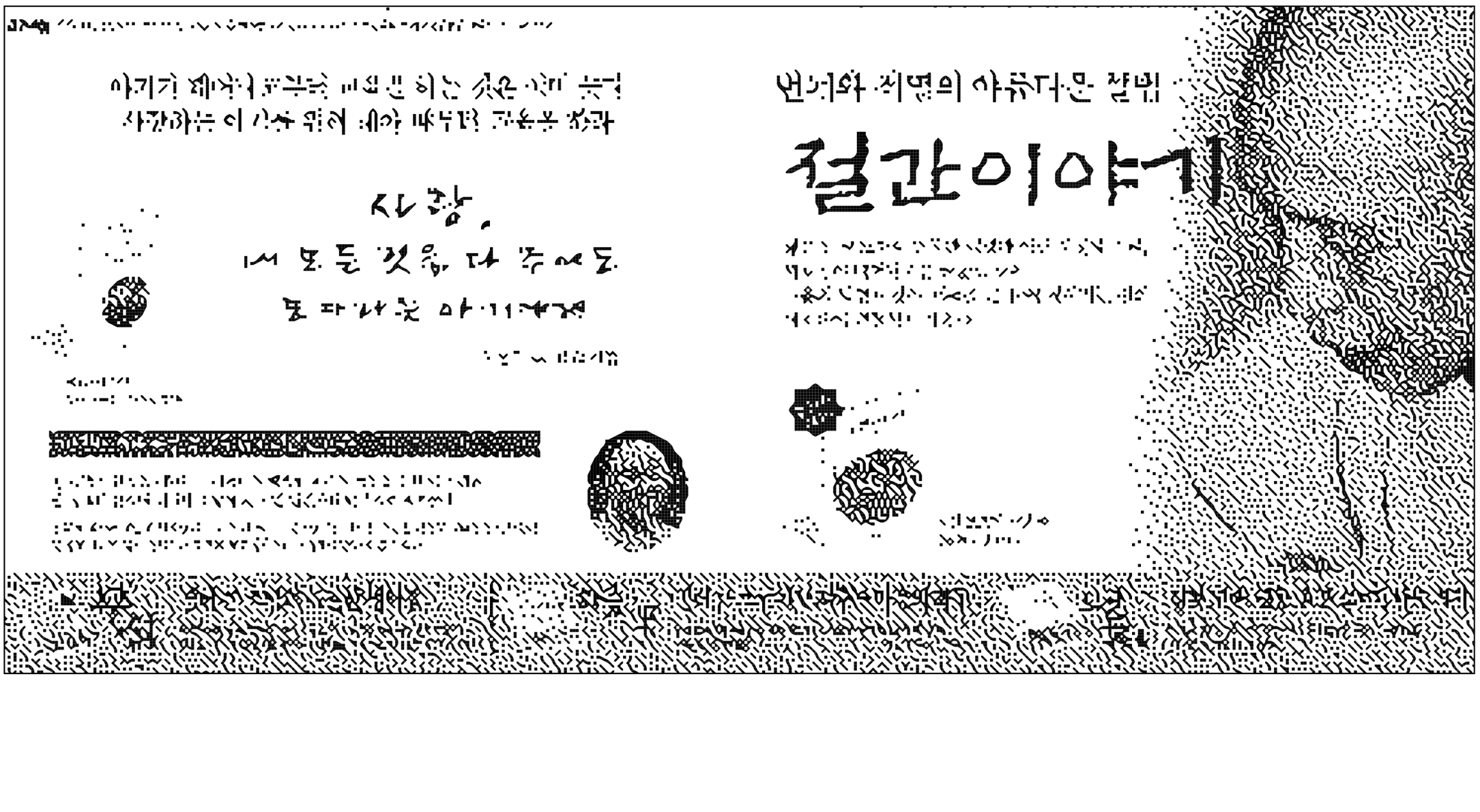




그림 · 김영민

눈코뜰새 없이 바쁜 직장불자들 우린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 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불자들. 이들은 일터에서 불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 그 형태는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개설,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하다. 소식지는 불자회 자체 편집회의를 거쳐 내놓거나, 종단 차원에서 발간되는 것을 받아보는 등 다르다. 특히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여는 것은 기본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해 신입 회원 신행상담은 물론 회원 간 이야기보따리도 풀어놓고 있다.

소식지 통해 불심 현장의 소리 담아내
공무원불자련 등 40여곳 '홈피' 개설 대화
경불회 · 소보원 사이버공간서 의견 나눠

▶소식지= 현재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 중인 전국 직장 · 직능연합회보 <직장불교>를 비롯 선재마을의료회,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 법륜불자교수회 등 20여 직장 · 직능불자회가 소식지를 통해 불심을 나누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4월 처음 발행한 <직장불교>는 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전력인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등의 일터 불심을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다. 또 개별 불자회의 소식을 공유케 해, 직장불자회 간 연대감 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운전기사불자연합회원 박영조 씨는 "평소 빠듯한 일과 때문에 책 읽기가 힘들지만, 회보는 얇고 경전이야기와 스님 법문 등의 내용들로 꽉 차 있어 유익하다"며 "아예 손에 들고 다니면서 경전처럼 지니고 생활한다"고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일터 불심의 대화 방식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홈페이지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세무사불자회, 선재마을의료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실질적으로 회사 홈페이지나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4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창립 1주년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통한 공무원불자연합회는 별도의 관리팀을 두고 기획에서부터 관리에서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교 · 직원 불자모임 불이회는 홈페이지 내 불교에 대한 질의방을 마련, 일일이 인터넷상에서 답변과 신행상담을 해주고 있다.

▶커뮤니티= 요즘 직장불자회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화 채널 방식이다.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동호회 코너 방을 갖고 있는 전국경찰불교회는 최근 회원들의 근황과 함께, 활발한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는 프리챌(freechal)에서, 광주불교산악인회는 다음(daum) 카페에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 놓고 불교 신행 상담은 물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까지 화제 삼아, 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해 정보교환 공간을 활용하는 직장불자회도 있다. 전력인불자연합회, 우리은행 불자회,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등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불자회 정보, 회원들의 동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주요 직장불자회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직장불자회 이름	홈페이지 주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www.gongbul.or.kr
서울대학교 교 · 직원 불자모임 불이회	www.buddhabree.co.kr
한국세무사불자회	www.buddhatax.com
선재마을의료회	www.seonjae.com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www.unbullyun.co.kr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	www.gngb.or.kr
춘천시청 도반회	www.doban.chuncheon.go.kr
전국경찰불교회	www.police.go.kr/community/club
전력인불자불자연합회	e-kepco.co.kr/circle/banya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home.freechal.com/sobul
광주불교산악회	http://cafe.daum.net/1234jds
중앙경찰학교 불교동호인회(화엄 포돌이 포순이)	http://cafe.daum.net/podorposun
대구교도소 직원 불심회	http://tgbulsim.hihome.com
부산시 사하구청 법우회	http://my.netian.com/~sahabud

우리 모임에선

경북도청 불자회 산사순례 · 방생법회

경상북도청 불자회(회장 김영재 · 경제통상실장)는 20일 문경 봉암사, 김용사, 윤필암, 대승사 등을 참배하는 산사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승사 주지 혜담 스님의 집전으로 산천어 10만 마리를 경천댐에 풀어주는 방생법회도 봉행했다.

서울경찰청 25일 봉축기원 법회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정은식 · 청소년계장)는 25일 종로 내자동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불자회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봉축 법어를 한다.

한전본사 반야회 13주년 법회

한국전력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는 지난 10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이인규 회장은 "불자회를 재창립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펴쳐나가자"고 말했다.



대구 · 광주불자 화합 · 한마음 잔치

대구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산악회(회장 한수범)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지난 13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산행합동법회를 봉행했다. 230여 영 · 호남 불자 산악인들은 이날 산행에서 화해의 악수, 화합의 포옹을 나누며 신심을 키웠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불회 2기 집행부 임원 공모

회장 · 각 부장 등 10명, 26일 마감

'전국경찰불교회를 이끌 원력 있는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 경찰청 수사국장)는 15일 제2기 집행부 구성을 위해 임원 모집을 공고했다.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2인, 임명직 총무부장, 조직부장, 포교부장, 사무국장, 사이버대표시숍 · 부시숍 등 총 10명이 모집대상이다.

전국경찰불교회가 이같이 임원 공개 모집에 나선 이유는 전국 2천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경찰포교에 원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기 위해서다.

마감은 4월 26일까지며, 지원자는 희망 보직과 자기소개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knppogyo@chol.com)로 제출하면 된다. (02)313-0815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나랏일을 즐겁게, 국민에게 기쁨을!' 1만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원들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 땅에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무원 불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연합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0년 10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전국 47개 기관 700여 공무원 불자들이 모여 결성됐습니다. 이후 우리 연합회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창립 1주년에는 전국 105개 기관이었던 불자회가 올해 들어 20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장 요인은 전국의 단위 행정기관에 불자회가 성립될 때까지 미창립기관의 공무원 불자들이 개별회원의 자격으로 연합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회, 단위 기관 불자회, 개별 회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의 다양성도 공불련 발전의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활동도 왕성하게 펼쳐왔습니다. 회원들의 불교대학 수강, 의료봉사 활동, 불우이웃돕기, 해외성지순례, 문화행사 참여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 현재까지 아홉 번에 걸쳐 전국 규모의 합동성지순례법회와 세 차례 합동 수계법회도 열어, 폭 넓은 불교이해와 상호 친목을 도모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합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불국 정토를 일굴 공무원 불자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더 누비고 다녀, 크고 작은 법회를 꾸준히 열 계획입니다. 지역간 화합의 장도 마련해 명실공히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불련 임원은 제2대 회장 노옥섭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해 연합단체별 9명, 지역별 11명의 부회장, 2명의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직능 · 지역별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2대 회장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연합단체별 부회장을 확대했다는 점과, 여성부회장 3인을 둠으로써 각 단위기관 내에서의 여성불자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랏일을 즐겁게, 국민에 기쁨을" 슬로건
연내 회원기관 300개로 늘리는데 주력



◇지난해 9월 28~29일 이틀간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열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에서 공무원 불자들이 합장 발원하고 있다.

올해는 단위기관불자회의 창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원기관을 300개로 늘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전국적인 규모의 순례법회와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불교계 각종 행사와 문화, 봉사 및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우리 공불련 회원들은 불교계 내외에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각자가 현 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수행 · 정진하고, 불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홍부 사무국장

새로운 몸 만들기

"몸, 그대로 기쁨이 된다!"



진기주천眞氣周天 수련반

전통 도맥 비전공법 전승자 이둔 선생 특별지도

일생일대의 도전!
– 진기주천 이루어 만병 물리치고 항상 젊음 속에 산다!

* 몸안의 탁기, 사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온몸을 진기(眞氣)로 가득 채운다!
* 진기로 뇌수를 충전, 뇌를 젊게 하고 중풍, 치매에서 완전 해방된다!
* 진기로 전체 골수를 충전, 젊음과 아름다움, 넘치는 활력 되찾는다!
* 초인적인 집신력과 무너지지 않는 심혜의 경지를 획득한다!

[공개특강] 3차 / 4월 21일(월), 25일(금), 26일(토) 오후 7시 / 참가비 : 5천원

[본 강좌] 진기주천 제1단계 – 오음곡(五音曲) 수련반

다섯가지 소리와 비정의 특수호흡법을 운용하여 전신의 경맥을 뚫는다.
심신건강이 대폭 강화하고 진기주천의 근권한 토대를 마련한다.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 3개월, 총 12회 과정 / 5월 2일 개강
* 참가비 : 51만 2천원(선착순 접수마감)

*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소주천小周天 수련반)과 3단계 (현신주천 수련반)도 각각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총 9개월의 교육과정으로 천인합일眞氣周天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지게 되면 진신 경맥에 진기가 충만하여 무병장수의 원천건강체질이 되어 진기 발공으로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이둔(李电) 박태섭 선생은 서화담, 이토정, 유화산, 송율산, 김추당으로 이어지는 전통 도맥의 계승자로서, 금단대도의비전 내공법인 · 천인합일眞氣周天과 기문둔갑 의 비의를 전수받고 오랜 기간 정진해옴으로써 선대 조사의 뜻에 따라 이를 세상에 올바로 전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서강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그는 동서양 철학이 두루 통해 있으며 「소설 기문둔갑」「주역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카발라」「푸리경영」「불교심리학」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주의: 홀로스 명상대학 (02)747-2251 / Holos.or.kr / 교육장소 : 정신세계원(02-747-7033 / 전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비원 옆길 200m 안쪽 비원 볼링장 건물 내)

기공사氣功師로 변신해 보십시오.
평생건강과 보람을 얻습니다!

지도강사:
윤금선 선생 (74세 계)

중국 길림성 집춘에서 의의회 양의를 겸한 동서결합의로서 명동한 윤금선 선생은 5대 초반에 기공에 입문, 1980년대 중국 전역에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현대 의료기공인 학심장(锻炼生) 기공을 창안자 조금항 선생에게서 직접 전수받고 십수년간 '길림성 학심장 전업위원회' 이사장직을 맡아 그 보급에 힘썼으며, 전편세지 최고의 기공사로 불리우는 엄신(基新) 선생의 문하에서 고차원의 기공과학을 탐구하고 연마하여 '길림성업신기공 전업위원회' 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기공과학연구회 특별회원으로서 고급기공사 및 특이공능기공사로 공인된 그는 '길림성기공과학연구회' 상임이사, '길림성 기공사 자격시험'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20여년간 기공수련에 정진한 공덕으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체의 유연성과 지치지 않는 활력, 그리고 비상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그는 현재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 기공과학분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되어 한국에 체류중이다.

'고급 기공사' 윤금선 선생의
의료 기공사 양성반

전문의료인 특별반 / 제1기생 모집

공개 특강
4월 22일(화) 오후 7시~9시 / 참가비 :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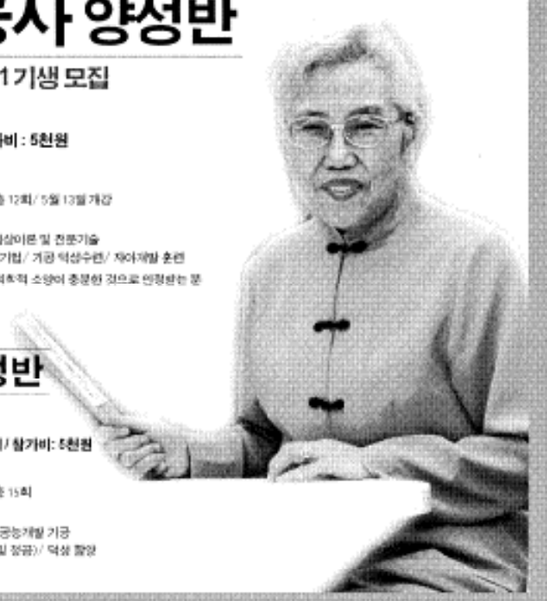
[본 강좌] 6개월 과정 / 5월 3일 개강
일시 : 월 2회 / 격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 총 12회 / 5월 13일 개강
참가비 : 100만원(선착순 접수 마감)
[교육 내용] 건강양생기공 경론 / 의료기공 입삼이론 및 전문기술
기공의료와 음식섭생 / 병종에 따른 세기 및 예기법 / 기공 덕성수련 / 자아개발 훈련
[참가 자격]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 및 의학적 소양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

'고급 기공사' 윤금선 선생의
3급 기공사 양성반

제9기생 모집

공개 특강 : 4월 29일(화) 오후 7시~9시 / 참가비 : 5천원

[본 강좌] 8개월 과정 / 5월 6일 개강
일시 : 월 2회 / 격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 총 15회
참가비 : 61만 2천원(선착순 접수 마감)
[교육 내용] 건강양생 기공 / 의료기공 / 특이공능개발 기공
기공의 원리적 원리 / 고급 이론 및 실기(동공 및 정공) / 덕성 함양



주의: 홀로스 명상대학 (02)747-2251 / Holos.or.kr / 교육장소 : 정신세계원(02-747-7033 / 전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비원 옆길 200m 안쪽 비원 볼링장 건물 내)

선정 수행 없어도 위빠사나 가능

김재성 동국대 강사



"첫번째 선정(初禪)의 상태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위빠사나가 진행된다."(임승택)

"위빠사나 수행은 초선 이전부터, 즉 선정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김재성)

지난 12일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제17차 학술발표회가 열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법당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날 '첫번째 선정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임승택(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씨가 "지혜(위빠사나, 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선정(사마타, 止)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초선의 상태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기에 가장 온전한 상태"라는 주장을 펴자 논평자로 나온 김재성(동국대 강사)씨는 "초선 이전에도 얼마든지 위빠사나가 가능하다"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토론 문화 부재'라는 비판 속에서도 한국 불교학계는 지금 몇 년째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은 최근 3~4년 사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소장학자 3명(조준호, 임승택, 김재성)이 이끌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의 출발이 되는 사띠(sati)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이들의 논쟁은 최근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 문제에 이르러 정점을 맞고 있다.

임씨가 초기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선정의 모든 단계에서 위빠사나가 가능하지만 가장 완전한 형태의 위빠사나는 초선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팔리 주석서를 주 텍스트로 삼은 김씨는 선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논지를 편다. 이날 발표회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준호(동국대 강사)씨는 사선(四禪)까지 선정을 완성한 후에야 위빠사나 수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술발표회 때마다 전장(戰場)을 방불케 하는 이들의 치열한 논쟁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의 초기불교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한몫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적 천착이 아니라 실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다듬어간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12일 사회를 맡은 황용식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는 "해석학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토론에 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논쟁을 지켜본 대다수 학자들은 "워낙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니 그 차이를 줄이기 힘든 측면도 있다. 발전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은, 모처럼 불붙은 학문적 논쟁이 당사자는 물론 학계에도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위빠사나' 논쟁 치열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회

선정없인 불가능 초선때 수행 익어

임승택 불교문화연 교수



학계에 자극제 … 지나친 자기 입장 고수

동악미술사학 3호 발간

김동현 박사 정년 기념



2월이면 대학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 하나가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의 '논문집 봉정식'이다. 주로 대학원 제자들이 중심이 돼 하다못해 '기념식'이라도 갖는 게 상례다.

그런데 김동현 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그것마저 번잡스럽다며 조용히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학교(석좌교수)로 내려갔다. 강단에 섰던 시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99~2003) 국립문화재연구소장(96~98년)을 지냈고 지금도 활발히 고건축 보수·복원에 관여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아쉬움이 남는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장충식)는 그런 김 교수를 위해 최근 발행된 학회지 <동악미술사학>(연간) 제3호를 바쳤다. '와본 김동현박사 정연기념논총'으로 꾸며진 학회지에는 월례발표회 때 발표된 10편의 논문 외에도 장충식 교수(동국대) 등 10명이 새로 논문을 썼으며 한국 불교건축사 관계 논저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고려시대 팔관회를 재현한 상상도('한국생활사박물관-고려생활관 1' 중).

"고려 팔관회 지배층 중심 축제 왕권강화 위해 조직결속에 중점"

연등회와 함께 고려사회의 가장 큰 축제였던 팔관회는 왕실과 지배층 위주의 고도로 정치화된 축제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12일 열린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 제90차 연구발표회에서 구미래(안동대 민속학과 박사과정 수료)씨는 '팔관회의 축제적 성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집단이 왕과 지배집단으로 제한되고 볼거리 위주의 이벤트로 채워짐으로써 하층민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국가축제 성격이 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불교의 팔관재계(八關齋戒)에서 시작된 팔관회는 일부 계층이나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였다는 것이 그간 학계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그러나 구씨는 "왕권 강화와 함께 공동체 통합 기능이 팔관회를 중요한 국가 행사로 500여 년간 지속시킨 주요인"이라며 "공동체 통합의 경우도 지배층과 국가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둬 팔관회를 통해 범국민적 결속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왕인박사 구림출생설 근거 희박 일제때 만들어진 후대 산물"

문안식 씨, 고대사학회서 발표

왕인 박사 유적지냐 도선 국사 유적지냐? 전라남도 기념물 20호인 '왕인 박사 유적'의 상당수는 도선 국사 관련 유적이 와전되거나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고대사 제71회 정기발표회에서 문안식(조선대 강사)씨는 "왕인 박사의 구림 출생설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출생 설화와 관련 유적 대부분이 신라말 구림에서 태어나 활약한 도선 국사의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8번지 일대는 왕인 박사의 출생지로 알려져 집터인 성기동 고택과 책굴, 문산재와 양사재, 책굴 앞에 서 있는 '왕인상' 등이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문씨는 <속일본기> 등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중국에서 이주해와 백제의 문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왕구(王狗)의 손자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구림에서 태어났을 리가 없으며 △왜의 요청으로 일본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면서 당시까지 토착세력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던 구림 출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왕인에 대한 최초의 국내 자료가 1920년에 나온 <조선환여승람>인 점 등을 볼 때 '구림 출생설'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대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절(5)

전망속에 펼친 화엄의 뜻

문무왕의 명을 받은 의상대사는 소백산줄기인 봉황산에서 제일 먼저 화엄의 교지를 펼치려 하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소승 잡배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 건립이 여의치 못하였다. 그때 중국에서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善妙)가 용으로 변신하여 따라와서 부석(浮石), 즉 돌을 띄우는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676년에 드디어 이곳에 절을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부석사를 세우게 된 연유이다.

이 사찰의 압권은 전망이다. 무량수전에 오르느라 가빠진 숨을 고르고 잠깐 뒤를 돌아보면 소백산의 작은 봉우리들이 물결치는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잡힌다. 바다같이 넓은 산하를 부석사의 마당처럼 품을 수 있는 스케일은 천하를 굽어보는 듯한 통쾌함을 넘어 아련함까지 느끼게 한다.

사이사이를 작은 돌로 채워놓은 짜임은 대비의 구성이 돋보인다.

범종각을 들어서면 그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 이 건물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놓여 있어 누 밑을 길게 지나 계단을 오르게 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는 팔작지붕이지만 나올 때는 맞배지붕이다. 공간의 마디에 해당하는 범종각에서 바짝 조여지다가 취현암과 유물관이 좌우로 늘어선 마당으로 풀어지고, 안양루에서 다시 한번 조여져 그 밑을 지나 이 사찰의 중심건물인 무량수전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범종루까지 직선으로 전개되던 동선이 안양루 앞에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져 공간의 변화를 맛볼 수 있다.

무량수전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웅장한 건물이다. 다양하게 엮어진 진입로의 구



◇부석사 : 무량수전을 오르는 과정은 매우 극적이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천하제일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건축의 백미 산간 경사지에 위치 … 천하를 굽어 보는듯

부석사는 의상대사 이후 조선시대까지 신축과 중축을 거듭하였다. 통일신라의 유물로는 당간지주, 석축, 석등이 남아 있고, 고려시대에는 무량수전과 조사당, 조선시대에는 안양루, 범종각 등 여러 전각들이 건립되어 그 역사의 두께가 결코 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계획하여 지은 것처럼 공간의 짜임새가 조화롭다.

비탈길과 계단을 번갈아 오르는 경사 속에서 조였다 푸는 공간구성은 드라마처럼 극적이다. 천왕문은 이미 단을 높여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이곳부터 범종루 사이에는 다시 두 단의 석축을 두어 공간의 위계를 나누었다. 특히 이 석축은 불국사 석축과 더불어 통일신라 석조미술을 대표한다. 큰 돌로 자유롭게 짜 맞춘 뒤 그 성은 이 건물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유난히 크게 보이는 지붕은 무겁게 내려누르지만, 살짝 치켜 올라간 처마와 가운데가 볼록한 배흘림기둥이 그 중량감을 시각적으로 가볍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무량수전 안을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한 불상의 배치를 볼 수 있다. 건물은 봉황산에 기대어 남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의 아미타불은 동향을 하고 있다. 건물의 앉음새보다는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극락의 의미를 살려 서쪽을 배경으로 취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석사 건축의 절정을 만나게 된다.

의상이 펼친 화엄의 큰 뜻은 결코 후세에도 굴절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을 가꾸는 정성으로 상승되어 오늘날 건축적으로 가장 찬사를 받는 사찰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禪

참 선 교 육 (선수행입문서)

♪♬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裁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시 음식, 선사 백문 백답, 진제선사 수행문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신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선, 선사 백문 백답, 원담, 정일, 영명선사]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질 4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낱권 판매 가능 (15,000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안내 : 참선교육 60기 교육 (4월 29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밝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1)986-0277~8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귀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1-9686-3676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구인 구직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보현정사
(서울 교대부근)
02)583-1080
016-321-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대 이내
▷ 보시금 80만원
▷경북 상주 연화사
054)533-2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1)9721-2198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31)585-5108

일본근무 공양주 구함
일본 후지산 신덕사에서 불심 깊으신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5세~60세
▷인내심, 건강하신분
▷일본어로 전화받을수 있을정도
▷월급 100만원
부산 신덕사
051)508-8231~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女)사무원도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천 보각사
032)522-8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545-6531
011-422-6757

창건도량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지내실 분(비구스님)
011)259-59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3-5820

사찰에서 운전하실 봉고 기사님 구합니다
▷ 부 산
051)542-4630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공양주 보살님 구함
평생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실분 구함
▷내외분도 환영
▷ 충북 충주 선화정사
011)711-7127
043)855-7127

오래된 천식, 폐병, 심장병, 부인병에 좋은 토종약초인 곰보배추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자료보내드립니다.
디스크, 요통, 관절염, 신경통, 타박상, 어혈에 명약인 초오부자탕 필요하신분 상담해드립니다.
약사여래원 043) 645-0462 011-748-7604

악신에게 시달리십니까?
책임지고 천도해 드립니다.
천도가 잘되고 안됨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031)532-6661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결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신비의 氣電! 전통(傳統)활락법 공개강좌
● 체험설명회 4월 25일(金) 오후 3~5시
◆ 직접 오셔서 기적의 현장을 답습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종교지도자, 한의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기공사, 일반인등
◆ 실전전무가반
평일 : 4월 29일(4시간수련)
주말 : 4월 26일~27일(4시간 수련)
◆ 5인이상 출장 수련 환영
한국동의기공 예약 (02)473-5989 상담 (02)487-4578
전철 8호선 강동구청역 3번출구 나오면 바로 왼쪽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이전 강좌
알림 정보

상황버섯
캄보디아산 자연산
1kg 200,000원
055)381-1143
011-882-1149

신비한 비법
구성으로 본 내정법
사주없이 현실을 말할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분 전화 연락바랍니다
019-306-0089

천도재등 재의식 법문이 필요한 사찰 연락주십시오
형편따라 봉사하겠습니다
자성 합장
011-9866-0904
02)909-0904
e-mail : dhchong@naver.com

운세 30초내 잘 맞추면 입금
서울은행 24304-3396114 김진동
02-826-5067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트해보세요.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안정사 · 법명 : 효진(6549)
· 주소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1197-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 않아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4월 23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氣功 교육원
02)3446-4118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豆土)
발명특허원 15826호
가. 제품의 특성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를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된다.
나. 청국장의 효능
⊙ 정장 작용 - 변비 해소
⊙ 항암 효과 ⊙노화 방지 효과
다. 가격 : 77,000원 (낫도씨, 볏짚, 불약콩 500mg 포함)
라. 양구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12,000원/1kg, 8,000원/1kg
※신청: 우리콩운동본부 033)481-4894. 온라인(농협) 123-17-000466 정락훈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MHz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방송은 21세기 불교문화 진흥을 선도할 대망의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체국 : 601237-01-001062 국민은행 : 129-01-0011-308 예금주 : (재)부산불교방송
대표전화 : 051)644-5114

易 도가비전 전수 氣
도통역 기공법
건강 사업 성공 등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氣를 보내고 받을 수 있음
● 위치 :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484번 종점 하차
● 전화 : 02)935-2728 핸드폰 : 017-208-2866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배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4월 2째주, 4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주 부터는 매주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동방 파동 명상학회 서울 지회장인 묘성스님.

동방 파동 명상학회 서울 지회장인 묘성스님(☎ 019-9138-4879)은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경,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어느 신도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휴가가 끝나는 그 날 오후 5시까지 자신의 소속 부대에 귀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대에서 연락이 오고 오늘밤이 지나면 탈영이 된다고 야단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에 스님은 그 자리에서 파동명상 요법을 통한 원격 명상요법으로 그 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그 아들이 왕십리 마장동의 어느 P.C 방에 있다는 영상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결과 놀랍게도 스님이 명상파동요법으로 본 그대로 왕십리 마장동의 어느 P.C 방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한 눈에 초점이 풀린 멍한 표정으로 넋을 놓고 앉아있는 아들을 찾아내어 그 날 밤을 넘기지 않고 무사히 부대에 귀대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그 문제의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그 왕십리 마장동의 P.C 방에 간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어느 순간 시간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하루종일 헤매고 다녔는데, 문득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있었다고 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 법 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고찰터에 자리잡고 우람하고 힘찬 바위가 어우러진 기도도량임

• 위치 : 천안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3억 6천

- 포교당 -
• 위치 : 인천
• 법당 및 요사 : 60평
• 가액 : 3000/100
• 가액 : 4000(특급)

청송기획 02)998-1994/011)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사찰 안내

● 위치 : 천안
● 대지 : 12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 위치 : 여주
● 부지 : 1,8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가액 : 2억7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芟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포교당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주안역 근교
● 법당 : 40평, 방 2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철학관, 포교당으로 최고임

● 위치 : 서울시 근교(강남에서 40분)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목재 오포 칠포)
● 요사 : 3동(150평)
● 양도가 : 12억(대출가능함)
● 산세좋으며 역사 깊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건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각종암 , 고질병, 중풍, 정신병 등 병원과 약으로 치료 포기하신 환자 불가의 비법으로 치유시킴
영통기도 각종 기도법 개인지도
(기도 및 기치료법 전수하실 보살, 처사구함)
해동암 041)942-9599
017) 409-9599

불교의식 무료강좌

성불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천만 불자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성불에 도움이 되고자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진행스케줄 : 목탁, 요령, 태징, 각단예불등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소 : 서울 광진구 노유 1동 23-3 3층 (자세한 약도는 www.kumgang.or.kr 참조)
◆인원 : 30명 ☎ 02)462-9413
※ 본 선문은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초종파 교육도량입니다.
※ 수료후에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선문

사정상(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남의 요지
● 평수 : 3층 약 80평
● 규모 : 법당 약 16평
방 5개, 욕실 2개
● 특혜 : 넓은 주차장, 즉시 법회 가능
● 보시로 급매. 전월세 가능
0502)777-595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 안내

● 위 치 : 부산
● 대 지 : 약 65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2억5천
※고급주택가 평지
※지하철 역세권

● 위 치 : 경주 양남
● 대 지 : 약 1천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5억8천만원
※ 울산에서 30분
※ 납골당 사업 가능

● 위 치 : 부산
● 대 지 : 약 22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55평
● 가 액 : 9억
※ 송림속의 도심사찰
※ 교통 주차편리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상계동 당고개 전철역에서 500m
● 부지 : 300평
● 법당 30 평, 요사 20 평, 나한전(노천)30 평, 약수 2개
● 주차장 완비(10대정도 가능)
● 가액 (절충 가능)
02)952-7220
011)9997-9932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진로농장
● 특징 : 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 : 3천7백평 (준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055)755-7172

포교당 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대로변 코너 4층 건물중 3층
● 건물 35평, 삼존불, 특 A급 시설
● 가액 : 보증금 1 천만원 월세 80 만원 시설비 2 천만원
02)973-5492
011)9764-4494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및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 특징 : 지리산 거립 대 계곡을 바로 접하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절경
● 부지 : 1,300평
● 현황 : 토목공사 완료(4필지구분) 한필지씩 분할 매각 가능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011)9522-3482 / 055)747-7921

포교당 안내

● 위치 : 신도시 중심상가 (역세권)
● 시설 : 160평. 시설완비
● 가액 : 3억원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와서 한번 보십시오)
011)9183-8993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중심가 (주엽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5평)
● 앞뒤로 아파트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가격절충
031)919-0306
011)9701-06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032)652-9384
011)729-6011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시 세류 2동 큰길 옆 3층
● 평수 : 40평, 방2개, 법당, 주방, 욕실, 옥상 30평 사용가능
● 시설 : 삼불, 신중, 영가단, 산신각, 에어컨 및 전자제품 완비
※ 시설에 관련된 집기 완비 (따로 시설하실 필요 없슴)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31)231-9293/011)9240-1384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서까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건물 : 4층 건물중 3층
●평수 : 30평
●시설 : 방2, 주방, 욕실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6)9336-2210

사찰(급)안내

● 위치 : 임진강 앞에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대지193평, 요사채70평, 법당 20평,방 6개,욕실 2,주방 3,거실3
● 법당단청했음
● 미륵 부처님 모셨음
● 산세수려하고 큰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
● 가격은 답사후 결정
011)9036-79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소사역 100m
● 3층 40평.
● 방2개, 주방, 법당
●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32)345-382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법천사
● 대웅전(법당) 40평, 휴게실 25평, 주택 50평
● 대지 3,400평
● 가액 : 10억원
● 대진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교차지점
055)963-2250
019)294-2250

사찰 양도 안내

● 특징
1) 천년 고찰터
2) 마애 여래불 문화재 지정
3) 문화재지정 자금지원으로 불사 가능한 곳
4) 좌청룡 우백호가 출중한 천해의 명당터

● 내 용
1) 종교 용지 : 1,830평
2) 법 당 : 13평(목조)
3) 요 사 : 20평
4) 매 가 : 3억 7천만원
● 위 치 : 충남 서부

사찰정보센터 금강기획
02)736-3578~9/011-789-225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삼호상가 2층
● 평수 : 25평
● 보증금 : 13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시설완비)
011)702-8181
02)532-65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다대포 주공아파트 상가 앞 건물
● 법당 : 48평(방 1칸)
● 전세 : 5천만원
● 비품대 : 5백만원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51)524-8932
016)884-1960

토굴 안내

● 위치 :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
● 건평 : 조립식 16평
● 지하수. 심야 보일러
● 교통 편리
● 보증금 : 1백만원, 월 無
011)9360-797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모곡 유원지 부근
● 부지 : 1, 250평 중 대지 380평
● 건물 : 40평
● 임법당. 삼존불 봉안.
● 방3개, 큰거실, 주방, 욕실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1)262-1311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새말휴게소 15분거리
● 부지 1400평, 대지 300평
● 법당 15평.
산신각, 요사채, 방 4개
● 가액 : 3억 5천만원
011)750-6712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지리산)
● 부지 : 약 2000평. 종교용지 330평
● 특징 : 200년이상 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수행처로 최요지
●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독성각, 분수대, 약수터, 보안등 완비. 불사하기 좋은도량
● 주지스님 외국 출타예정으로 인수하실 인연 찾습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063)625-5595

암자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자굴산
● 면적 : 1, 400평(정남향)
● 가액 : 9,000만원
●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차량 진입 가능) 옆에는 계곡과 앞에는 저수지가 있는 산세수려한 최적지의 암자터
055-882-4715/011)842-4715

펜션하우스 겸 수행터 부지안내

● 위치 : 경기 여주IC 10분거리
● 대지 : 603평
● 즉시 건축
● 산수절경, 남향, 조경완료
● 가액 : 1억 9천만원
(주인 직거래)
018)315-90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한옥 목조 임법당
● 대지 370 평, 건물 40 평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에서 영월사이
● 임법당 : 22평
● 산신각 1개. 뒤에 텃밭있음
● 보증금 3백만원, 월 20만원
● 매매도 가능함
주인(보살)직접
011)9408-6422
043)648-642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대명시장 부근
● 2층 상가주택. 크기 : 28평
● 1층 : 점포 1개, 방 1개
● 2층 : 방2개, 거실, 주방, 욕실
● 가액 : 9500만원
017)535-9952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태동 제2순환도로 학운 IC옆 무등산가는길
● 임야 : 4,020평
● 대형 차량 진입
● 그린벨트 아닌 마을 옆산
● 평당 10만원
016)471-8758

사찰 안내

● 위치 : 신림동 ● 대지 : 60평
● 건물 : 지하 (방 4개)
1층 요사채(방4개,거실,주방,욕실)
2층 (법당 20평)
● 바로 앞에 시장. 사정상 급매
건물 뒤는 산 (앞마당 주차 가능)
● 방3개, 큰거실, 주방, 욕실
● 인도금 : 3억 5백만원
011)9637-263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진주간 삼가면 소재
● 부지 : 대지 2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25평(스라브) 방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 산산각 및 용왕단 (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 가능
●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 도량으로 최적지임
● 매가 : 2억 5천만원(감정가) 1억 5천5백만원에 (급)양도하고자 함
016)421-9154

토굴터(급)안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만리포 해수욕장 10분거리
● 준농림 전 608평, 하천부지 500평
● 남향, 조용하고 아늑함
● 가액 : 1600만원
041)688-2506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시내 중심가)
● 평수 : 법당 20평 (2층), 요사 25평 (1층)
● 방5개, 창고 1개, 화장실 2개
● 대지 : 45평. 시내중심가변에 위치.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도심포교에 능한 스님
● 철학하시는스님, 시내토굴로 사용하실스님
● 좋은 위치에 있는 사찰임. 시설완벽함
● 주지스님 급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 : 1억원(절충가능)
019)9282-4080

토굴 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 건평 37평(2001년 신축)
● 대지 : 400평 , 전 300평
● 임야 :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 1억 3천만원(분리 가능)
011)434-72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의정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 100평, 35평 2층
● 가액 : 전세 6천5백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671-0987

토굴 안내

● 위치 : 남원시 근교
● 부지 500평, 건물1동
● 가액 : 1천 5백만원
016)441-0097
063)625-555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시내
● 평수 : 65평. 최상층
● 법당, 주방, 사무실, 방, 화장실
● 전철역앞. 옥상 사용가능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능
● 전세 6천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1)872-8227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에게 적합
● 가액 : 2천 1백만원
055)356-8056
011)451-6612

사찰터 안내

● 위치 : 안동댐 상류 산세수려한 토굴이나 절터 및 납골당 최적지(현재대추나무과수원)
● 임야 8,700평, 국유지 활용가능 5,000평 대지 약간
● 구 한옥 2동, 각 30평 전기 · 전화 시설 완비
● 가액 : 1억 3천만원(가격조정 가능)
011)463-885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 좌청룡 우백호 옆좌면은 일월산 능선을 바라보이고, 앞강과 큰국도 뒷산은 그림같은 최고의 정원 꽃과 바위속 터전이라합니다
● 전 약 : 700평(터 공사중)
● 가액 : 6천 3백만원
016)507-30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송파구 최고 요지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6만원
● 시설비 : 7,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 무교 의식가능
011)9050-8115
02)420-4751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경북 예천(해발 600m) 중앙고속 예천 IC30분거리
● 청정 계곡 상류. 황토 남향집 (대지 100평)
● 방 4개(온돌1, 보일러3), 목욕실, 주방, 수세식 화장실 2, 마당에 주차
● 인가및 밭 2천여평(절터 있슴)
● 맑은물, 풍부한 계곡 전체 독차지
● 마을 600m(산모퉁이 아래 안보임)
● 배산임수 명당지, 공부 · 수양 기도처
● 가액 : 8천5백만원
054)655-279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청에서 5분거리 양산IC에서 5분거리. 시장에서 가까움
● 2층 60평, 법당 60평
● 삼존불 봉안. 산신각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9)447-777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 70평중 법당 25평, 큰방 3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최고급 A급시설, 대형주차장 완비
● 포교당 위치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전세가능)
● 시설비 1억3천만원 들었으나 인연 있는분께 4천만원에 드리겠음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을모십니다.
011)9315-1200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에게 적합
● 가액 : 2천 1백만원
055)356-8056
011)451-6612

사찰터 안내

● 위치 : 안동댐 상류 산세수려한 토굴이나 절터 및 납골당 최적지(현재대추나무과수원)
● 임야 8,700평, 국유지 활용가능 5,000평 대지 약간
● 구 한옥 2동, 각 30평 전기 · 전화 시설 완비
● 가액 : 1억 3천만원(가격조정 가능)
011)463-885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 좌청룡 우백호 옆좌면은 일월산 능선을 바라보이고, 앞강과 큰국도 뒷산은 그림같은 최고의 정원 꽃과 바위속 터전이라합니다
● 전 약 : 700평(터 공사중)
● 가액 : 6천 3백만원
016)507-30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송파구 최고 요지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6만원
● 시설비 : 7,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 무교 의식가능
011)9050-8115
02)420-4751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경북 예천(해발 600m) 중앙고속 예천 IC30분거리
● 청정 계곡 상류. 황토 남향집 (대지 100평)
● 방 4개(온돌1, 보일러3), 목욕실, 주방, 수세식 화장실 2, 마당에 주차
● 인가및 밭 2천여평(절터 있슴)
● 맑은물, 풍부한 계곡 전체 독차지
● 마을 600m(산모퉁이 아래 안보임)
● 배산임수 명당지, 공부 · 수양 기도처
● 가액 : 8천5백만원
054)655-279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청에서 5분거리 양산IC에서 5분거리. 시장에서 가까움
● 2층 60평, 법당 60평
● 삼존불 봉안. 산신각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9)447-777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 70평중 법당 25평, 큰방 3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최고급 A급시설, 대형주차장 완비
● 포교당 위치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전세가능)
● 시설비 1억3천만원 들었으나 인연 있는분께 4천만원에 드리겠음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을모십니다.
011)9315-1200

사찰기도터(급)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011)742-5925 / 043)422-1666

목어

공도(公道)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얼굴 본 적 없는 오랜 메일 친구가 보내온 메일 제목이 '후세인이 믿었던 생화학 무기'였다. 열어 보니 그림 파일이 하나 나오는데…. 계단 밑에 총을 겨누고 엎드려 있는 미군 병사의 머리 위로 계단 위의 어린아이가 양증맞은 고추를 드러내고 오줌을 싸는 사진이었다. "하하~ 확실히 굉장한 생화학 무기로군!" 하고 그 기발한 착상에(실제로 이 사진 본 사람들 모두 다 웃었다) 실소를 머금으면서도, 뒤에 오는 씁쓸하고 심란한 마음에 사월의 화창한 날씨에서 오던 설렘이 다 날아가 버렸다.

미국이 그토록 침공의 구실로 내세웠던 생화학 무기는 어린아이의 오줌 말고 진짜 있는 것인가? 아니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일까? 후세인의 폭정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란 침공의 정당성을 따지는 일조차 의미 없게 되어버리는 분위기로 휩쓸려 가는 것조차 미국의 계산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문제는 유엔조차도 억제력을 잃고, 이제는 아무도 미국이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 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쓰는 국방비 총액을 앞지르는 엄청난 비용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 그 미국이 도덕성을 지녔다는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린 오늘, 내일의 세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후세인 정말 나쁜 짓 너무 했더군!" 하는 분위기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막 하는 말로 그 나쁜 후세인은 부시가 때렸다 치자. 그런데 만약 부시가 나쁘다면 누가 때릴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닌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도(公道)가 바로 서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광림사, 장애인 결혼 주선

'결혼하고 싶은 장애인들 모이세요.' 광림사 연화복지원이 '연화 장애인 무료결혼상담소'를 7월 개원한다. 상담은 전화와 인터넷(www.kwangrimsa.net) 등으로 진행되며, 성 상담에서 불우 장애인 결혼 상담까지 프로그램이 알차다.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주는 '맞춤 주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살 장애인들. 활짝 웃을 이들의 미소가 기대된다. (02)2202-5831

장군죽비

'종교차이'로 헤어진 연예인 커플

연예인 커플이 종교 차이로 헤어졌다고 한다. 12살 차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웠던 윤다훈, 이태란 씨가 바로 그들. 이들은 지난 11일 결별을 전격 선언했다. 갈등의 발단은 불교를 믿는 윤씨 집안과 개신교 신자인 이씨 가족 사이에서 비롯됐다. 이씨의 어머니가 윤씨뿐 아니라 집안 가족 모두의 개종을 원했다는 것이다. 신앙의 차이가 빚어낸 이들의 결별.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돼야

요즘 청년실업, 특히 대학졸업자들을 포함한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졸업장이 취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용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2003년 3월 현재 20세에서 29세 사이의 대졸 청년 실업률은 8.0%이며, 실업자 수도 20대가 37만5000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높은 청년실업률은 그 동안의 무리한 대학 증원과 과도한 학력 인플레로 인한 노동의 초과공급 현상에다, 기업이 신규공채보다는 경력자를 위주로 수시 채용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 듯하다. 1980년대의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처한 교육 기회의 확대 조치가 차후에 배출되는 노동력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뤄졌던 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고학력자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주요한 국가적 인적자원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인적자원은 실물자원과는 달리 축적에 많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생애에 대한 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노동시장의 적응과정에서 청년층 노동력이 적절한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여 상실된 인적자본의 축적의 기회는 이후에 쉽게 보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의 고학력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력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형성해야 한다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고학력청년실업대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급자는 나름대로 교육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특성상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모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커리큘럼을 바꾼다면 대학의 학문적 위치와 교육본연의 임무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은 그야말로 학문적 요구와 열망에 의해서만 그 수요가 발생하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고학력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을 대학교육이라는 정규교육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정규교육의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안교육도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도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대안교육결과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나 편견 없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의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종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산업에서 학력파괴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확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교육에 대한 낡은 악습이 철폐되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본이 형성되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 출판계의 현주소와 내일

23일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지만 불교 출판사들의 규모와 경영구조는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불서 발간은 양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중화의 실패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독서인구는 타종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불교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불교 출판계의 현주소와 내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윤창화 대표



◇김시열 사장



◇김동숙 전무

재미, 감동 주는 책 위해 모두 하나될 때

▧전문필자 부족, '문서포교' 소신 가져야

불교계 출판사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적인 영향도 크다. 통계상 불교인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은 1권도 채 안 된다. 불교인구는 1천만인데 비해 1년에 팔리는 불서는 7백만 부밖에 안 된다. 이는 타종교인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협소한 숫자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철저한 선불교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불교 현실에서 일선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이 독서를 별로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심 포교당에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문자에 집착하는 것은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독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 출판사들만의 힘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이다. 사찰도서관 확충이나 종단 차원의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서포교라는 거창한 명예(?) 뒤에는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판계 외적인 문제이다.

둘째, 필자부족 현상을 꼽을 수 있다. 한문으로 된 전문 특수용어가 많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줄 능력 있는 전문 필자들이 부족하다. 셋째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불서의 범람이다. 책을 출간하기 편한 시대에 살아서인지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변한 게 없다. 일반출판과는 달리 필자들은 문서포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진실한 땀방울을 흘러야 할 것이다.

윤창화(민족사 대표)

▧기획 · 마케팅 부족이 '영세' 탈출장애

불교출판도 전체 출판계의 경향이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불교라는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판매의 주 대상도 불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포교와 상업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불교의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이루는 학술서적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신행활동과 관련된 서적은 일종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전류는 주요 경전 몇 권을 제외하고는 판매를 보장받기 어렵다. 흔히 불교출판사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기획력과 마케팅의 역량 부족을 꼽는다. 실제로 불교계 출판사에서 기획만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무하다. 마케팅도 주로 서점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하는데 그것도 규모가 큰 몇몇 출판사에만 있어 마케팅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도, 발빠르게 정보를 얻어 이용하지도, 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도, 광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홍보를 하거나 이벤트를 마련하지도, 세련되고 탐나는 편집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 마인드의 부재가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합병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인재와 자본을 결집시키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시열(운주사 사장)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불서 만들어야

불교 출판물, 불서의 대중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불교 출판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선 불교 출판물의 대중화란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불교출판물이 종교 서적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취급을 받는한 대중화는 어렵다. 불교 출판물의 수요자가 불자들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즐겨 읽을 수 있는 불서를 펴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먼저 풀면 모든 답이 저절로 나온다고 본다.

불교 책은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쉽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 조잡해지기 일쑤다. 불서는 진리에 대한 감동과 삶의 영양분이 묻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들의 노력과 출판사의 기획이 절대적이다. 작가의 노력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손을 뗄 수 없이 이야기를 전개해 깊은 진리의 향기를 전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출판사의 기획은 시대의 흐름과 세대별 계층별 문화적 속성, 사회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 만들기'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책, 감동과 가르침을 주는 책은 반드시 읽힌다. 불서야말로 그런 책의 속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 불서의 대중화, 그 열쇠는 바로 '재미'와 '감동'이다.

김동숙(우리출판사 전무)







◇부불어 '어린이문화찾기' 답사모임 회원들이 김광호 금화사 어린이회 지도법사로부터 통도사 석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절에 부도탑은 왜 세우나요?

대불어 부산지구 '어린이 문화찾기' 행사

"영축총림이 뭐예요?"

"부도탑은 왜 세운 건가요?"

13일 통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 이하 부불어)의 '어린이 문화 찾기' 답사모임에서는 사찰의 이모저모와 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이 쉴새없이 이어졌다.

김광호 금화사 어린이회 지도법사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문화답사는 통도사 경내와 자장암 순례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이끌어 냈다. 영축총림, 부도탑, 전각, 불화, 사찰 예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어린 불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법사는 특히불교설화를 결들인 흥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불교문화를 전달해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통도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다음에도 꼭 올래요." 이날 문화답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새싹 불자 33명이 참여한 이날 문화답사는 부불어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첫 문화답사 모임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부산, 경남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게 된다. 5월에는 김해 가야유적지, 6월에는 경주를 답사지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정종학 부불어 사무국장은 "어린이 문화 찾기는 자연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찾은 모임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051)817-718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북남서부

향교 30% 절터에 세웠다

국립문화재연 조사 건물기단·주춧돌 등에 석탑부재 사용

경북 남서부지역에 남아있는 향교의 약 30%는 원래 절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최근 <경상북도의 향교 건축-남서부편>(유교건축총서 3집)을 발간했다. 문화재연구소는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이상해)와 공동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39건에 대한 학술조사를 2001년에 벌였고, 남서부지역 19곳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냈다.

보고서에 수록된 19곳의 향교 가운데 원래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향교는 대구향교와 현풍향교, 청도향교, 상주향교, 고령향교, 성주향교 등 6곳. 이들 향교에는 건물의 기단이나 주춧돌에 석탑 · 석등의 부재가 들어가 있거나 불교관련 석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현풍향교의 경우 8각 석등의 하대석이 향교의 중심건물인 대성전(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 문화재자료 27호) 주춧돌(礎石)로 사용됐고 기단 면석에도 불교 관련 문양이 새겨진 석재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강학 장소인 명륜당의 주초석 일부에도 석탑 부재가 쓰였고, 불상의 대좌와 석탑 부재 등이 남아 있어 원래 절터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향교의 대성전(문화재자료 1호)은 이번 조사에서 보물 616호로 지정된 영천향교 대성전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초 양식으로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았는데, 여기에도 주춧돌의 일부가 석탑 부재다.

일대가 지방유형문화재 155호로 지정된 상주향교는 대성전 기단에 석탑 부재가 들어가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2076호인 청도향교에도 불교와 관련된 석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 조상순 연구원은 "건물에 석탑 부재가 들어가 있거나 불교관련 문양이 새겨진 석재가 있는 경우 사찰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현풍향교는 대성전 기단에 불교 문양이 새겨진 석재가 들어 있어 절터로 추정된다.

보육 현실 점검·활성화 모색

불교사회복지연, 25일 세미나

(사)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혜총, 이하 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불교계 보육사업의 동향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원 제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보육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종사자와 복지계의 학자가 참여해 학문적 · 임상적으로 불교계 보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미옥 옥련유치원장의 '불교계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 1 연구발표에 이어 제2 연구발표로 김향숙 삼성어린이집 원장의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구' 제3 연구발표에 이은희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불교계 영아 전담 보육에 관한 연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지수 · 오심 등 다섯스님 양산경찰서 경승 위촉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경승을 새롭게 위촉하고 불교를 통한 교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위촉된 경승은 통도사 양산포교당 주지 지수스님을 비롯 혜등스님(내원사 주지) 오심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선오스님(통도사 박물관), 광우스님(통도사 강원 강사) 등 5명으로 매월 두 차례의 법회와 상담 등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 교양 교육을 위해 활동한다. 천미희 기자

불교대구교육원 이전 명칭 대구불교교육대로

15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불자교육의 산실 '불교대구교육원'이 불교대구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구불교교육대학'으로 명칭을 변경 새롭게 출범했다.

대구불교교육대학(학장 운성스님)은 15일 대구시 남구 명덕 네거리에 최근 개원한 불교대구회관 5층으로 이전하고 이전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박원구 기자



◇15일 밀양불교대학 입학식에서 전 표충사 주지 진철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불교교육불사 새바람…밀양불교대 첫 입학식

밀양 불교에 교육 불사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밀양불교대학은 조계종 종단인가를 받고, 15일 첫 입학식을 봉행했다.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밀양 홍제중 교감 하용식 교법사를 학장으로 운영되는 밀양불교대학은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선사상 등의 내용으로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천미희 기자

대구서 '저자거리 음악회' 지장선원, 개원 7돌 기념

대구 동구시장에서 불교음악회가 열린다.

대구 지장선원(주지 지공)은 28일 오후 5시부터 대구시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내에서 '저자거리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장선원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반야전통불교무용단의 불교무용, 심진스님의 찬불가요공연, 민요한마당, 즉석 노래방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장선원 주지 지공스님은 "저자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744-0150 박원구 기자

연등만들기 시연회 열어 삼광사, 신도 5백명 참석

16일,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은 봉축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며 연등을 만드는 신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스님, 간부, 각 신행 단체 소속 신도 5백 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등 만들기 시연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각 신행회 별로 둘러앉아 연등을 만들며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삼광사는 연등 만들기로 한껏 고조된 봉축 열기를 이어 24일 삼광사 봉축 음악제, 28일 삼광 효행상 시상 및 경로잔치를 비롯,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불우 시설 위문 등 부처님 오신 참뜻을 펴는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안국평화의 종·종각 기공 안국선원, 을지부대서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은 8일 동부전선 을지부대에서 안국평화의 종 및 종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제 4땅굴이 발견된 최전방 을지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안국 평화의 종 불사는 지난해 8월 이 부대를 위문 방문한 인연으로 시작되어 612관의 범종과 목조육각기와의 종각, 일주문 등 총 1억 3천 여 만원의 불사비용으로 통일의 염원을 담아 진행된다.

개토제에 이어 봉행된 이날 기공식에는 수불스님, 김진항 사단장을 비롯 군장병, 신도 등 1백 여명이 동참했다. 수불스님은 "평화의 종 건립 불사로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중생계에 자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완간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문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ㅡ男二女 관계인지 二男ㅡ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 시식 · 굿 ·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바인더차트 분개 매월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기존「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은 80만원에 본 책과 교환해 드립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CD ₩2,000,000
● 효사 육임강의록(증보上下권) ₩410,000
● 효사 육임비디오 ₩900,000 (28개)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를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독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고교생들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발우공양을 하며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한나무 한뿌리"

獨고교, 종교 체험 일환, 한마음선원 방문

행선, 다도시연후 스님과 대화 시간 가져

"불교 통해 영성 체험한 살아있는 순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독일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를 체험하는 정규 수업을 가져 화제다.

4월 11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Albert-Einstein Gymnasium)의 9학년 남녀 30명이 타종교 체험수업의 일환으로 독일중부 지역 뒤셀도르프(Duesseldorf) 인근 카르스트(Kaarst)에 소재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방문한 것.

화창한 봄날 아침 9시경, 스모린스키(Smolinski) 종교 선생님의 안내로 17세 가량의 눈 푸른 게르만 후예들이 생애 처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섰다.

지원장 혜진 스님의 설명으로 '신발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놓아 만물과 하나되는 '행선(行禪)'의 체험을 하게 하자, 30켤레 이상의 신발들이 놀랍게도 가지런히 놓여졌다.

다도 체험을 위해 마련된 법당에 연꽃 등이 밝혀지고 둥그런 원형으로 좌복을 놓고 좌선할 때의 앉는 법, 호흡법, 집중법 등을 몸과 마음으로 편안하게 익혀간다. 청소년들과 불교와의 만남은 은은히 울리는 타종소리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

1시간정도 묵언속에서 다도 시연이 이뤄진 후 자유로운 질문시간이 주어졌다. 차맛에 대해 선연한 느낌들을 조심스럽게 나눈 후, 이것 저것 알고 싶은 질문들을 활발하게 내놓는다.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아 성장하면서도 주말에는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독일의 십대들. 헤르만 헷세(Hermann Hesse)의 <싯다르타>를 읽었다는 아이들은 스님도 그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해 했다.

"불교에서는 신(Gott)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깨달음은 과연 누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영혼과 정신은 무엇인지요?"

영혼의 실체를 묻는 아이들의 잇단 질문에 혜진 스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유식학(唯識學)의 이론에 따라 설명한 후 되물었다. "서양인인 여러분과 동양인 스님, 즉 우리들의 실체는 서로 다른가요?" 라고 스님이 묻자, 학생들의 "우리들은 한나무의 한뿌리입니다."라는 한 목소리가 스님을 놀라게 한다. 이어서 과학적으로 내면을 더욱 참구하여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가자는 스님 말씀에 모두 활짝 미소를 짓는다.

2시간의 짧은 불교체험 행사가 끝나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종교담당 여 선생님은 "이론적인 불교를 통해 영성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 살아있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혜진 스님은 끝으로 이 시대 지구촌에서, 무력과 반목의 전쟁속에서 우리의 육근(六根)을 어떻게 들이고 내어 정토를 이뤄 갈 수 있는지 법문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귀한 불연(佛緣)이 맺어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낙도어린이 청소년에 포교장학금

허공장회·구인회, 총5백만원 전달

낙도 어린이 청소년 30명에게 포교장학금이 전달됐다.

낙도포교단체인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스님, 법주사 주지)와 구인회(회장 삼지스님)는 8일 안면도 안면암 큰법당에서 황은지 학생 등 초등생 15명, 유다롱 학생 등 중학생 10명, 김정호 학생 등 고교생 5명에게 총 500만원의 포교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허공장회 회원 100여명을 비롯 각 학교 교장 교감 및 인솔교사 10여명, 수혜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안면암 원주 설암스님 인사말, 낙도장학회 김무량화 회장 장학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허공장회는 2부 순서로 다과회를 마련 낙도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장학금 수혜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성장한 후 지역사회에 반드시 회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발원했다.

낙도포교 장학금은 낙도포교 전진기지로 안면암이 건립된 후 지난해부터 허공장회 김무량화 보살의 1억원 기탁, 구인회 스님들의 동참으로 매년 장학금 수혜자와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허공장회 지도법사 지명스님은 "낙도에 불서, 의약품, 재활용품, 장학금 전달을 통해 불교포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포 용화사, 지역문화포교 거점

무료영화, 강연회 등 행사 다양

"영화 보고 싶으면 용화사로 오세요."

경기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가 이 지역 문화포교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용화사는 5월 4일부터 한 달에 두 번, 무료 영화 감상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봄부터 가을까지, 저녁 7~9시 용화사를 찾으면 볼 수 있는 영화는 불교를 소재나 주제로 삼은 것들. 첫 테이프는 달라이 라마의 일대기를 담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쿤둔'이 끊을 예정이다. 무료 불교영화 상영을 기념해 '김포시민을 위한 현각 스님(베스트셀러 <만행>의 저자) 강연회'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용화사 신도 30여 명으로 구성된 남녀혼성합창단 발족식을 가졌고, 소규모지만 실내악단도 곧 결성된다.

주지 지관 스님은 "한강과 일산 신도시가 내려 보이는 용화사는 풍광이 좋아 주말이면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편"이라며 "지방에서는 아직도 불교를 어렵거나 딱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불교와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김제 성모암, 진목대사 다례제

"효정신 본받고, 보살행 실천"

김제 성모암(주지 종우)는 9일 법당에서 진묵대사 탄생 441주년을 기념, 진묵대사 어머님 다례제를 봉행했다. 전주 광명포교원 주지 종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성모암 회주 영월스님은 "진묵대사님의 효 정신을 본받고 실천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법어를 했다. 이 행사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우리 절 우리 신도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세보살

한성포교원 임현숙총무, 장정의 도감, 손금자 금강

문득 조용히 눈감아 봅니다. 어린 시절, 아주머니들 한 가운데는 쌀 씻을 때 쓰는 큰 양푼이가 있고, 찬밥과 된장국 몇 가지 종류의 나물들이 각양각색의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양푼이에 밥과 나물 고추장을 넣고 썩썩 비비기 시작합니다. 다 비빈 다음 아주머니들 머리를 맞대가며 연신 숟가락질을 합니다. 양푼이는 금새 바닥을 보이고 아주머니들 얼굴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찌그러진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죽 들이키면 아주머니들의 얼굴색 담 옆에 핀 다알리아 그것과 비슷합니다.

푸근한 이미지 절·집안일 구분없이 열심

포교원 개원때 불교 문외한 이젠 '세 기둥'



◇총무 임현숙 보살 ◇후원담당 장정의 보살 ◇사업담당 손금자 보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구요? 그것은 서울 면목동 한성포교원(주지 법농)에서 받은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지스님,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이웃집 아주머니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재가 상 짓지 않고 스스럼없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이 그렇게 하니 신도들도 절일 집안일 구분 없이 열심히 한답니다.

그 신도님들 중 특히 도드라져 보이는 세 사람 있습니다. 총무 임현숙(55, 진불성) 도감 장정의(55, 원만행) 금강 손금자(54, 연화심). 총무는 다른 절집 일과 비슷합니다. 도감은 장, 반찬 등 주로 후원에서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금강은 사업부라고 해서 수익사업에 노력하고 있죠.

세분 95년 포교원 개원할 때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이었답니다. 하루는 주지스님이 염주를 돌려보라고 했더니 옆 사람에게 '염주를 돌렸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랍니다. 하지만 절 일 열심히 하다보니 이제는 포교원의 세 기둥이 되었답니다.

동네친구사이인 세 친구 포교원과 주지스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니 청산유수입니다. 우리 스님은 어떻고 저떻고, 우리 포교원은 어떻고 저떻고. 자랑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포교원에 다니다보니 세례까지 받은 남편이 자신보다 더 열심히 불교공부 한다고 입에 침이 마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구요.

한성 포교원의 세보살, 참 보기드문 향내나는 분들입니다. 남동우 기자



추천의 말

법농스님 한성포교원 주지

신도들이 있어 큰사찰 앞부러워

포교원은 산중 사찰과 달리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각 소임을 맡은 불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절 살림 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절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내 포교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포교원은 일반 가정집에 비 오면 물새기도 하지만 이런 신도들 있어 어느 큰 사찰 부럽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절, 활기찬 인생!!

퇴행성관절염

글루코사민 프러스 샥카트리지®

GLUCOSAMIN Plus Shark Cartilage

신체의 연골성분이 부족해지면 관절대사가 약해집니다. 건강한 관절을 위해 관절에 좋은 영양섭취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 프러스 샥카트리지는 글루코사민과 상어연골(콘드로이틴 함유) 칼슘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 성분및 함량 1정당

글루코사민 500㎎, 상어연골(콘드로이친함유) 400㎎, 구연산칼슘 150㎎, 비타민 C75㎎ . 비타민 B, 비타민D, 아연, 망간

1일권장량(54~90kg)1일 3정 : 글루코사민 1500㎎ , 콘드로이틴 1200㎎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 A등급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23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업의사 450여명이 참석한 건강영양치료 연수강좌에서 "글루코사민 프러스 샥카트리지"는 효능이 우수한 제품(A등급)으로 선정 ,처방 추천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추천기념 특별판매



* 글루코사민 셋트판매 (4개월분)

글루코사민 삭카드리지 (180정) 2병

오메가 - 3 피쉬오일 (180정) 1병

특별판매가 : ~~320,000~~ → 250.000원

오메가-3는 소염진통효과가 있어 미국 관절염 협회에서 환자들에게 복용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에는 1정당(1.000㎎).EPA180㎎,DHA120㎎. DPA20㎎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의 효능 보도

- 조선일보 2003. 3.25
- 동아일보 2003. 3.25
- KBS 생노병사의 비밀 2003. 2. 4
- MBN 메디칼센타 2003. 3. 4
- 한국 경제 2003. 3. 20
- 스포츠서울 2003. 3. 6
- 식품음료신문 2001. 3. 5
- 연합뉴스 2000. 3.15

■ 전문사이트

- 대한 약사회 .건강상식
- 여약사 신문 , 건강포럼
- 서울대 가정 의학과
- 고려대 구로병원

소자본 딜러. 영업사원 모집중 가자 건강 www.BB21.com (02) 5454-010 입금즉시 배송 전국 1~2일

미국 대륙을 강타한 화제의 책!!

「관절염 치료된다」

The Arthritis Cure



한국어 번역판 "글루코사민과 관절염"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중단,완화,치료할수 있는 의학적 기적, 9단계 관절염 치료법을 소개한책

집사재 간

246쪽 8,000원

관절염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다. 이책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몇번이나 수술을 받아 보았지만 별효과가 없었다.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인 내가 내병을 못고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1년간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던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겠다고 결심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에 관한 임상결과가 눈에 띄었다. 2주 동안 섭취 후 훨씬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검사해보니 손상되었던 연골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나는 더욱 연구를 한후 환자 들에게 처방했다. 수백명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거나 증세가 크게 완화된것이다.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 더이상 고통받을 필요가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 했다.

- 저자 후문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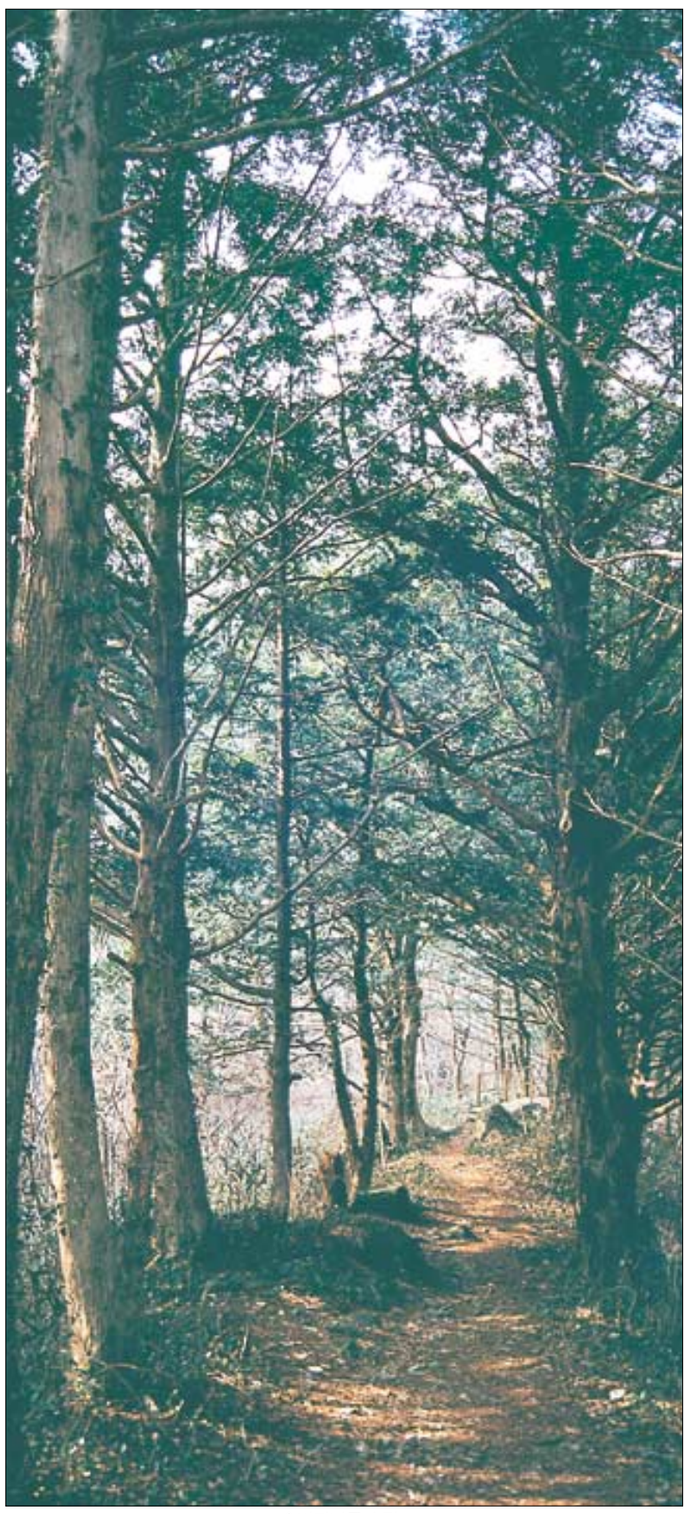
문의 02-969-8080 (등기우송)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 백암산 백양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비자나무 숲길.



◇백학봉과 염화실.



◇현호색



◇산자고



◇흰개미를 막기위해 주춧돌과 기둥사이에 놓은 소금.

두계곡 만난 곳에 핀 '한떨기 연꽃'

국내 최대 갈참나무 군락 장엄
절 뒤 야생차·비자나무 심어 산불 막아
주춧돌-기둥사이 소금 뿌려 흰개미 방어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을 지나 곰재(175미터)에 오르면 노령의 먼 산줄기와 장성호의 물빛이 푸르다.

들머리 약수마을은 백양사와 같은 동네다. 동(洞)이란, 물[水]을 함께[同] 먹고 사는 곳이다. 실제로 백양사 스님들과 약수마을 사람들은 백암산 골짝물을 함께 마시고 사는 동민(洞民)들이다. 사하촌은 이제 단순한 지리적 관계가 아니라 목숨줄이 서로 이어져 있는 생명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차장 옆 개울에는 청거북, 황소개구리, 비단잉어 등이 살고 있다. 산첩첩 물첩첩한 백양사 골짜기에 문제의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와 설치게 된 것은 곳곳에 보를 막아 개울을 연못화했기 때문이다. 산 높고 골 깊은 곳일수록 자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생명환경의 원칙이다.

안쪽 주차장에 이르면 노령산 줄기에 솟아오른 백암산의 한 자락이 내려와 있다. 그 자락에 깎아지른 백학봉이 웅자하다. 백학봉을 가운데 두고 왼쪽 계곡은 약사암-금강암-운문암이 자리하고, 오른쪽 계곡은 묘연암-천진암이 있다. 백양사는 그 쌍계곡이 만나는 자리에 핀 한 떨기 연꽃이다.

일광정 주변에 아름드리 갈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전국에 이렇게 크고 우람한 갈참나무 군락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높이는 무려 20미터를 웃돌고, 지름도 1미터에 이른다. 대해수(大解樹)라는 갈참나무의 별명을 비로소 실감케 해준다. 이 갈참나무들이 지금까지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백양사 덕분이다. 이 골짜기에 백양사가 없었더라면, 숲을 말리는 스님들이 없었더라면 벌써 화목(火木)으로 베어져 사라졌을 것이다.

늙은 참나무들을 보면 조선 5백년 억불의 역사가 눈앞을 가린다. 도토리와 상수리는 첫손에 꼽히던 구황식품이었고, 조정에서는 흉년을 대비해 해마다 전국의 승려들에게 도토리를 주워 관아에 바치도록 했다. 백양사 갈참나무도 그런 슬픈 역사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른쪽 산자락에는 연자주색 물감을 쏟은 듯이 현호색이 화려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현호색은 전국의 산과 들녘에 피는 여러해살이 꽃이다. 그늘이나 습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꽃이 작고 연약해서 거들떠보는 사람 적지만, 유치원 아이들처럼 볼수록 귀엽다.

백양사는 백제 무왕 때 여환선사가 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백암사(白巖寺)라고 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 천진암의 '백암선원'으로 남아있다. 백양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조선 선조 때의 일이다. 환양선사의 회상에 흰 양이 찾아와 법문을 듣고 간 후 '백양사'로 고쳤다는 전설이 있다.

범종루 앞에 찰피나무(염주나무) 한 그루가 정원수처럼 서 있다. 염화실 열린 문 안에 노란 수선화가 만발해 있다. 이 꽃은 천진암 화단에도 만발해 있는데, 모두 외래종 원예종이다.

백양사 우화루 옆에 늙은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다. 앵두는 한자로 '앵도(櫻桃)'라고 한다. 종묘에 제사 시물(時物)로 올라간 것을 보면 품작이 꽤나 높은 열매다. 백양사 앵두는 수령이 3백년이나 된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령 앵두나무일 것이다.

얼마 전에 연못가에 승방 하나를 새로 지었다. 습기를 가까이에 둔 목조건물은 흰개미가 쉽게 달려든다. 이를 막기 위해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소금을 놓았는데, 녹은 소금이 기둥에 알맞게 스며들었다. 이 또한 옛 사람들의 생태적 지혜가 아니겠는가.

극락보전 뒤 산자락에는 야생차-비자나무-참나무 등이 가로띠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굳이 야생차와 비자나무를 심은 까닭은 절집의 불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산불이 났을 때도 불이 경내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 말하자면 방화(防火) 울타리로 조성한 숲이다.

백양사 주변의 봄꽃으로는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 윤판나물, 개불알풀, 산자고, 구슬봉이, 머위꽃 등등이 눈에 띈다.

천연기념물 제153호인 백양사 비자숲은 고려 고종 때 각진국사가 처음 심었다고 한다. 각진은 보조지눌의 후계로, 불갑사의 천연기념물 참식나무와 상사화도 그의 손길에서 싹 텄다. 우리나라 비자숲은 절반 이상이 사찰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가 옛 수행자들이 마음 닦듯이 심고 가꾼 것들이다.

우리나라 비자숲의 절반 정도는 이곳 백양사를 비롯하여 고창 선운사, 화순 개천사, 나주 불회사, 고흥 금탑사 등등 사찰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스님들이 사부대중과 사하촌 사람들에게 구충제로 비자를 나눠주기 위해 심은 것들이 나중에 자연적으로 퍼져서 군락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암 골짜기 들머리에 청량원이 자리하고 있다. 청량원은 지고(至高)했던 역사와는 달리 어딘가 불안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준다. 문 앞의 전나무 두 그루는 모두 목이 잘려나가 안쓰럽고, 멋대가리 없는 시멘트 다리는 볼수록 흉물스럽다.

청량원을 개울 건너에 두고 등산로를 오르면 국기단(國祈壇)을 만난다. 먼 옛날 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영조실록>에 돌림병을 막기 위해 바위에 '國祭基'를 새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담장 옆의 키 큰 은행나무도 아마 그때 심은 듯하다.

서어나무는 극상림의 대표나무다. 보물 제662호인 대둔산 화암사의 우화루를 개축할 때 나온 불구(佛具)들이 서어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동안 사찰의 크고 작은 불구나 도구들을 이 나무로 만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영천굴 절벽에 붙어사는 부처손도 백척간두의 삶이긴 마찬가지다. 다른 식물들과 경쟁을 싫어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부처손의 생태는 토굴에 숨어사는 외톨박이 납자와 같다.

■ 교통 :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장성읍에 내리면 백양사행 군내버스가 30분마다 다닌다. 승용차로는 백양사 나들목으로 들어오면 10여분 거리다.

■ 사찰생태연구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templeeco

아! 큰스님

북한 만수대창작사 作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20세기 정신적 師表"

▶ 개막식
불기 2547(서기2003년). 4. 22(화) 오후2시
법련사 불일미술관(서울 사간동)

▶ 관람안내
• 전시기간 : 4월 22일(화) ~ 4월 28일(월)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 장 료 : 무료
※전시기간중 무휴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 후 원 :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핸드코리아



근세 100년 격동의 20세기를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살다간 한국의 큰스님 20분이 자수로 다시 우리곁에 오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20세기 고승 20분의 진영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의 전통 손자수로 한땀한땀 수놓아 창작한 "아! 큰스님-근세고승진영 자수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창작성과를 제시하고 불교문화의 새 장을 선보이게 될 이번 전시는 관람 그 자체만으로도 신심과 환희심을 내게해 포교에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행의 궤적이 담긴 큰스님들의 모습이 가는 명주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자수작품은 미술계에 획기적인 전통자수의 창작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는 인물로 본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20세기 근세 한국불교의 큰스님들은 질곡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 우리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온 정신적인 지주이셨습니다. 이들 큰스님들의 수행으로 점철된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대 큰스님들의 지혜과 유훈을 되새기며 본받고 기리는 것입니다.

한편, 예술에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공이 많이 들어 현대사회화 되면 될수록 명맥만을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만,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유일하게 번창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작품들은 그 자체로 전통 손자수라는 기법적 특성으로 국보급 현대불교미술품으로 평가받아 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법련사 불일미술관 교통안내 (02-733-5322)
지하철 안국역에서 하차 1번출구(풍문여고 방향)로 나오셔서 경복궁 방향으로 직진(경복궁 동문 맞은편 위치)

현대불교신문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www.buddhanews.com

복지부 인증받은 두 보살 '회향의 삶'

"시간을 왜 따져요? 은퇴없는 직업인걸…"



◇"어르신들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여요…." 조복행 보살이 정성스럽게 파김치를 잘라 반찬 접시에 담는다.

자원봉사.

봉사가 학점으로 계산되거나 처벌의 다른 형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요즘, 회향의 한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이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1년 자원봉사인증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자원봉사시간(4,200시간)을 기록한 조복행 보살과 이에 못지않은 1000시간 봉사시간을 달성한 정서옥 보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자원봉사인증제란?

200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자원봉사인증제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별 활동실적을 인증, 관리하고 인증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봉사자별로 봉사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기준이 넘은 사람에게 금배지(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은배지(5백시간), 녹색배지(2백시간)등을 지급하고, 자원봉사품앗이 제도를 도입해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는 실적 시간 내에서 타인으로부터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봉사실력 인증·관리, 원할 땐 서비스 되돌려 받아



◇"30년을 '봉사하는 직업' 간호사로 살아온 정서옥 씨. 이제 그는 '은퇴없는 직업'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원봉사왕 조복행 *보살*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무의탁노인 점심준비 10년째 봉사활동

"일손 도운것 뿐인데"… '봉사왕' 호칭 겸손

11일 점심시간을 앞 둔 서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식사 준비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잠시 한 눈 팔 새도 없이 콩나물을 무치고, 오이를 썰어 소박이를 만든다.

무의탁 노인 100여 명을 위한 점심식사. 메뉴는 된장국에 밥, 김치와 콩나물 등이건만,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은 이 한 끼의 식사가 너무 소중하다. 10여 명의 자원봉사자 보살들도 이런 노인들의 사정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고 싶다.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변하는 않는 게 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굳은 서원과 변함없는 조복행 보살(55·법명 원만성)의 정성. 조 보살은 이곳에서 10년 째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음식조리, 도시락 밑반찬 만들기, 시장 보기 등을 하는 중이다.

요새 조 보살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지난해 가을 자원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오래 했다고 신문 지면에도 몇 번 오르내렸고 2001년 자원봉사인증제가 시작된 이래로 주당 3일, 하루 평균 5~6시간씩 4200여 시간 동안 봉사해 '자원봉사왕'이란 호칭까지 얻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이곳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조 보살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하다. 94년 우연히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개원 소식을 알게 된 조 보살은 개원 법회에 참석했고 독거노인들을 돕자는 각현 스님의 법문에 감화를 받아 봉사활동을 한게 10년이다. "스님의 법문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아 법회에 참석하다보니 주방 일을 하게 된 거죠."

조 보살이 자원봉사에 눈을 뜬 것은 두 스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생활법문으로 봉사활동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은 젊은 조 보살이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을 법문으로 치유해 주었다.

조 보살은 아직 제대로 된 수행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겸손해 한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란다.

"선방에서 법복을 입고 수행하는 노인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마지막으로 갈 때는 저런 모습이었으면 해요."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봉사 1천 시간 정서옥 *간호사*

(은평노인복지관 진료실)

퇴직후 봉사하며 '귀중한 법' 만나

불자로서 배운것 베풀고 가는 삶 서원

11일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 진료실. 간호사 정서옥(66·법명 성불화) 씨가 벌써 6시간 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맥박과 혈압을 재고, 상처를 소독하고 처방한 약을 정리하는 일은 간호사 경력 30년의 그에겐 머리보다 손이 먼저 익힌 일이다.

1958년 육군병원 부설 간호학교를 졸업한 정 씨는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와 서울시립서대문병원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아이를 키우느라 잠시 휴직했던 때를 제외하곤 정 씨는 언제나 '간호사'로 살았다. 1998년 6월 정년 퇴임한 그는 일을 계속해 보라는 병원의 제의도 물리치고 인덕원의 치매노인보호소를 찾았다.

"평생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 씨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간호봉사활동이었다. 봉사활동은 기독교인이었던 그를 불자로 이끌기도 했다. 인덕원에서 '남은 생애에 꼭 알아야 할 귀중한 법'을 만난 정 씨는 삼천사에서 법명 '성불화'를 받았다.

매일 108배와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열던 정 씨는 1999년 문을 연 은평노인복지관 진료실을 맡게 되었다. 처방양식 만드는 일과 약 구입부터 시작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고생은 그에게 또 다른 보람이었다. 처음에는 "공짜 약인데 괜찮은거냐, 진짜 간호사냐"며 못미더워 하던 어르신들도 정 씨의 열성적인 활동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찾아오게 됐다.

벌써 5년째 어르신들 건강을 돌보고 있는 그이기에, 퇴근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쉽게 비우지 못한다. 단순히 약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식고민, 생계고민을 들어주는 말벗이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 2월 봉사활동 1000시간 인증도 그에겐 "금배지 하나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바로 봉사"라는 정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평생 배운 것을 베풀고 가는 불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봉사활동 외에 또 하나 정 씨가 욕심내는 것이 있다. 바로 동양화다. 매일 목요일이면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쓴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붓을 잡았다"는 정 씨는 자신이 입은 하얀 가운만큼이나 밝은 미소를 짓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禪으로 이끄는 스승의 간곡한 편지

도道는 말이 없으나 말이 아니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은 모양이 없으나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말이 곧 도이며, 모양이 곧 마음이다.



대혜종고 지음 · 김태환 해설 / 신국판 / 값 8,000원

『서장書狀』은
『대혜서大慧書』,『대혜서문大慧書問』 등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대혜종고(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禪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종고는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을 재고하고자는 목소리가높은 요즘이야말로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서장』공부를 통하여
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어야 할 것이다.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서장』의 장점

-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조사선이니 간화선이니 하는 말은 시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명칭일 뿐이고, 요컨대 선이란 곧 깨달음을 본질로 한다.「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고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문禪門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혜의 안목眼目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옳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피력된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릴레이 수행일기 〈下〉



이규동

(주)뉴월코리아 전무이사

광덕 스님께서 늘 법문 어두에 "불광 형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승속의 구분이 없이 대중 모두가 평등한, 대중이 주인인 법회와 법등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는 뜻이었다.

"아난다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법회·교육등 공동체적 수행 전법

남 위해 봉사 하는 것 가장 큰 기쁨

이것은 80세의 노 붓다가 열반 길에서 제자 아난다에게 하신 부촉이다. 이것이 '법등'의 연원이며 그 본래의 뜻이다.

법등을 삼는다는 것은 붓다의 담마(법)를 나 자신의 등불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붓다의 담마를 이 세간에 전파하는 일이다. 곧 법등은 스스로 법을 수행하고 이웃에게 전파하여, 함께 수행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을 광명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직장, 불교대학 등 어떤 조직이 법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도회나 교구조직 정도로 법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법등의 본의를 망각함이다. 법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 밝아지고 이웃도 밝혀서 나와 남이 다 같이 법의 주인이 되고 존엄한 인간 주체가 되어갈 때 함께 수행, 전법하는 대중들이 성스러운 불교도 공동체가 되고 법등이 되는 것이다.

'불광법회'는 이런 의미의 법등을 밝히고 법등을 확산하자는 것이지, 외형적 세력을 늘리고 대중을 조직 통제하고 세포화 하는 그런 류의 법등을 생각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 사람의 존엄한 주체성의 실현, 이것을 위한 법형제들의 공동체적 수행 전법, 이것이 법등의 생명이다. 불광 법등 형제들은 이런 공동체속에서 법회, 기도, 교육, 법등 활동, 수행, 호법, 전법, 봉사등 모든 일들을 같이 행해 나가고 있다.

30여 년전, 녹원(직지사 회주) 스님께서 내려주신 '우암(牛岩)'이라는 법명을 받고 소처럼 우직하고 바위처럼 변함없는 불국토의 머슴으로 살아야겠다는 원을 세웠다. 그후, 어떤 모임, 어떤 자리에서도 머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수행이다. 17년을 같이 살아온 공주같은 정신행 보살이 한동안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싫어했지만, 요즘은 가장 행복한 머슴과 하녀가 되어버렸다.

진실로 나의 머슴 생활은 봉사나 보살행,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내가 좋아서 할 뿐이다. 자리에 앉아 점잖빼는 것보다, 서서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더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내 가까운 도반에게만 들려주고싶은 나의 수행 원칙이 있다.

첫째, 자리를 가리지 말라.

둘째, 가급적 많은 스승을 찾아 다녀라.

세째, 가족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네째, 수행이 신나고 즐거워야 하며, 수행하는 나로 인해 주위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조화로운 일상생활에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수행이 아닐까 한다.

묻고 답하며 '반야' 체험



◇12일 부산 무심선원에서 김태완 선원장이 '선으로 읽는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무심선원의 선(禪)공부

경험 녹인 선어록 해설로 법 실상 드러내

공부과정 점검, 깨달음에 이르도록 안내

"이게 법입니다."

12일, 부산 남산동 무심선원(선원장 김태완)에서 '선(禪)으로 읽는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던 김태완 원장(46, 부산대 철학과 교수)이 손가락을 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곧 이어 똑 같이 손가락을 펴 보이며 김 교수가 한 말이다.

같은 손가락을 펴 보이며 '법'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그림자'라고 앞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김 원장의 말에는 법, 즉 깨달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 문득 실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보이는 것 모두가 실상이지만, 그 이전에는 전적으로 그림자만을 본다는 설명이다. 즉, 반야니 법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득 실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보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김 원장은 거듭 강조한다.

김 원장은 선(禪) 공부를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 자주 비유하곤 한다. "스스로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인식하면 그 다음은 그 화살을 뽑겠다는 간절한 한 생각뿐입니다. 화살을 뽑겠다는 한 생각, 악몽에서 깨어나겠다는 간절한 바람, 즉 반야에 대한 목마름이 공부의 출발입니다."

무심선원은 단순히 경전을 읽고 뜻을 풀이하는 공부모임이 아니다. 경전을 방편 삼아 법을 설하는 모임이다.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고, 바른 견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선 공부를 지도해 주고 있다.

이것은 발심(發心), 참문(參問), 참구(參究), 감변(勘辨)과 인가(印可)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델이다. 선을 공부하여 마음을 깨닫겠다는 발심을 끌어내고, 발심자들이 묻는 법에 대한 응답으로 깨달음의 인연을 성숙시키거나 의문을 증폭시켜 스스로 참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참구의 결과에 대해 또 다시 질의응답으로 학인의 공부정도를 판단하고 점검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

김 원장 자신의 수행 체험을 토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설해지고 있는 설법을 청문(請問)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공부모임이나 사찰을 두루 거친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참자들은 한결같이 김 원장의 설법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잡하던 머리 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공부모임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는 강보영(27 · 부산대대학원 철학과)씨는 "공부 이후 안정을 찾았다"며 "일상에서 외부적 경계, 조건에 끄달림이 덜하니까 이리저리 헤매던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치상의 이해를 넘어 실 체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무심선원의 설법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열린다. 홈페이지(www.mindfree.net)나 통신회원으로 공부 지도를 받고 있는 전국의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051)515-7226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재 나를 놔 버리고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현재의 나를 다 놔버리고 조건 없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면,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올 것이라는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반야를 직접 체험하도록 다양한 방편을 설하는 겁니다."

김태완 교수(46, 부산대 철학과)는 2001년 8월 개원한 무심선원의 선원장을 맡아 선 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었던 김 교수의 글을 읽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부산대 강의실에서 공부모임이 시작된 재작년 12월부터 김 교수는 최소한의 학교 강의를 제외하곤 모든 시간을 공부 지도에 쏟아붓고 있다.

철학을 전공하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선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김 교수는 하숙집 주인이면서 30여 년간 법을 설하고 있는 스승을 통해 그렇게도 목말라하던 '오직 하나'를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후 김태완 교수는 시험삼아 화두를 해보기도 하고 각종 선어록을 읽으며 스스로 맛본 것과 선인들의 체험을 비교, 동일한 체험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러한 경험들이 녹아 있는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서장(書狀) 공부〉라는 책을 펴냈고, 체험이 살아 있는 선어록을 되살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

수행 캘린더

■'깨달음' 주제 순회법회=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8개 시에서 '깨달음의 법문'을 주제로 전국순회 법회를 연다. △4월 28일 오전 11시 울산정토회, 오후 7시30분 마산정토법당 △29일 오전 11시 및 오후 7시30분 부산정토법당 △30일 서울정토법당 △5월 1일 오전 11시 청주정토법당, 오후 7시30분 대전정토법당 △2일 오전 11시 광주정토법당, 오후 7시30분 대구정토법당. (02)587-8993

■마조록 강설=우곡 서울선원(www.zenkorea.org)은 매주 월요일 오후 8~10시 해월 법사의 강의로 마조록 강설법회를 연다. (02)529-5027

■'깨달음의 길' 수련=명상아카데미(www.bodhitao.com)는 4월 27일(일) 저녁 7시~ 5월 2일(금) 오후 3시 오대산 수행처에서 5박6일간의 '깨달음의 길' 정규수련을 갖는다. 5월 5~9일, 5월 25~30일에도 같은 수련회가 열린다. (02)598-7180

■백련암 아비라기도=해인사 백련암(www.songchol.net)은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일(음력 4월 15일) 12시까지 3박4일간 아비라기도를 한다. (055)932-7300

■봄 정진법회=서울 현정선원(www.fuoyee.or.kr)은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3시30분 봄 정진법회를 연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둘 넷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02)582-9371

■보림선원 정기수련=보림회(www.borim.co.kr)는 26일 저녁 8시~27일 오후 1시 경남 산청 보림선원에서 정기 총회 및 수련회를 연다. (055)972-9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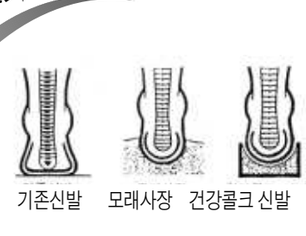
■천수다라니 10만독=광주 자비신행회(www.jabee.or.kr)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매월 지장재일(음 18일) 대원사 천불전에서 천수다라니 10만독 기도법회를 각각 연다. (062)234-2732

■보현십행 강의=경기불교문화원은 25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엄경(보현십행) 강좌를 연다. 강사는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묘주스님. (031)251-1083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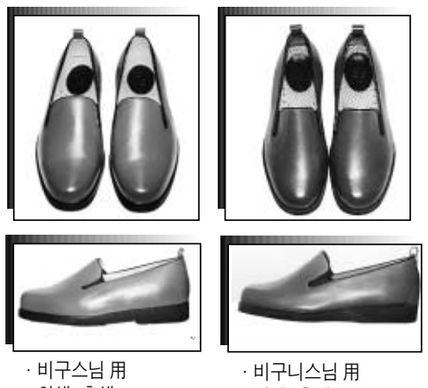
권行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 신발 - 권行 만行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 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자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권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742-0297 권行합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 1동 661번지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자비의술 펼치는 약사여래들

바라밀현장

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중 하나인 경북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3일 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가 선산읍 예산초등학교 교사에 마련한 임시 진료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료진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지역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서 맵고 짠 음식과 커피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돼요. 계속 그렇게 드시다가는 큰일납니다. 제 말 잘 알아들으셨죠? 할아버지는 건강하셔서 음식만 조심하시면 아마 10년도 더 사실 수 있어요."

평소 눈이 침침하고 아팠던 조화재(75) 할아버지가 예산초등학교에서 무료 진료를 받기위해 찾아왔다가, 덩달아 받은 내과검진에서 김명재 교수(경희의료원)에게 음식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었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기에 병원 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이윤옥(63)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료 의사의 두 손을 꼭 잡는다.

이날 의료봉사에 나선 병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은 노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정에서 스스로 병을 돌아볼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줘 환자들에게 친절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루 전 구미 영명사에서 참선, 108대참회 등 철야정진 수련법회를 가진 병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진료에 몰두했다. 의료 봉사는 내과, 안과, 치과, 한방과 등 기본적인 진료 외에도 심전도, 임상병리, 초음파 검사까지 이뤄져 거의 하나의 종합병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 검진이 이뤄졌다.

서울에서 부모님을 따라온 초등학생 고사리손들의 안내봉사도 일사분란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성영모(13, 증산초교), 성예선(10, 증산초교), 조형빈(13, 중곡초교), 양규범(9, 수락초교) 등 네 명의 아이들은 걷기 힘든 할머니들은 부축도 하고,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는 직접 손을 이끌고 진료소까지 안내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자 어르신들은 이들 아이들이 대견스러워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였다.



◇13일 선산 예산초등학교에서 경희의료원 김재명 교수가 선산읍민을 대상으로 안과진료를 하고 있다.

기본 진료 외 초음파까지 종합병원 못지않아
초등학생 안내봉사에 어르신들 눈물 글썽

성영모 씨는 "아이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싶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같이 온다"고 말했다.

병원불자연합회 임종승 총무는 "농촌의 노인들은 거동이 힘들어 어디가 심하게 아프기 전에는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지마을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해 6회 째를 맞은 병원불자연합회의 의료봉사는 국립서울병원, 국립경찰병원, 경희의료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구미순천향병원 등의 불자회 의사와 간호사 6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와 처방을 한 지역 주민은 200여명에 달했다. 구미=박원구 기자



병원 불자연합회 **김주효** 회장

이웃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과 함께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보살정신을 따라 바라밀행을 닦고 있습니다."

병원불자연합회 김주효 회장(57,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은 "우리가 가진 의술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시행"이라며 "매년 봄, 가을 두차례 진행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정례화 하여 보다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6차 봉사부터는 사찰에서 수련대회를 봉행하고 다음날 의료봉사를 갖게 되었다며, 회원들의 호응도 좋아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수련대회와 의료봉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효 회장은 "병원불자연합회가 체계적인 신행과 환자 포교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며 "의료봉사활동이 자비사상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心 마음비추기

조작하는 마음 버리고 이대로

옛날 중국에 한 노인이 있었다. 어찌나 수염이 근엄하고 우아한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다. 그 노인의 수염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마침내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그 노인을 불렀다. 그리고는 나도 그대처럼 훌륭한 수염을 소유하고 싶으니 수염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왕에게 말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한번도 수염을 기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 본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저 살다보니 어느덧 이렇게 수염이 스스로 자라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렇다면 잠잘 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고 자는지, 아니면 이불 밖에다 내놓고 자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역시 왕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잠잘 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잤는지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왕에게 "제가 오늘 밤 잠을 자면서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자는지를 확인한 후 알려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밤이 되어 노인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턱을 수염과 함께 이불 밖으로 내놓았다. 노인은 턱이 시렵고 허전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이불 속으로 들여왔다. 답답하고 성가셨다. 이번에는 옆으로 자보았다. 거북하고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인은 수염을 어떻게 할지 몰라 몸을 뒤척이며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노인은 크게 탄식하였다. 수염이 구겨지고 망가진 모습들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행하는 인위적인 조작이 오히려 순수한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다. 잘 해보겠다고 뜯어 고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더욱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수가 허다하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수행이란 짓고 부수는 마음을 그치고 바른대로 생각하고 바른대로 말하고 바른대로 행동하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못 하려고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가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쉬는 것이다.

지금 부족함 없이 작용하고 있는 당체를 깨닫기만 하면 아무일이 없는데도, 여러가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만 상(相)을 따라 업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애나 메이시 (下)

세상·나, 하나란 '시스템이론' 제창

"생명과학을 통해 드러난 시스템이론은 인류의 오래된 가르침들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즉 지구는 살아있으며, 마음은 없는 곳이 없으며, 모든 생명체가 이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념들을 변화시켜 소중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믿음을 준다." ('살아있는 시스템(Living Systems)' 중)

연기론을 강조하는 메이시의 '일반시스템이론(Genneral Systems Theory)'은 세상을 나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것이 인드라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이 아프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 때 세상을 내 몸처럼, 내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모든 존재로 향할 때 숲속의 나무를 지키려고 전기톱에 맞서 나무에 몸을 묶을 수 있으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그린피스(국제적인 환경단체)의 보살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의 자아는 점점 녹색 자아가 되어간다"고 표현했다.

메이시의 시스템이론의 통찰로부터 지구에 대한 우리의 관념마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정의한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이 대표적이다. '가이아'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구를 뜻한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J.러브록이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를 통해 주장한 이 이론에 따르면,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현재 이 이론은 인류의 생존과 직면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애나 메이시는 시스템이론을 토대로 핵위기 시대의 심리학적 정신적 문제들, 생태론적 각성, 불교와 현대과학의 결과론적 공명(共鳴) 등을 주제로 광범위한 연구와 강연활동을 펼쳐왔다. 그의 그룹 연구는 정신적 각성과 사회적 변화의 상호관계에 주목한 것이었다. 치료 기법을 사용한 그의 연구는 사람들의 절망과 무관심을 변화시키고 지배적인 사회적, 생태적 위기들을 건설적, 협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수 만명의 사람들이 그의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그의 방법론은 교육, 노동 현장, 풀뿌리 민주주의 등 인접주제의 포럼에서도 채택되어 사용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불교생태론자인 메이시는 특히 핵물질로 인한 피해지역을 찾아다니면


◇조애나 메이시

서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고, 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반핵운동을 벌여왔다. 인류의 공멸을 가져오는 대량 살상무기의 재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모든 생명체의 적은 인간의 '힘'임을 절감했다. 세상을 파괴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이 힘은 인류가 공통으로 처한 난국과 현대과학의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만인의 힘'이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두 얼굴을 한 이 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질문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갖춰진 내면의 답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메이시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연구는 긍정적 행동에 도움, 각종 포럼서 채택
공멸 간접체험 해결 위해 내면의 답 끌어내야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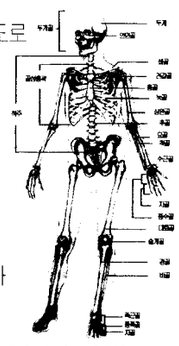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시간만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놀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특별보시!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 21. 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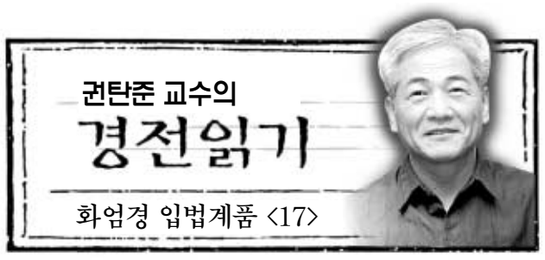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문수보살의 가르침과 믿음

선재동자 문수보살 교화로 진리에 눈 떠
믿음 있어야 여래의 경지에 이를수 있어

선재동자는 그가 만난 첫 번째 선지식인 문수보살에 의해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뜬다. 그리하여 발심을 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권유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구도자인 보살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올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화엄경의 주석가(注釋家)들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교화에 의해 보살도의 최초의 수행과정인 '믿음의 경지[信位]'를 확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화엄경이 보살도의 토대가 되는 믿음을 문수보살에 의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뵙고 비로소 발심하였다고 하는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재동자는 결코 발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발심은 우선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문수보살과 관련해서 설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수보살은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는 장애 없는 빛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에서 진실을 밝히는 기능을 하여, 세계의 참모습[實相]을 밝히고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은 바로 지혜의 광명으로서 중생을 깨닫게 해서 그곳에 깨끗한 믿음을 생기게 한다. 문수보살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지(大智)문수보살이라 불린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용맹스럽게 진실을 밝혀서 중생의 무명을 없애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진실된 것으로서 진실에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종교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성립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대개 초자연적인 능력 · 기적 등과 관련을 가지거나 신성(神聖)하다고 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된 것, 올바른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 진실하고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고, 그 도리를 따름으로 해서 밝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다.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뛰어난 이해력이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된다. 마음이 맑음으로 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진실이야말로 인간생존의 진정한 귀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망령되게 믿는다고 하는 그릇된 믿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불을 지향해 나아가는 수행을 완성해서 여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선행도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화엄경 현수보살품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일체의 모든 선법(善法)을 길이 양육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욕에서 벗어나게 하며,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 믿음은 혼탁한 때가 없어 마음이 청정하며, 교만함을 없애주고 공경받는 근본이 되며, 또한 진리의 창고에 제일의 재물이 되며, 청정한 손이 되어 여러 행을 받는다. 믿음은 능히 은혜롭게 베풀어 인색하지 않고, 믿음은 환희하여 불법(佛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 공덕을 자라게 하며, 믿음은 여래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믿음은 모든 감각기관을 깨끗하고 밝게 하며, 믿음은 견고하여서 파괴할 수 없으며, 믿음은 번뇌의 근본을 길이 멸하며, 믿음은 부처님 공덕으로 향하게 한다. 믿음은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환난을 멀리 여의어서 어려움이 없으며, 믿음은 능히 여러 마군의 길을 뛰어넘어 위없는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인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가 되며, 믿음은 보리(菩提) 나무를 생장시키며, 믿음은 가장 훌륭한 지혜를 더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일체 부처님을 나타내 보인다.

이 내용은 깨끗한 믿음의 공덕이 광대함을 설한 것이다. 믿음은 진실로 불도(佛道)의 근본으로서 무한한 공덕을 낳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덕에는 보살들의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보살도를 전개하게 하여 여래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의 구도의 삶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피어나온 참 생명의 새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⑫

돈교에 대한 징관의 입장(1)

법장의 오교판에서 돈교에 자기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돈교를 부정하고 비판한 혜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이는 고려 화엄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징관(738-839)이다.

징관은 '돈교란 단순하게 말 떠남이 아니라, 이치를 단박에 표현하기 때문에' 돈교라고 말한다. 징관에 의하면 대상과 언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돈교는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이치를 가진다는 의미다.

여기서 징관이 말하는 '이치를 단박에 드러냄(頓詮此理)'은 혜원이 말한 '표현을 잊고 이치를 드러냄(亡詮顯理)'과는 언어적인 어법이 다르다. 징관이 '단박에 드러냄(頓詮)'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혜원은 '표현을 잊음(亡詮)'이라고 했다. 여기서 '표현', '드러냄'으로 번역된 전(詮)이란 용어는 같지만, 전자는 긍정적인 표현이 강조되고 후자는 부정적인 표현이 강조된 것이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치를 말로 단박 드러냄'과 '말을 잊어 이치를 드러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징관과 혜원이 돈교라는 개념과 그 언어관에서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징관은 돈교를 어떤 양식에 의해서 그 이치는 드러낼 수 있다고 이해한 반면에, 혜원은 돈교를 말 떠남의 이치로서 말을 떠난 관계로 교설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박에 드러나는 이성·이치 존재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교에 해당되는 이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돈교의 이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징관은 돈교의 이치가 있고, 그것을 단박에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관은 화엄경을 주석한 그의 <연의초(演義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박(頓)에 이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돈교라고 한다. 표현의 대상이 바로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이치를 설하니, 이것이 어찌 교설(能詮)이 아닌가? 무릇 교설의 가르침은 모두 그 대상을 따라서 세운 것이다. 만약 삼승(三乘)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곧 점차의 가르침(漸敎)이요, 만약 사사무애를 표현한다면 이것은 곧 화엄의 원교이다. 어찌 대상이 바로 이성임을 가지고서 교설의 가르침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징관이 하는 말은 분명하다. 언어에 의해서 단박에 드러나는 이성 혹은 이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돈교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오교판 가운데서 아비담마 불교와 대승의 유식과 여래장 사상은 점교로서 분명하게 삼승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일승화엄의 원교는 사사무애법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징관은 돈교를 단박에 드러나는 이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징관은 '돈교의 이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돈교의 이치를 이성이라고 하지만, 분명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징관은 점차 깨닫는 점교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의 원교와 구별되는 단박 깨닫는 돈교의 이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성격'의 이치이고, 그것을 단박에 표현하기 때문에 돈교라고 이름한다면, 여기에는 말할 수 없음과 이치를 설함과는 서로 모순이 있다는 혜원의 지적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혜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다만 '설법의 양식'에 불과하지, 교설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四大

불교 경전에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이라 하여 4대(四大)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지, 수, 화, 풍'을 그냥 '땅, 물, 불, 바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땅과 같이 견고한 성질을 갖는 어떤 것, 물과 같이 유동성의 성질을 갖는 어떤 것, 불과 같이 태우는 성질을 갖는 어떤 것, 바람과 같이 통기의 성질을 갖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김용정 교수는 <과학과 불교>라는 책에서 '전자, 중성자, 양성자, 광자'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마음 요전>에 의하면 삼천 대천 세계는 공(空)이라는 하나된 차원에서부터 4대(광력, 통신력, 자력, 전력)가 만들어지고 이 4대로부터 삼계(三界)

이진법 풀이로 4대 본래의 뜻 추측
우주는 마음(心)을 근본으로 형성

즉, 물질계, 에너지계 및 정신계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물질계의 가장 근본도 공이요, 에너지계의 가장 근본도 공이다. 정신계의 가장 근본도 공이며, 여하튼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화엄경>에도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 하여,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 모든 것속에 하나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의상도 <법성게>에서 "하나 중에 일체가 있고 일체 중에 하나가 있으며(一中一切 多中一),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다(一卽一切 多卽一)"고 말한다.

그래서 필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개념과 연관하여 '지, 수, 화, 풍'의 뜻을 풀이해 보고자 한다. 일체유심조란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심(心)으로부터 기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이 모이고 모여서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시간을 거치면서 수없이 가지치기를 한 것이 오늘날 우리 우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진법을 사용하여 풀이해 보겠다.

심은 0(零)과도 같은 뜻이므로 심을 0이라 가정하고 출발하겠다. 심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것은 陰心(00)과 陽心(01)이 될 것이다. 음심과 양심은 서로 혼합하여 음음심(000)과 음양심(001), 양음심(010), 양양심(011)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음음심(000)과 음양심(001), 양음심(010), 양양심(011) 등 4가지가 지, 수, 화, 풍이라는 4대의 본래의 뜻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다. 그러므로 이 4대는 분화의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 중성자, 양성자, 광자'보다 더 원초적인 질료가 아닌가 생각되며 '땅, 물, 불, 바람'이란 뜻은 더 더욱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지(000), 수(001), 화(010), 풍(011)이라는 4대가 다시 서로 분화하여 8가지 종류의 존재가 생기고 여기서 다시 16가지 종류의 존재가 탄생한다. 이와 같이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무한하게 가지를 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속에는 항상 0(零), 즉 심(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도 우주의 한 존재이므로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 · 문병성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가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개월만 음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 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음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이내 배송. 계좌번호(예금주 : 김헌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알린크 / 홈페이지 : http://www.knr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

미얀마 남방 수련법회 및 남방 수계, 보살계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와 성지순례-

※ 황금 불탑의 성지 미얀마로 신심깊은 불자님을 모십니다

행사내용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참여불자님 모두)
▶ 남방수계, 보살계(수계증서 및 수료증)
▶ 위빠싸나 수행 체험 및 강좌
▶ 탁발체험 및 1日 1종식 체험
▶ 미얀마 성지순례(양곤, 파간, 만달레이, 삔띠야 등)

행사기간 2003.6. 6 - 6. 16 (10박 11일)
참여준비물 사진(반명함) 6매, 여권
참여인원 선착순 36명

주 관 AUNG MYAY THAR SI Temple, MYANMAR PIDAYA Temple, MYANMAR
주 최 양곤 AUNG MYAY THAR SI Temple, 만달레이 PINDAYA Temple

한국총관 사 자 암
문의 및 상담안내 033)647-3412, 011-9795-3411 / FAX 033)647-3412

성지순례지

양 곤 (쉐다곤파고다, 마하위지하파고다, 차욱탓지파고다, 보타다응파고다, 아우미따지사원, 까바에파고다)
파 간 (쉐다곤파고다, 아난다파고다, 탓비인뉴파고다, 따미양지파고다)
만달레이 (짜욱토지파고다, 구도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언덕)
삔띠야 (신고운 따운 사원, 삔띠야 동굴)
만달레이 묘 (꼬울롱 사원)

※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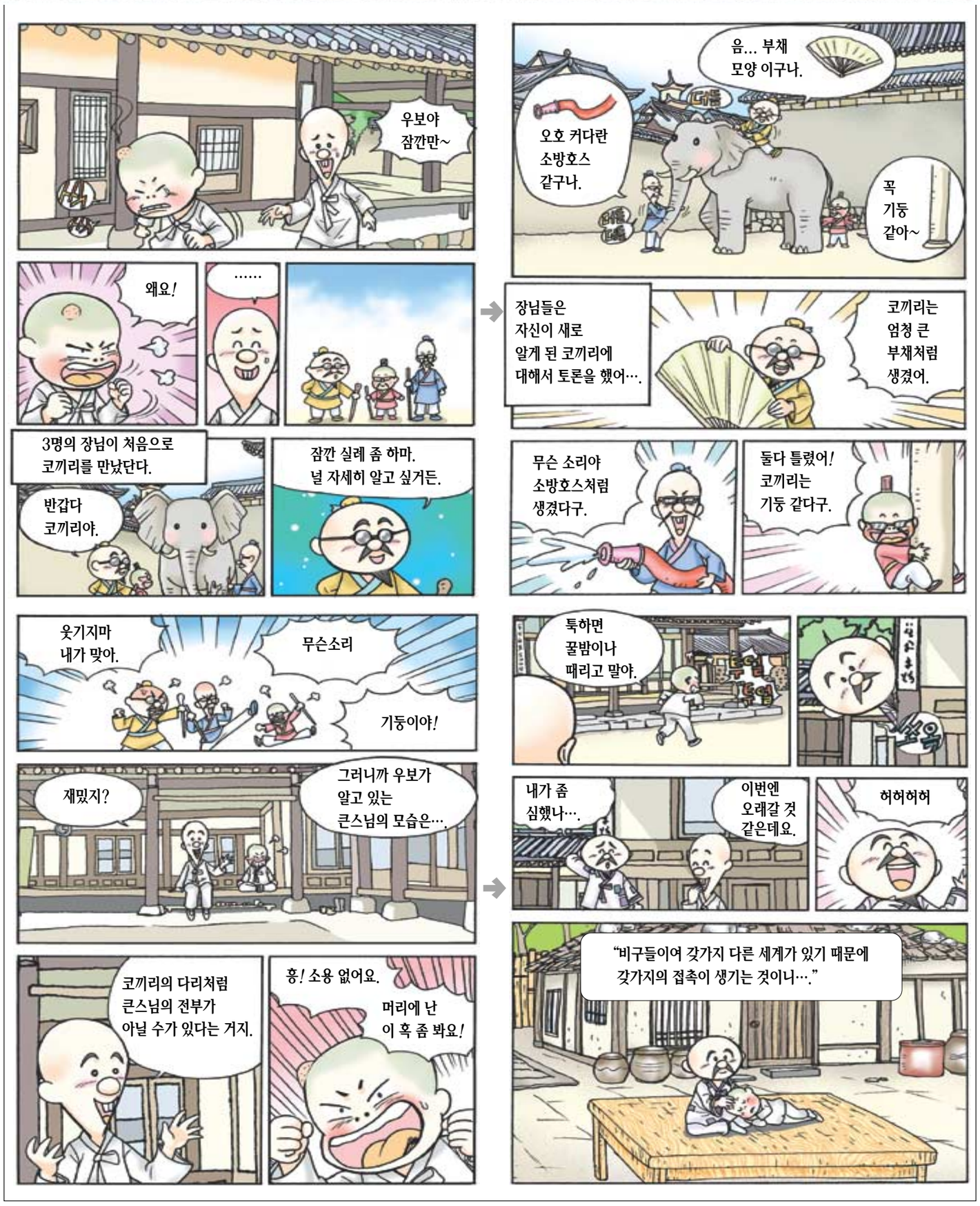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3437-8282 ◑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6화)

"접촉은 주·객의 상대성"

〈출전 : 상응부경전 14.2〉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의심과 살인

"소문에 끌려 다니지 말라"

지난 해에 일어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최근 붙잡혔다. 그 사람들이 자백했다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위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어느 장모가 납치와 살해를 지시했다고 한다. 선재는 불륜이 의심된다고 사람을 해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피해자와 사위의 관계가 이종사촌이라는 사실에, 또 장모가 살해를 지시한 사람이 그 조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의심의 고리가 여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셈이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 경전의 <까말라숫타>에서 "의심이란 의심스러운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소문이나 전래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성전(聖典)의 권위든 단순한 논리나 추론이든 그에 끌려 다니지 말라. 그럴 듯한 겉모습이나 공허한 논리의 기쁨에도 현혹되지 말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니라."며 잘못된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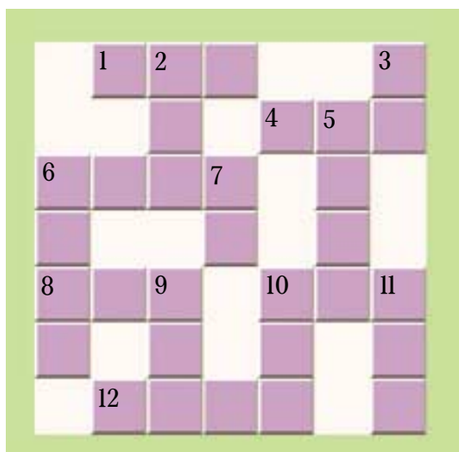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을 따르는 것인 만큼 이제 의심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다. 선재가 보기에 잘못된 생각이 빚어내는 위험을 가장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은 노끈과 뱀의 비유이다.

<섭대승론>에는 유명한 뱀, 노끈, 삼의 비유가 나온다. 어두운 밤에 길가의 노끈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노끈인 줄 알아서 안심하고, 다시 생각하니 사실 노끈이란 것도 실체가 아니라 그 자체는 삼[麻]이라고 안다는 내용이다. 뱀으로 잘못 아는 것을 유식학에서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비유로 들고 있다. 번뇌나 망상 때문에 잘못 보았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들은 노끈을 뱀으로 잘못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뱀을 죽여버린 꼴이다. 뱀인 줄 알고 휘두른 칼에 노끈이 떨어진 경우라면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뱉는 안도의 한숨뿐이겠지만, 불륜이라는 의심덩어리에 사로잡힌 오늘 이 땅의 중생이 휘두른 공기총에 떨어진 것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미래이고 가족의 붕괴이며, 남의 생명을 앗아간 업보뿐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여래10호 가운데 하나로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라는 뜻. 4. 삼독.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 6.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설하며 기도하는 호국법회.(金經法席) 8. 생전에 미리 7*7일의 불사를 닦고 사후의 명복을 빌어 조립한 탑.(逆手塔) 10. 경론(經論)의 주석에 있어서, 정통한 해석 이외에 인용할 수 있는 방계적(傍系的) 해석을 말함.(容有釋)
12. 이조말 범해스님이 저술한 서적으로 역대의 유명한 승려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東師列傳)

〈417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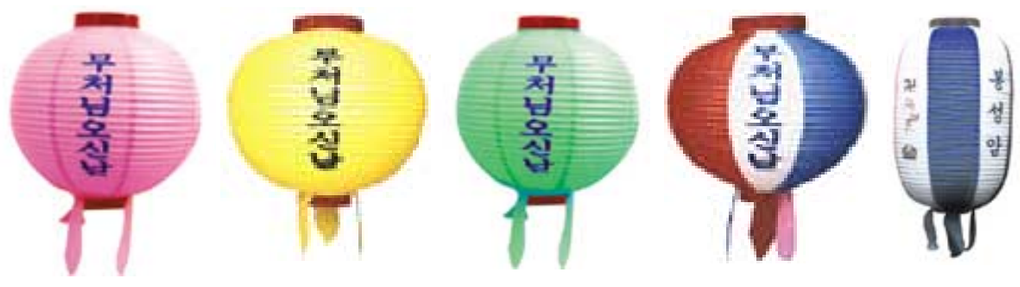
2. 인연의 도리, 연기와 같은 뜻. 3. 진리에 대한 무지 또는 마음이 어두워서 일체의 도리에 통하는 지혜가 없는 모습. (愚癡) 5. 공(空)과 유(有)에 치우치는 편공편유(偏空偏有)와는 달리 공(空)에도 유(有)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함.(眞空妙有) 6. 금강저(金剛杵)를 손에 쥐고 불법을 지키는 신. 7. 불상을 모시는 돌로 만든 감실(龕室). 9. 가사를 입는 것.(袈裟) 10. 미륵보살의 상을 안치하고 있는 당(堂)으로 미륵전이라고도 함. 11. 경주 토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로 불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로 손꼽히고 있음.

온 누리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소서

사월초파일 연등, 행사용품은 마하몰 에서 주문하세요!!

만 월 등

크 기 : 32cm× 32cm / 1Box : 100개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색상 : 황금, 진분홍, 연분홍, 빨강, 영가(흰색)



● 공단등(大) : 지름 23cm ● 1Box : 18개
● 공단등 (中) : 지름 18cm ● 1Box : 30개
● 공단등 (小) : 지름 15cm ● 1Box : 60개

육각등

팔모조립등



● 크기 : 26cm × 26cm ● 1Box : 100개
● 색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팔모주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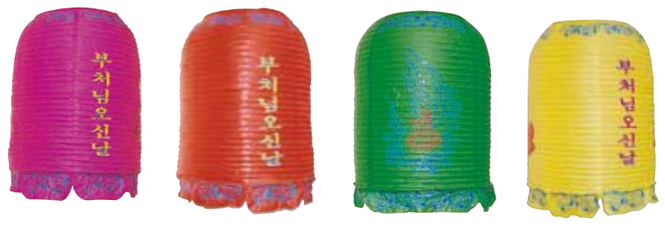


● 크기 : 26cm × 26cm ● 1Box : 60개(색상별 20개)
● 색상 : 핑크, 오렌지, 연두



주름등 보관상태

종 등



크기 : 40cm × 27cm / 1Box : 15개

불교문화상품전문쇼핑몰 마 하 몰 주문전화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신간 불교만화

엄마로 오신 관세음보살님

'오세암 1·2권'

원작 정채봉 / 그림 유병윤

파랑새어린이 / 8천원



동화작가 故 정채봉 선생의 원작을 만화로 새롭게 구성한 <오세암>이 나왔다.

엄마를 찾기 위해 앞 못 보는 누나 감이와 길을 나선 길손이는 설정 스님을 만나 겨울 한 철 암자에서 '마음의 눈을 뜨는 공부'를 하기로 한다. 설정 스님이 마을로 내려가 길손이 혼자 암자에 남은 어느 밤. 한바탕 폭설로 스님은 암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 잠든 길손이는 자신을 품에 안고 토닥거려주는 손길을 느낀다.

영어 · 한자 · 퍼즐 선보여

'불교만화이야기 5'

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



격월간 불교만화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제 5권>이 나왔다. 이번호 부터는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어, 한자로 배우는 불교'와 불화 '팔상성도'를 이용한 '틀린 그림찾기'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한 페이지짜리 카툰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배종훈의 불교카툰'과 퍼즐 '도전해보세요'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 1월 열린 '제2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행사 소식과 수상작 두 편도 실려 있다.

부처님 생애 등 25편 실려

'만화로 배우는 부처님 지혜'

글·그림 / 강병호

화남 / 8천원



'소년한국일보'와 '열린지평' 등에 작품을 연재중인 중견만화가 강병호 씨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만화로 배우는 부처님의 지혜>를 펴냈다. 첫 장을 펼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가 12장의 그림에 담겨 있다. 1부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에는 '살찐 바사익왕', '가슴 속에 든 불법' 같은 불교 설화를 비롯해 '아들에게 절한 황희 정승', '맹모삼천' 과 같은 교훈적인 만화 등 총 25편이 있다.

2부 '이야기 사랑방'은 강아지 '발바리'가 해설자로 등장해 여러 설화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큰스님들의 일화 '가슴 뭉클'
옛절의 숨겨진 멋 '흥미진진'

'산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봉규 지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 / 8천5백원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감동적인 일화, 아홉분의 큰 스님과 나눈 대담, 서울과 수도권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감춰져 있는 유서깊은 사찰을 찾아가는 기행문이 하나둘씩 모여 세상에 나온 것이 동화작가 우봉규 씨의 <산문(山門), 그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책에는 경허, 정수, 진묵, 청담, 서옹, 탄허, 성철, 금오, 동산, 고암 스님 등 선지식들의 일화가 옛날 이야기처럼 잔잔하게 소개돼 있다. 특히 일화가 길어야 두 세장을 넘지 않아 책장이 금방금방 넘어간다. 그렇다고 가십거리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일화속에 녹아 있는 교훈적 가르침은 읽는 재미를 쏠쏠하게 해준다.

첫 장에 등장하는 경허 스님의 일화는 가슴 뭉클하다. 한겨울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천장사(天藏寺)에 몸전체가 피고름으로 만신창이가 된 거지여인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온다. 모두들 문전 박대하지만 경허 스님만은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밥을 같이 먹기도 잠을 자기도 한다. 그렇게 몇달이 지나자 몇몇 스님들이 여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강제로 떼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감지한 여인이 스님과 이별하면서 하는 짧은 한마디. "스님, 저 세상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결코 예전의 거지가 아니었다. 소중한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초대를 받고 경무대로 간 청담스님에게 생일을 묻자 던진 "생불생 사불사(生不生, 死不死)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중한테 생일이 어디 있겠소?"라는 명법문은 절로 웃음짓게 만든다. 성철 스님의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에게 '내가 꼬마 선지식에게 할을 한방 먹은 거야'라고 즐거워 하는 모습에서는 동심으로 돌아가 있는 수행자의 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 '산문,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33편의 일화가 실려 있다. 이미 인구에 회자되어 널리 알려진 신작로 같은 같은 이야기도 있고 우봉규씨가 발품을 팔아가며 발췌한 오솔길 이야기 등 읽을 거리가 가득하다.

1부가 문헌을 통해 얻은 선지식들의 일화를 읽기 쉽게 동화형식으로 각색한 것이라면, 2부 '산문, 그 눈오는 길'은 우씨가 직접 선지식들을 만나 인터뷰 한 내용들이다. 혼자 있는 곳이 바로 수행하는 토굴이라는 마곡사 토굴암 일우 스님, 망상을 가지지 않으면 늙지 않는다는 속리산 법주사 천룡 스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해인사 원당암 혜암 스님 등 10여 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실려 있다.

제 3부 '산문, 서울을 따라 간 산사들' 편은 기행문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청계산 청계사, 강화도 정수사, 도봉산 망월사, 관악산 연주암, 삼각산 진관사 등 주말에 한번쯤 답사해 볼 만한 사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잔잔한 필체로 선보였다.

동화처럼 친숙한 느낌을 줘 독자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강한 매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 책에서는 사진을 한 장도 찾을 수 없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감옥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어디에 있든 자유로워라'

틱낫한 지음 / 류시화 옮김

청아출판사 / 9천원



세마디 제목만 읽어도 마음속에 금방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다. 지은이 틱낫한 스님의 방한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탓이다.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는 틱낫한 스님이 미국 메릴랜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역설한 내용을 묶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간은 감옥 밖에 있어도 구속된 존재일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비논리적인 말 같지만 스님은 "이 순간 평화를 느끼는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또는 무엇을 하든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당신으로부터 평화가 퍼져 나가고

美 재소자들에 마음의 평화 역설

주변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재소자들에게 강조한다. 항상 스님이 강조하는 '늘 깨어 있으라'는 법문이 재소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틱낫한 스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시간적 공간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한다. 이 순간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는 욕심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쏟아져 나온 스님의 책에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선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일대기… 불교이해 기본서

'붓다, 그리고 삶'

주명철 지음

정우서적 / 4천원



21세기 우리들에게 불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처음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를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불교의 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명철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가 쓴 <붓다, 그리고 삶>은 출생부터 출가, 열반, 가르침까지 부처님 일대기가 총망라돼 있어 불교를 이해하는 기본서 역할을 한다. 그동안 부처님 일대기에 관한 책들은 수없이 나왔다. 하지만 이 책에 유독 눈길이 가는 점은 신화적인 부분을 가능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책속에 면면히 녹아 흐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명철 교수는 부처님의 삶이 결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떠나 있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특히 주 교수가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면서 근본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성제다. 그래서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건져내야 할 큰 숙제다. 부록으로 고타마 붓다의 탄생 연도에 대한 고찰도 실려 있어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일조한다. 김주일 기자

출생~열반까지 객관적 접근 노력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힘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4	감산자전	대성 스님	여 시 아 문
5	묻지 않는 질문	현응 스님	민 족 사
6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 재 경	마당넓은집
7	물은 답을 알고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8	절간이야기	오현 스님	고 요 아 침
9	미소짓는 발걸음	틱 낫 한	열 림 원
10	능엄주해의	전 수 태	운 주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날씬한 몸매 만들기 10계명

'청국장 열풍'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분자생물학 박사 • 1997~1998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과 연구원 • 1992년부터 호서대에 재직하며 이듬해 청국장 연구 시작 • 2000년 1월 '청국장 먹기 운동' 홈페이지(http://chungkookjang.com) 개설 •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YES24 건강 베스트 5위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2003. 3. 1.)
•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방영(2003. 3. 11.)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올컬러) / 14,500원

Human & Books 전화 · 02-6327-3535 팩스 · 02-6327-5353 e-mail · hbooks@empal.com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설법
니가 누꼬?
경봉 큰스님 지음 / 명정 스님 주해 / 442쪽 / 12,000원

성철스님도 우러러보았던 20세기 한국 불교의 거목!
-경봉 큰스님의 육성을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보리라.
그리 하다가 죽으면 또 어떠리!"



• 여기 실린 60편의 법문은 돌과 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일러주고 있다. –조선일보

• 깨달음에 앞서 '참된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경봉 스님은 이해하기 쉬운 설법과 서정성 깊은 60편의 법문으로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은 일상 속의 '참 나'를 마주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세계일보

★교보문고 불교분야 베스트 2위 국내 최대 불교서점 여시아문 베스트 3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60년 설법의 총화!
통도사에서만 270만 부가 나간 바로 그 책!

불가 유가 도가 등 삼교에 회통한 가르침으로 불법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한 중국 명대의 고승 감산 대사. 마치 감산 대사가 다시 살아나온 듯, 동양사상에 대한 활발한 강의와 저술활동을 펼치는 대만 총통의 국사(國師) 남회근(85) 거사의 저서들이 잇달아 국내에 번역, 소개되고 있다.

<금강경 강의> <주역강의> <역경잡설>(문예출판사)과 <논어강의> <남회근 선생의 알기 쉬운 정좌수도 강의>(씨앗을뿌리는사람들)에 이어, <불교수행 강의>와 <능엄경 강의>가 곧 출간(씨앗을…)될 예정이다.



◇ '대만의 감산대사'로 존경받고 있는 남회근거사.

대만國師 남회근 거사 저서 잇달아 번역

'불교수행' '능엄경 강의' 곧 출간

'현대의 감산 대사'로 불리는 남회근 거사의 저술과 강의서는 30여 종에 이르고 있는데, 동서고금에 걸친 역사와 사상을 종횡하면서 경전 내용을 설파하고 있다. 특히 불 · 유 · 도 삼교의 수행법을 실제로 수증(修證)하여 그 깊고 어려운 내용을 정밀하고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 10여 년 전부터 중국 대륙에서는 필독서로 꼽히며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금강경 강의>와 <…정좌수도 강의>는 남회근 거사의 대표작들.

<금강경 강의>는 방대한 학문적 바탕과 오랜 수행의 체험에 타고난 재담을 곁들여, 석가모니와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마치 연극대본처럼 실감나게 설명하고, 광범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의 실례를 들어 이해를 심화시켜주고 있다.

<…정좌수도 강의>는 그의 불유도 삼교의 정좌수도 원리를 융합하는 동시에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시키고 지난 수백년 동안의 제방 수도자의 수행경험을 깊이 있고 간결하게 소개한 책이다. 이 책에서 남회근 거사는 정좌를 휴식이라고 본다. 휴식을 통해 우리 생명의 본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기본 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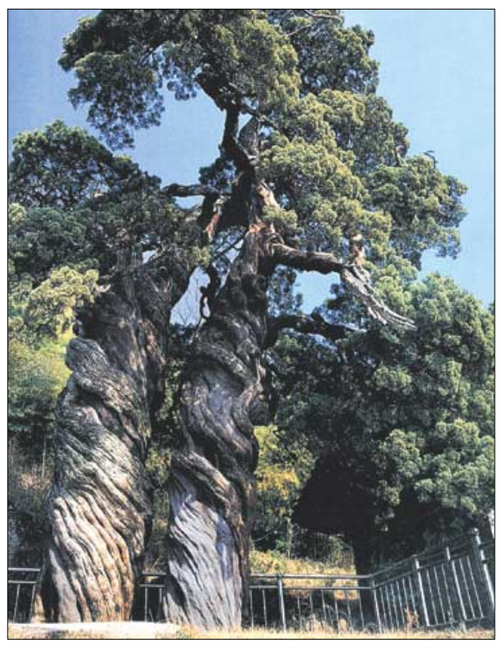
불 · 유 · 도 3교 수행법 알기쉽게 설명
동양학 저술 30여권…스테디셀러

씨앗을뿌리는사람들이 초파일을 전후해 내놓을 <불교수행 강의>는 불교수행이 의지해야 할 세가지 요강인 견도(見道) 수증(修證) 행원(行願)을 기초로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승은 소승을 기초로 닦아야 하는데, 소승의 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수행은 단지 정(定)을 얻기 위한 것인가? 수행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에 부딪치게 괴며 갈림길은 우언인가? <능엄경>에 나오는 50음마(陰魔)의 경계에는 해탈에 이르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저자가 직접 평생에 걸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공개하고 있다. 뒤이어 나올 <능엄경 강의>는 공(空)의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문이자, 단계적인 수행법의 근거가 되는 <능엄경>을 현대적 개념으로 풀이한 책이다.

얼핏 보아도 녹녹하지 않은 30여 권의 동양학 관련 저술들이 끊임없이 중판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도 노 거사의 철학적 사고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읽는 이로 하여금 부처님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여행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의 책들은 부처님 보다도 훨씬 쉽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순천 송광사 천자암의 곱향나무 두 그루가 빚어낸 곡선의 예술.

각종 전설 간직한 정겨운 거목들

'이 땅의 큰 나무'

글 고규홍 / 사진 김성철

눌와 / 2만원

"더 늦기 전에 우리와 친근했던 그 큰 나무들의 삶을 기록해 두기 위해 답사를 시작했다.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사람과 자연이 맺은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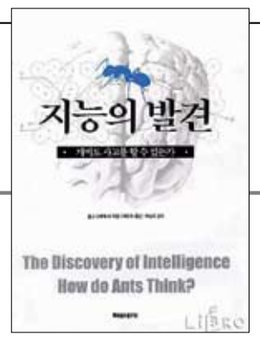
말없이 수백년간 이 땅의 곳곳을 지켜온 큰 나무 27종 130그루에 관한 1000일간의 답사 보고서인 <이 땅의 큰나무>(눌와). 이 책의 저자인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나무 애호가 고규홍씨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한 김성철 사진가는 출간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그 이름만 들어도 시원스러운 나무들이 책 안에 가득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거수(老巨樹)들을 사진과 함께 하나씩 읽다 보면 그 신비스러움에 감탄하게 된다. 스님의 지팡이에서 자라났다는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간신배의 호주머니에서 싹을 틔웠다는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매운 향기 품고 있는 순천 선암사 매화나무,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상큼한 향기를 자랑하는 마산 의림사 모과나무 등 불교 전설을 간직한 사찰 거목들은 더욱 흥미롭다.

노거수 27종 130그루 1000일 답사보고서

전문가 서평



'지능의 발견'

홀크 크루제 외 지음

해바라기 / 1만5천3백원

지능외 의식문제까지도 다뤄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사고하는가? 기계도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고대의 철학자로부터 현대의 컴퓨터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이 책은 생물학, 컴퓨터과학, 인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시각에서 지능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능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지능에 대한 서술은 크게 방향 찾기, 조직화, 기억, 학습 등 동물들에게서도 관찰되는 지능적인 행동 양식들에 대한 설명 부분과, 사고, 합리적 판단, 상징의 사용 등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및 의식과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우선 단순한 규칙 또는 단순한 시스템으로부터 복잡한 행동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보이면서 지능적 행동이라는 특성이 단순한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귀뚜라미가 소리를 듣고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인지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이용하여 단순한 시스템이 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리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여러 개의 다리와 관절을 가진 곤충의 걸음걸이와 같이 중앙집중적인 제어가 매우 어려운 행동이 저차원의 단순한 규칙들에 의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생물 · 심리학 등 다양한 시각서 '지능' 규명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의식 및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지능적 행동이 단순한 메커니즘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논의는 시작된다. 지능의 더 높은 형태는 사물을 이해하고 사고하며 판단하는 능력, 즉 '인지능력'과 '합리적 행동'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다. 천성적으로 고정된 메커니즘에 의한 하등동물 집단의 행동과 달리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은 세계에 대한 모델과 그것에 기반한 행동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그러한 세계 모델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밝히고 있다. 지능의 출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 사용 능력에 대하여 상징이 어떻게 단순한 시스템에서 생겨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보다 더 난해한 문제인 내부시점과 체험의 문제에 대해서도 체험 역시 창발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로봇도 필요한 신경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체험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몇몇 실험심리학 분야에서의 실험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특히 리벳의 실험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믿음마저 깨뜨리는 결과를 보여준다. 리벳의 실험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시점은 (결정했다고 믿는 시점은) 실제로 두뇌에서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 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일련의 과학적 고찰과 실험, 그리고 이론적 설명을 통하여, 자극에 대하여 지능적으로 반응하거나 방향을 찾아가는 행동들이 단순한 시스템들의 작용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상징, 체험, 의식, 심지어 자유의지까지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렇 다 면 기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능, 의식,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으며, 역으로 말하면 인간 자체가 자율적이고 세계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지능의 발견>이지만 실제로는 '지능'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의식'의 문제까지 매우 심오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과학적 실험에 대한 설명과 예들이 이해를 도우면서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다만 흠이 있다면 몇몇 부분은 지나치게 요약되거나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관련 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능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 심리학, 인지학, 컴퓨터과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물론, 지능적 행동의 원리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도 일독을 권할 만 하다.

■김준태 /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능의 발견>은 '지능'이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정의내리는 사람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인간 중심적인 쇼비니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확장가능한 과학의 발명을 어림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및 특집사보 발간



기념책자 내용
· 봉축법요식순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
· 부처님의 성도와 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판 | 분량 28쪽(표지포함)



특집사보 내용
· 봉축발원문
· 부처님의 탄생과 그 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공부
· 불교환경운동과 수행
· 불교와의 인연이야기
· 불교상식 등

규격 4 x 6배판(16절) | 분량 36쪽(표지포함)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 식순 등을 실어 드립니다.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 및 특집사보를 만들어 행사용 팜플렛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설법전서 한 권이 더 보태어졌습니다!

불교설법전서9권발간



"초파일기간특별할인실시"

1권(500쪽) 3만원 6권(816쪽) 5만원
2권(596쪽) 4만원 7권(894쪽) 5만원
3권(612쪽) 4만원 8권(790쪽) 5만원
4권(798쪽) 4만원 9권(720쪽) 5만원
5권(720쪽) 4만원

불교설법전서는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 설법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부처님도 미소지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

열심히, 그러나 정신 없이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샘솟는 지혜를 갖게 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부처님 오신 날 선물 꾸러미 속에 챙겨 넣으셔도 좋습니다.

글 방경일 · 그림 김장열 | 4×6 변형판 칼라인쇄 | 분량 272쪽 | 값 10,000원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여인 오장설'의 문제점

《증일아함경》 제38권에서는 모니라는 여인이 수기를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수기를 줄 수 없으며, 여인의 몸이기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보장여래의 말씀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본기경》, 《오분률》, 《법화경》 등 많은 경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여인은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 둘째 제석천왕이 될 수 없다. 셋째 범천왕이 될 수 없다. 넷째 마왕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무상도를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몸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불교학자들은 성불의 다섯 가지 장애라는 의미에서 오장설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경전에서 오장설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설법을 마치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는 오장설이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초일명삼매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다섯 가지를 획득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성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다음 생애에 남성의 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제석천왕등 5가지 될 수 없다"

경전편집때 힌두의 성차별시각 반영

《초일명삼매경》에서는 여인오장설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용맹하고 육심이 적으면 제석이 될 수 있는데 잡스럽고 악독하며 교태가 많기 때문에 제석이 될 수 없다. 둘째 청정행을 받들고 더러움을 없애며, 네 가지 등심(等心)을 수행하고 네 가지 선정을 닦을 것 같으면 범천이 될 수 있는 데 음란하고 방자하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천이 될 수 없다. 셋째 열 가지 공덕(십선)을 구족하고 삼보를 공경하며, 효도로 양친을 섬기고 장로들에게 경하하게 순종하면 마왕이 될 수 있는 데 경박하고 불손하며 정법을 훼손하므로 마왕이 될 수 없다. 넷째 승가는 태도가 84종이며, 청정한 행이 없기 때문에 성스러운 제왕이 될 수 없다. 다섯째 브라흐만인을 깨닫고 일체가 허깨비, 꿈, 그림자 등과 같고, 오온이 본래 없는 것이며, 3취(趣)의 상이 없다고 분별하면 성불할 수 있는 데 색욕에 탐착하고 정이 흐리며, 태도가 솔직하지 못해 신구의 3업이 다르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

경전의 설명에 의하면 교태가 많음, 음란하고 절제가 없음, 경박하고 불손함, 잡 습기고 청정행이 없음, 색욕을 탐닉하고 솔직하지 못하며 행위가 반듯하지 못함 등이 여인이 다섯 가지 장애를 지니게 되는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공통되는 성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혹은 경우에 따라 이상의 성향들을 충분히 가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경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구니들이 깨달음을 노래하고, 청정한 수행을 했기에 부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전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처님 스스로 아난다에게 말한다. "만약 여인이 여래가 설한 법과 율에 따라 출가한다면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여, 여인이 법과 율에 따라 출가한다면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다." 이상은 《비구니건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오장설을 말하는 경전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태생을 묻지 마라. 행동을 물어라. 불은 실로 모든 장작에서 나온다. 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자로서의 도심이 견고하고, 참괴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면 고귀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장애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단정은 부처님의 사상에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방대한 불교경전 속에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수행자들은 일찍이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인도사회문화의 배경 속에서 여성들이 그러한 문제의 부당함과 부정의함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킬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우선 불교라는 종교문화가 발생하여 성숙하게 되는 터전은 여성들이 경시당하고 있던 힌두사회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불교교단의 주축인 비구들의 50%이상이 바라문 출신이었다는 점도 불교의 여성관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힌두 사회의 관습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철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불경의 편집과정에서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나를 찾는것 가장 급한 일

지상 백고좌

정 일 스님

(보광사 조실 · 선학원 이사장)



◇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정일스님.

내 허물만 보고
자신에게 엄해야
지혜 얻게 돼

'일구(一句)'는 부처님 깨달음이라, 부처님께서 깨닫으신 것과 평생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 일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 일구를 들어보여도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 '이구(二句)'입니다. 부처님 49년 설법은 다 이구에 해당합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후에 하신 모든 말과 행동도 이구입니다.

'일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평상심'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몰라요. 처음에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도(道)'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구는 '선(禪)'이라고도 합니다.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견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갓난 아기가 성장을 해야 세상사 모든 것을 알게 되듯이 견성도 갓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장을 위해선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점수는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혼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경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조스님께서 이적으로 잘 따져서 가르침(방편)을 일러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해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스님께서는 법문할 때 <육조단경>을 즐겨 인용하셨고, <서장>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장>을 전부다 거꾸로 뒤집어엎어 말도 안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인데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육조 스님 말씀대로라면, 뜻을 보지 않고 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니 세상을 거꾸로 볼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것은 성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고요한 생활을 말합니다. 고요한 생활이라고 하면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하고 부처님 깨달음이란 것은 일체 번뇌가 없는 생활입니다.

무당 되는 것도 전생부터 씨를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듯이, 무당이 된 사람은 전생부터 무당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냈 것입니다. 몽 심은데 몽 나듯이 자기가 심은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업의 겁데기를 다 벗어야 합니다. 가르침대로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퍼어넘을 수 있고, 화택(火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무당집에 드나들면 혹을 떼러 갔다가 붙이고 옵니다. 사주 관상 등을 다 뛰어넘으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고'는 여러분의 본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망상이 불계 됩니다. 깨달았다는 그 마음을 조심하고 오직 화두만 참구하십시오.

선학원 신도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도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에서 8시간 자면 좋습니다. 더 이상자면 해로워요. 8시간 일하고 또 8시간은 노는 시간인데, 이때 공부하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꼭 8시간만 이 아니라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고 먹고 머물 집 있으면 다 갖춘 것인데도 중생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급한 것 있으니 나를 찾는 일입니다. 이것이 급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나를 찾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간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망상이고, 허깨비입니다. 꿈이 천만하듯이 망상 또한 천만합니다. 불여우보다 더한 게 변덕스러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염불하고 주력해서 잡재워야 합니다. 남방불교에선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미친 여우처럼 마음이 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걸을 때도 왼발 오른발 내놓으면 되지, 자꾸 망상 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입니다.

결국 위빠사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입구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입구를 지나치고 나면 부처님의 최상승선은 화두선입니다. 근래 책자에는 인도나 중국이 다르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법에 대해 엄격한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에 대해 너무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전법을 방해하는 마구니로 둔갑하게 되니 큰일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생에게 부처님 법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가수행승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자들이 법에 대해서는 관심없고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니 큰일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분발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이 명탐구리입니다. 자기 마음을 희미하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귀신이고 멍탐구리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바로 '습'입니다. 또한 자기는 잘나고 남은 못났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업이고, 귀신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무당집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학으로는 귀신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는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습생'은 과학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태란습화(胎卵濕化), 사생(四生)을 가진 것, 여기에 빠진 인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 마음을 깨달게 하는 일입니다.

고통 받는 중생을 안내하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깨달으시고 '나는 안내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도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떠벌리고 거짓말을 하지만(전지전능하다는) 거짓말은 금방 탄로 나고 맙니다.

부처님은 다음 세 가지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업을 대신 없애주지 못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다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부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 생긴 지가 150억년 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수준입니다. 공자 노자 예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50억년 됐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바꾸려면 앞으로 엄청난 과학발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제기술이 극락세계를 흉내내다 보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복제양이, 15년 수명에 어른밖에 못 살고 각기병에 폐렴이다 해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러한 복제라는 것이 끝날하려면 할 수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고, 지구상에 가지가지 혼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라고 맹신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제란 기술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기술로 사람을 복제한다? 즐기세포를 쥐에 이식해서 인간이 쥐를 배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앞서갑니다. 만나기 어려운 이 가르침을 만나게 됐으니 항상 정진하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을 만났을 때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의식주가 급하긴 하지만 똑같이 급한 것이 나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처음엔 곧바로 화두선이 안 되니까 경도 읽고 염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주력도 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분발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석 반지를 잃어버리면 몇날 며칠을 찾느라 아닌밤 피지만 이 중요한 가르침을 잃고서도 아까운 생각도 않습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결코 그 보물을 찾으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 콘입니다. 엄청난 보물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멍청하니 앉아있다니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부처님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붙인 이름이 부처 '불(佛)' 자, 길 '도(道)' 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부처라는 것도 도라는 것도 가명입니다.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도들의 말대로 내 몸, 내 몸을 나누고 망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외도들은 겉모양만 보고 말하지만 부처님 법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망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리전도몽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두선에 들어가면 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틈틈이 참선하십시오. 신라시대에는 아들 딸 낳고나면 절에 들어가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합니다.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만 보시고, 자꾸 안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는 법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남의 허물 들추면 내 지혜 얻어지고 얻어 쌓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자기 허물만 보겠다는 뜻으로 욕바라밀을 실천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능히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견성은 갓난애 같은것
잘 키우기 위해 漸修필요



◇정일 스님은 "깨달음엔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늘 수행과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신다.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만초스님



세상에는 유별나게 일하는 것 같은 표를 내면서도 사실은 투박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진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척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또 어디서든 매사를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세상이 된다면 여기가 곧 극락일 텐데 현실을 보면 거리가 멀다. 그러나 나의 모든 중에는, 늘 노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는 멋쟁이가 있다.

만초스님은 체구는 작고 야위어서 왜소한 편이지만 늘 자세가 반듯하고 스님을 특유의 기품이 있아있는 스님이다. 말소리도 크지 않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온화한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다. 거기다가 짝증 내거나 남을 비방하는 일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금껏 이렇게 인욕 하는 스님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생각의 회전이 빠르다.

울산 내원암 주지소임을 살 때 그의 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울산지역의 이웃 종교인들과 모임을 만들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가 하면 종교 간의 화합에 앞장섰다. 점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자연스레 찾아오고, 스님 또한 성당이나 교회를 부담없이 방문해서 종교 간의 친목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공유하는 여유를 보였다. 종교 간 대화와 교류의 모습은 이 시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특히 뜸짐이 풍요로운수록 정신세계의 순화는 웹페아 웹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해에는 산사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가



그림 · 문병성

보았다. 절 입구 너른 공터에서 동네잔치를 벌였다. 산색은 봄빛으로 푸르르 어우러지고, 사람들은 즐거운 미소로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맛있는 즉석 음식이 잔칫집을 연상케 했고, 준비된 공연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청중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다. 사실 내원암은 20여년 동안 만초 스님 전임 주지인 호랑이 노스님에 의해서 조용한 절로 인식되던 곳이다. 그런 공간이 젊은 주지스님에 의해 활동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달라진 점 분위기를 실감하며 즐거운 한 때를 함께했다. 문화적인 감각 또한 만초 스님의 숨겨진 매력이다.

그런 활동들이 인정을 받았는지 어느 날 조계종 기획국장으로 간다고 했다. 예산, 법령 개정 등등 조계종 전반에 대해 그야말로 기획을 하는 자리다. 내심 부럽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람을 보는 것 같아 내 일처럼 흐뭇하기도 했다. 지금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 봄도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한 백운암에서 법당 중창 불사를 하고 있다. 그의 여유 있는 마음 씀씀이나 깔끔한 일처리를 보면 이 불사 또한 원만한 회향을 할 것이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자세 늘 반듯하고 곧은기품 간직
분위기따라 시인도…철학자도…

다. 그래서인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님의 행동은 자유롭고, 적응을 잘한다. 서정적인 분위기에서는 부드러운 시인이 되고, 학문적인 분위기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철학자가 되는가 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는 꾸밈없이 천진한 어린아이가 된다. 생각지 못할 짜진한 장난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다.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순박한 재치와 고도의 유머가 있어 재미가 있다. 서로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먼저 한바퀴 더 저만큼 가고 있을 정도로 생각의 회전이 빠르다.



퇴미승 대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晉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간(肝) 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올갱과 비길만한 지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지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제법식(기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품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참기 와이시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말숙에 붙어든 반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려 옵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포라더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수실형평 : 9.5평 지상4층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종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임 주 금 한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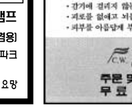
[입주상담 및 문의] 장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선학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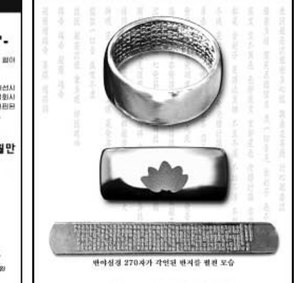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인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4월 26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짜리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표정을 악할정도로 변화를 마무와 주는 파이 라인가 대문입니다
표정을 보두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하이니지 못합니다
건강은 많이 부족하여 눈게 건강은 불입지기 다운 밸런스의 B대스테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자유으로 천연하게 불러지다운 볼륨 파이니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을 받은 이니라 당뇨로 인해 골반문생을 예비해 근원방지를 공급하여 무너진 엉덩이라인을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300mg cap 90 cap × 3병 138통부 150,000통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스 통무를 통합 권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화
당뇨병 및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백력증상 • 생년기 장애 등
• 갑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저혈증 없애고 저를 방에 해당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주 • 땀, 관절염, 고혈압
조은케미칼라이프 Co.
(주)반도체시험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반야심경반지

반야심경 270자가 각인된 반지를 별관 모습
국내 최초로 제작된 반야심경반지
18K Gold 폭 8mm 5.5g (수공이므로 ±5% 오차)
반지 내부에는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정밀하게 각인(양각)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농 협 131-01-368761 예금주 : (주) 엑스피아 금액 : 198,000원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홈페이지 http://www.xpialand.com



◇4 · 5월 불교계에서는 봉축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등축제의 댄스경연대회에서 타악뮤지컬팀 '야단법석'이 공연하고 있는 모습.

음악회 · 영산재 · 목공예 시연 등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행사 풍성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연등축제가 열리는 5월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영산재, 댄스경연대회, 목공예시연회, 불화전시회, 연꽃 그림그리기, 선무도 시범 공연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 단체별로도 아기자기한 행사가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광주불교방송은 23일 오후 6시 남도예술회관에서 '연합합창제'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백양사를 비롯해 금광사, 원효사, 광주 한마음선원, 향림사, 증심사 등 전남지역 6개 사찰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한다. 또 송나영(정광중 2년)양이 판소리 '수궁가'도 들려준다. (062)520-1114.

24일 저녁 7시30분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여의도 KBS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서현석 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가 지휘를 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루드밀라 서곡'을 비롯해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마당', 장사익씨의 '찔레꽃',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성곡 '부처님 이야기' 등이 연주된다. (02)415-2599.

경남 함안 마애사는 27일 오후 3시 산사음악회를 연다.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현철, 조항조, 이은하, 김혜연, 이지훈, 샤크라 등이 초청돼 대중가요와 찬불가를 부른다. (055)585-3114.

부산 불교합창단도 26일 오후 3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1500명의 대규모 부산지역 연합합창단이 참여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찬불가와 가요 20곡을 선사한다. (051)867-0501. 대구 불광사도 5월 1일 저녁 7시 대덕문화전당에서 불교합창단 봉축음악 발표회를 개최한다. (053)253-6388.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구룡사 문화회관에서 '봉축 기념 사진전시회'를 기획한다. 전제우씨의 '서옹스님의 큰 미소'를 비롯해 박봉수씨의 '부도전의 아침', 강승규씨의 '산사음악회', 김호연씨의 '감은사지' 등 50여 작품이 소개된다. (02)575-7766

강남 봉은사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전통등 전시회를 연다. 연등, 용등, 코끼리등, 호랑이등 등이 선보이며, 전통등 제작시연과 등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02)511-6070.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서울불교청년회는 27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를 연다. (02)730-9108

5월 4일 오후 1시 종로 밀레니엄 플라자에서는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주최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연다. (02)723-616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남 6개사찰 연합합창단 음성공양

니르바나 악단 교성곡 '부처님이야기' 연주

봉은사, 전통등 제작시연 · 등 만들기

2003 서울예술제 · 반전 평화의 밤

자연스님 대금연주 · 중국무용가 진싱 초청

양재동 구룡사와 한국어울문화원은 29일 저녁 7시 30분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03서울 예술제, 반전평화의 밤'을 연다.



◇대금연주를 하고 있는 자연 스님.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 첼로, 그리고 사물이 어우러지는 즉흥연주단 '신모리'의 반주에 맞춰 자연 스님(한국어울 문화원장)이 대금을 연주한다. 또 마임니스트 유진규씨의 '판토마임', 중국 상해 오페라 예술감독인 진싱의 무용, 중국 일급민족악기인 '얼후' 연주가 마샤휘의 연주 등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타악기 그룹 '뿌리패'와 팝페라 가수 '마리아'도 특별 초청돼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연 스님은 "음악, 무용, 마임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031)256-6938

가정용 팔상도 무료보급

동양화가 이한동 화백

동양화가 청곡 이한동 화백(60)이 가정용 팔상도를 제작해 무료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이는 팔상도는 수려한 산수화를 배경으로 바위나 계곡, 정자 등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과 법문 듣는 장면 등을 표현했다. 또 그림 위에 붙여진 설명은 선화가 수안 스님이 썼다. 무량회 회원으로 10년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 화백은 "평생 산수화만 그려왔지만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미술로 인생을 회향하기로 했다"며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걸어놓고 부처님의 향훈을 느낄 수 있도록 산수화의 구도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은 앞으로 '가정용 108나한도' 작업도 할 계획이다. (011)747-8692



◇이한동 화백의 가정용 팔상도.



◇엄영달씨의 사진작품 '차안(此岸)'.

도심서 만나는 산사, 나한…

부산 영광갤러리 네차례 봉축 사진전

부산 영광갤러리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관련 사진전을 네차례 연다.

'나한(羅漢)'을 주로 찍는 사진 작가 오명숙씨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나한 사진전'을 기획한다. 이번 전시는 나한전에 모셔진 갖가지 모습의 '나한'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십대나한, 십육나한, 십팔나한, 오백나한 등 여러 행태의 나한이 사진으로 세상에 나왔다. 지난해 입적한 '걸레' 중광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중광 스님 사진전'도 27일까지 열린다. '눈속에 누워 있는 중광 스님' 등 정봉문씨가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주석했던 내설악 백담사에서 3년간 다큐사진을 촬영한 결과물들을 이번에 선보인다.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마련되는 이경순 관장(영광도서갤러리)의 '사찰속의 아우라 전'은 빛을 활용해 사찰 경내의 몽환적인 세계를 연출해 낸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대웅전을 비롯해 각 전각들에 빛이 들어온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또 사찰속에서 발견한 연꽃과 돌담 등을 찍은 작품들은 소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엄영달씨의 '차안(此岸)과 아우라'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흘러내리는 샘물앞에 놓여 있는 앙증맞은 동자상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 등이 전시된다. (051)816-9500

김주일기자

'살며 생각하며' 등 4개프로 신설

불교방송 봄철개편, 세계음악여행 재편성

불교방송(사장 김규칠)이 청소년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와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들어보는 '세계음악여행' 등 4개 프로를 신설하며 봄철 새단장을 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심야프로그램 강화다.

매주 월~금요일 밤 11시 5분부터 새벽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살며 생각하며'는 덕신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이 청소년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토~일요일 같은 시간대에는 지난해 가을 개편 때 폐지됐던 '세계음악여행(토~일, 밤 11시5분~새벽 1시)'이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편성됐다. 그동안 불교방송 게시판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고 싶다는 청취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이번에 진행을 맡은 강민석 씨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했으며, 애니메이션 '마리이야기'의 음악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 매일 오전 6시 5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현해 불교사상과 문학, 미술 등을 알기 쉽게 전해주는 '불교강좌'가 새롭게 선보인다.

소리꾼 김용우 씨가 진행하는 '국악발견'에는 소리꾼 남상일과 함께 하는 '판소리 따라잡기', 세계의 토속 민요를 소개하는 코너 등이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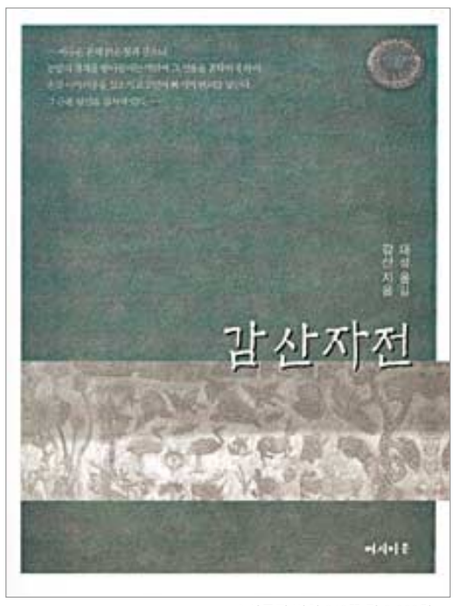
그동안 밤 11시에 방송되던 '불교문화산책'과 'BBS 초대석'은 밤 9시로 시간대를 옮겼고,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되는 '무명을 밝히고'는 일요일까지 확대 편성됐다. '교리강좌'와 '무상을 넘어서', '지혜의 샘터' 등 7개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여수령기자



◇강민석씨가 새롭게 선보인 '세계음악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부처님 오신날 전래놀이로 기쁨 두배

부처님오신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예로부터 초파일이면 불자들은 절에 가서 재(齋)를 올리고 등을 달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또한 이날은 종로 거리에 장난감 시장이 서는 등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문화가 펼쳐지는 명절의 하나이기도 했다. 가족, 이웃, 친지들과 함께 즐길만한 놀이는 무엇이 있을까?

▷호기 놀이

초파일이 가까워지면 민가에서는 집집마다 등을 달기 위한 장대인 '등간(燈竿)'을 세우는데, 그 끝에 꿩 깃을 끼워 장식하고 물들인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매단다. 이것을 호기(呼旗)라고 하며 기에 줄을 매고 가족의 수대로 등을 단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등간을 만들지 못하는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추녀 끝에 빨래 줄처럼 줄을 매고 등을 매달아 두기도 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호기놀이는 아이들이 등 만들 재료비를 구하기 위하여 수주일 전부터 종이를 잘라 등간에 매달고 집집마다 누비고 다니면서 쌀이나 베를 얻는 풍속이었다.

▷연등 놀이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행렬.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 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을 허락하며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숯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탑돌이

탑돌이는 부처님오신날이나 큰 법회, 재식 등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거나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스님이 앞서 탑을 돌면 불자들이 그 뒤를 따라 도는데 이때 등을 밝혀 들고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불도 놀이

조선시대 서산 대사가 만든 성불도 놀이는 사찰이나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이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주사위를 던져 나타난 글자에 따라 도판 위의 불패를 옮겨가는 이 놀이는 먼저 성불한 사람에게 다함께 삼배를 올린 후 설법을 듣고, 먼저 성불한 사람은 그 판의 가장 늦은 사람의 편이 되어 함께 진행한다.

▷만석승 놀이

그림자극인 만석승(曼碩僧) 놀이는 초파일을 전후하여 절이나 근처 마을에서 행해졌다. 광목천으로 막을 치고 막 뒤에서 범종 소리에 맞추어 제등행렬이 지나가고, 분장한 십장생이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어 용과 잉어가 나타나 여의주를 놓고 서로 차지하고자 다툴 때, 한 스님이 나타나 '운심게작법'이라는 춤을 춘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노니는 것처럼 삶이란 좁고도 무상하다는 뜻을 지닌 바라춤이다. 결국 용, 잉어도 사라지고 스님의 바라춤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며 막이 내린다.

▷물장구 놀이

수부(水缶)라고도 하는 물장구 놀이는 아이들이 등간 아래에서 물동이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 띄워 놓고 돌아가며 빗자루로 두드리며 즐기는 놀이다. 이때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느릅떡과 볶은 콩, 삶은 미나리 등을 먹었다고 한다. 또 쥘쪽꽃 그늘 밑에 앉아서 꽃잎 한두 잎을 따서 준비해온 쌀가루와 섞어 전을 부친 화전을 먹기도 하고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정년뒤의 새 출발

한 신사분이 "60회 생일을 지내고 나니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 분은 대학교 때 친구를 따라 대불련 활동을 잠시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불교를 접했다고는 하지만 교리를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고 사찰수련회 등을 따라 다니면서 큰스님을 친견하고 절을 구경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직하여 불교활동도 중단하고 직장생활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에서도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그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인생을 4주기로 나누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학문을 수학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장해서는 가정을 이루어 부모와 처자식을 봉양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전념하다가, 자식이 성장해서 가정을 대신 이끌어 갈 정도가 되면 자식에게 가정을 맡기고 홀가분한 몸으로 집을 나와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수행에 전념하다, 때가 되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인도인들도 그런 생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일에 전념했고, 성장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봉양하는 일에 전념했으니, 60대에 들어선 지금은 수행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여의치 않아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 분의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분이 들려준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군요.

그 분은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이전에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강남의 변모를 지켜 본 산 증인 중의 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님도 대부분의 강남 토박이가 그러했듯이 농사짓던 땅을 내주고 보상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다 날리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고학을 하다시피해서 학교를 마치고 은행에 취직해 두 동생의 학비를 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다보니 자신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번 제대로 먹어 보지 못하고 연애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30대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33세에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그는 아들 딸 남매를 낳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이 벌어 주는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갔기 때문에 결혼생활 30년 동안 큰 굴곡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모아 놓은 재산은 없지만 3억원 정도 되는 집이 한 채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부자가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도 한 직장의 수장으로 10여년 이상 지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 중의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저희들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뒷바라지를 해 줬으니 부모 노릇도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자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한테나 형제들한테도 제 능력껏 해줄 수 있는 걸 해 줬으니 그들한테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60년을 살아 온 제 인생을 되돌아 볼 때 별로 여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특별히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60대를 맞이한 지금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자타가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고대 인도인들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나를 위한 수행의 길에 들어서자.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도 받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행센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행도 해 보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니 새로운 힘이 솟더군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수행의 길에 들어서던가, 아니면 나를 홀가분하게 놓아 달라고요. 제 통보를 받은 아내는 울고불고 하더니 요즈음은 아예 몸져 누워있습니다. 아내가 하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황혼기의 수행길 힘차게 떠나세요"

질문을 받은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결심한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보면 부인도 따라 올지 모르죠."

부인이 따라오던 안 오던 지금 그 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행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60대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 분에게 말입니다.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봄꽃 무생채



무 400g, 비트 50g, 설탕 2큰술, 소금 1/2큰술, 식초 2큰술, 냉이꽃, 꽃다지, 유채꽃 약간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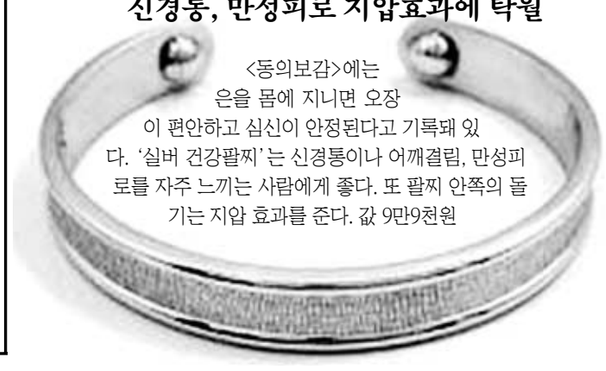
1. 무는 곱게 채썬다. 비트는 강판에 갈아 면보에 내려 즙을 낸 후 채썬 무에 넣고 버무려 물들인다.
2. 냉이꽃, 꽃다지, 유채꽃은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3. 무에 어느 정도 물이 들면 설탕, 소금, 식초를 넣고 살살 무쳐서 접시에 담고 꽃을 얹어낸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실버 건강팔찌

신경통, 만성피로 지압효과에 탁월



<동의보감>에는 은을 몸에 지니면 오장이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된다고 기록돼 있다. '실버 건강팔찌'는 신경통이나 어깨결림, 만성피로를 자주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 또 팔찌 안쪽의 돌기는 지압 효과를 준다. 값 9만9천원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를 접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불기 2547년 봉축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 오신날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접수마감 - 불기 2547년 4월 29일 화요일까지
▶ 문의 및 접수 - 전 화 : 02)732-1522(直) / 02)737-8881(代)
팩 스 : 02)737-8881
e-mail : ad@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함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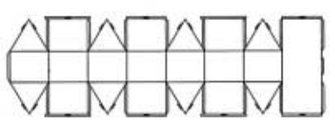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7화 태자(太子)와 부왕(父王) ①

이만하면 부왕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들었을 만도 하건만 태자의 간곡하고 끈질긴 출가요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낳아 기르신 은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어 이 한세상 다하여도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사문이 되어 일승묘법을 닦고 정각을 이루게 되면 부모님의 은공을 한번에 갚을 수 있고, 또 만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어서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임을 멈출 수 없나이다."

"나는 더 이상 태자와 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비록 오늘 출가하여 내일 도를 터득하고 나로 하여금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몸이 하늘의 도솔천에 올라 온갖 쾌락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망한 망상일 뿐이요 단 하나도 믿을 바가 못 된다. 너의 출가로 인하여 샤카족 왕통의 종묘사직이 끊어질 것이어서 나는 다만 그것만이 걱정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두 번 다시 이런 대화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결론이 없는 대화를 끝없이 전개하던 태자와 부왕은 서로가 몹시 피곤해 하였다. 태자가 물러가자 이때 아까부터 옆방에 숨어서 대왕과 태자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던 마하파자파티가 대왕마마 앞에 나타났다.

"아마도 대왕의 간절한 소망을 태자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태자 또한 그 뜻이 분명하여 꺾을 수가 없어 보이옵니다. 대왕마마, 옛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기억하소서…. 선인이 말하기를 출가하면 반드시 정각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위에 오른다면 차크라 바르틴(轉輪聖王)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태자에겐 위대한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지금 태자는 판단의 혼란속에 빠져 있사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태자를 사랑하는 나머지 태자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 가르쳤고 오욕의 즐거움 속에서만 지내게 하였던 것이옵니다.

그러다가 태자가 첫 번째 출성에서 벌써 인생의 반대급부를 보게 되어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것이 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태자에게 사랑이 잘못 전달된 저희 부부의 책임이 결정적이었사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처럼 너무 태자를 감싸고 모든 불행으로부터 차단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면 어떠하옵니까? 내일부터라도 궁중의 모든 미녀들을 총 동원하여 태자의 남자다운 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스스로 오욕의 재미를 느끼게 함이 좋을 듯 하옵니다. 이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태자에게 접근을 하여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 큰상을 내리십시오. 궁안에 많은 여인들은 비록 태자가 어렵다 하여도 자기 가문의 명예와 부를 취하기 위하여 갖은 지혜를 다 짜낼 것이옵니다. 역시 남자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자들뿐이옵니다."

다음날부터 태자궁에는 미색을 뽐내는 수많은 여인들이 몰려들어 태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뜨거운 경쟁의 막이 열렸고 영문도 모르는 듯 태자는 그녀들이 던지는 온갖 아양과 추파에 시달리기만 하였다. 이 또한 부모님의 뜻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분들을 즐겁게 해 드리려는 태자의 깊은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자를 기쁘게 하여 그의 사랑을 쟁취해보려는 여인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인들에 대한 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태자로서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기쁘게 해 드리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라훌라는 건강하게 커갔고 따라서 운명의 그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닥쳐온 그날도, 싯다르타 태자는 수십명의 채녀(采女)들에게 둘러싸여 오욕의 즐거움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밤은 깊어갔고 짙게 퍼지던 전단향도 그 향기를 잃었으며, 간다르바의 음악도 졸기 시작하여 광란하던 연회도 파했다. 싯다르타는 자리를 일어나 붙잡는 여인들을 뿌리치며 정원으로 나왔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고 꽃가루를 뿌린듯한 은하수가 그 황홀한 모습으로 하늘위를 수놓고 있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국내외 정세가 너무 혼란해

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곳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저희들의 힘이 너무도 미약하고 믿음이 약해 혼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는지요?

답 늘 얘기하듯이 물도 나요 불도 나요 바람도 나요, 어느 것 하나 나 아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체를 물로 보지 않는다면 여여하게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란한 속에서 자아 완성을 못한다면 안되지요. 나를 내가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다 가깝다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능히 할 수 있다고.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한생각인데 그 찌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말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은 능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한 한생각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안테나로부터 일체가 다 공존되고 또는 통신이 되고 행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레이다 망에서 오고가는 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주인공 안테나를 꼭 세워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답나무에 갔다오는 거리와 지금 한 발짝 요기 나서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광대무변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다 말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심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닥치는 것을 체험하고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와선이나 입선, 행선 좌선을 모두 참선으로 들려서 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일상생활 참선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참선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법 아닌 게 없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심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헐어져도 내 주인이 집을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심부름꾼인 몸이 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몸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클고 가야 하잖아,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너 자체밖엔 없어." 하고 또한 것을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아프면 약사로 응해 주실 거고, 또는 약사로 나투어 주실 거고, 가난하면 관세음으로 응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용도에 따라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생각이 그대로 지름길이 될 것이고,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행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우리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인간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가 옴주거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모든 겁 네 탓으로 돌리고 네 마음으로 너를 다스리면서 잘 행해 나간다면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까 여러분도 법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 그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한마음 자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자꾸 거기에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라고 자꾸 나누니까 이게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둘 아니게 모두 아 완성을 못한다면 안되지요. 나를 내가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다 가깝다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능히 할 수 있다고.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한생각인데 그 찌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말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은 능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한 한생각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안테나로부터 일체가 다 공존되고 또는 통신이 되고 행이 이루어지니 자기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레이다 망에서 오고가는 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주인공 안테나를 꼭 세워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답나무에 갔다오는 거리와 지금 한 발짝 요기 나서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광대무변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다 말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심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닥치는 것을 체험하고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와선이나 입선, 행선 좌선을 모두 참선으로 들려서 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일상생활 참선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참선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법 아닌 게 없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심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헐어져도 내 주인이 집을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심부름꾼인 몸이 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몸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클고 가야 하잖아,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너 자체밖엔 없어." 하고 또한 것을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아프면 약사로 응해 주실 거고, 또는 약사로 나투어 주실 거고, 가난하면 관세음으로 응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용도에 따라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생각이 그대로 지름길이 될 것이고,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행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우리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인간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가 옴주거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모든 겁 네 탓으로 돌리고 네 마음으로 너를 다스리면서 잘 행해 나간다면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법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 그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한마음 자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자꾸 거기에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라고 자꾸 나누니까 이게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둘 아니게 모두가 완성을 못한다면 안되지요. 나를 내가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다 가깝다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능히 할 수 있다고.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한생각인데 그 찌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말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은 능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한 한생각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잘 넘기면서 직발로 활을 쏘는 심력을 길러야

각자 자기 마음의 안테나로부터 일체가 공존되고 통신이 되고 행이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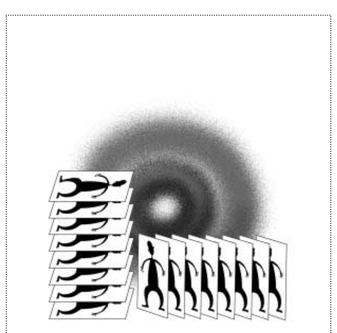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답나무에 갔다오는 거리와 지금 한 발짝 요기 나서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광대무변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다 말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심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닥치는 것을 체험하고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와선이나 입선, 행선 좌선을 모두 참선으로 들려서 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일상생활 참선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참선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법 아닌 게 없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심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헐어져도 내 주인이 집을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심부름꾼인 몸이 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몸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클고 가야 하잖아,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너 자체밖엔 없어." 하고 또한 것을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아프면 약사로 응해 주실 거고, 또는 약사로 나투어 주실 거고, 가난하면 관세음으로 응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용도에 따라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생각이 그대로 지름길이 될 것이고,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행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하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우리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인간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가 옴주거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모든 겁 네 탓으로 돌리고 네 마음으로 너를 다스리면서 잘 행해 나간다면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법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 그 생각을 잘 다스려서 한마음 자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자꾸 거기에 일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라고 자꾸 나누니까 이게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둘 아니게 모두가 완성을 못한다면 안되지요. 나를 내가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다 가깝다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능히 할 수 있다고.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한생각인데 그 찌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말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은 능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한 한생각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문 수행자는 어떠한 마음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요? 진정한 수행자는 스님들을 모델로 삼고 스님처럼 마음 쓰고 살아야 한다고 관음 하곤 했는데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인가 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답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무조건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내 앞에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걸림 삼집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걸림 삼집 수 있어야만 됩니다. 스쳐 한마리 잡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걸림 삼집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여래한 거든지 걸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놓고 가든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받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하고 야단법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공부하는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납낟이 벌려가지고 그 이름을 배워야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참선(參禪)을 하는 겁니다. 선에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한데 집어넣습니다. 공부할 때도 내면 한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한군데로 놓으면 하기도 하듯이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실히 믿고 그렇게 체험해 가야만 내면에서 가르쳐주는 자기의 뜻이 깁깁이가 되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깁깁이가 나와서 이 속의 자생 중생들을 들 아니게 하나로 제도해야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문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는 심유불성(悉有佛性)의 도리를 말씀 하셨는데, 비록 불성이 자기에게 있음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등한시하게 되면 다시 미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이며, 그러한 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깁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지금 여러분이 옴주거리는 자체가 무엇으로 인해서 옴주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육신이 없어도 무효고 생각 내는 게 없어도 목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근 · 육진 · 육식이 옴주거리는 게 다 우주의 혹성과도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종합된 근본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이 따한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리 오너라. 가르쳐 줄께." 그러고는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선 주먹으로 한 방 지르니까, "아이구!" 하고 쓰러져서, "요놈! 지금 아이구 하는 그 놈이 누구냐?" 하고 다시 묻는 그 소리에 바로 깨우쳤다는 옛 스님들의 일화가 있듯이 생각을 내는 것이 즉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세계의 50%를 모르고 그냥 물질세계로만 끄달린다면 그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를 한데 합쳐서 모든 것을 말겨 놓고 거기서 들어고 낸다는 것을 심각한다면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끊고 다녔고 지금도 끊고 다니고 미래에도 끊고 다닐 거라는 것을 안다면 끄달릴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조금 전도 과거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현실은 공해서 돌아가니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그저 자나 깨나 백박이 으르렁~ 하는 거와 같이 옴주거리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어서 공했다고 하는 거고 무(無)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뜻의 무가 아니라 꽉 차서 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게 종합된 자체에서 생활하고 들이고 내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근본 불성 자체가 들어가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일체를 들이고 내는 걸 여지 알았으리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그 도리를 모르거든요.

유마힐거사가 '나는 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 고 했는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지금 작용을 안 해주면 이 몸이 쓰러지죠? 내 속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내가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들이고 나니는 얘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란, 왜 이런 게 있죠? 자동차가 갈 때에 딱 고정되게 있는 거는 구르지를 않아요. 바퀴만 구르지 그거는 구르지를 않는 거죠. 심불이란 그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뿌리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허공대로 있듯이 마음도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깁을 가다 엎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빗방울이 수없이 쏟아졌어도 바다에 들어갔다면 한 바다지 빗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즉 말하자면 살아나가면서 보는 습관, 듣는 습관으로 인해서 모두 꼼짝 하지 못하고 묶여서 있지 말고, 마음을 탁 틔워라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광대무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로 자고 깨고 먹고 눕고 일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를 옴주거리면서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금 미망에 빠졌다는 그 생각까지도 놓을 내려놓고 진심하게 믿고 맡기다보면 걸림이 없이 자유스러워지는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세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문 저는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한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싫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부터는 어른들이 일을 시키면 저도 모르게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 들른 하기 싫어도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요?

답 그것도 결국은 너의 한생각에 달려있는 거지. 누가 주고 뺏고 하는 게 아니거든. 들것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가공해서 나오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면은 바로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면 돼.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할 때에 차를 옴직여야 바퀴가 돌아가는데 운전대를 쥐고만 있으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지? 그러니깐 실다는 생각이 날 때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 거야. 너의 안 보이는 운전수한테다 맡겨라 이거야. 맡기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법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했으면 한 대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악업 선업이 업연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심부름을 하고 싫다는 생각이 나서 즐겨온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괜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너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똑 같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 생각도 주인공에게 나오는 거니까 하게끔 하는 것도 주인공이라고 거기에 맡기면, 저절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으로 대치해서 생각이 들어가니까 바뀌어 지는 거야. 그러니 어떤 생각이든지 주인공에 맡기고 지켜보는 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해. 알았지?

기복이 되지 않으려면…

문 저희 집은 엄마하고 제 밑으로 네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싫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부터는 어른들이 일을 시키면 저도 모르게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 들른 하기 싫어도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요?

답 그것도 결국은 너의 한생각에 달려있는 거지. 누가 주고 뺏고 하는 게 아니거든. 들것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가공해서 나오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면은 바로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면 돼.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할 때에 차를 옴직여야 바퀴가 돌아가는데 운전대를 쥐고만 있으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지? 그러니깐 실다는 생각이 날 때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 거야. 너의 안 보이는 운전수한테다 맡겨라 이거야. 맡기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법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했으면 한 대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악업 선업이 업연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심부름을 하고 싫다는 생각이 나서 즐겨온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괜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너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똑 같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 생각도 주인공에게 나오는 거니까 하게끔 하는 것도 주인공이라고 거기에 맡기면, 저절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으로 대치해서 생각이 들어가니까 바뀌어 지는 거야. 그러니 어떤 생각이든지 주인공에 맡기고 지켜보는 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해. 알았지?

기복이 되지 않으려면…

문 저희 집은 엄마하고 제 밑으로 네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싫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부터는 어른들이 일을 시키면 저도 모르게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 들른 하기 싫어도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요?

답 그것도 결국은 너의 한생각에 달려있는 거지. 누가 주고 뺏고 하는 게 아니거든. 들것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가공해서 나오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면은 바로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면 돼.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할 때에 차를 옴직여야 바퀴가 돌아가는데 운전대를 쥐고만 있으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지? 그러니깐 실다는 생각이 날 때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 거야. 너의 안 보이는 운전수한테다 맡겨라 이거야. 맡기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법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했으면 한 대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악업 선업이 업연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심부름을 하고 싫다는 생각이 나서 즐겨온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괜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너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똑 같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 생각도 주인공에게 나오는 거니까 하게끔 하는 것도 주인공이라고 거기에 맡기면, 저절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으로 대치해서 생각이 들어가니까 바뀌어 지는 거야. 그러니 어떤 생각이든지 주인공에 맡기고 지켜보는 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해. 알았지?

☞30면으로 계속

세상 어려울 때 걱정 · 불안해 말고 한마음 자리서 돌아가게 맡기세요

☞29면에서 계속

누구나가 전력은 갑습니다. 생명의 근본이 다 똑같다 이겁니다. 다 똑같은데 마음을 쓰는 거라든가 처원이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받을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물을 이쪽 컵에다가 부을 때에 컵을 들고 있어야 그 물이 받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쪽 컵에 있는 물을 저쪽 컵으로 한데 옮기면 그냥 한 그릇이 돼 버리죠? 마음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엄마도 동생들도 다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하는 도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고 항상 관할 때에 저쪽에서 만약에 반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쪽으로 내 마음을 주고, 이게 바로 손을 짧다가 오그렸다 하는 도리요. 이게 중용입니다. 그냥 자꾸이 아니고 그냥 활용이 아니라 바로 모두를 살리는 중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한테 기편은 엄마로 하나가 돼 버리고, 엄마 마음을 나한테로 넣으면 나로 하나가 돼 버리니까 더불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수만 개를 갖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개를 꺼내도 줄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리를 실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되겠기에 자기 주인공에 일체를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고 놓는 작업을 해라 이거죠.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父와 子가 한데 상봉을 못한다면 어떻게 父로 하나가 되고 子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되고, 생각을 내면 법신이 되고. 몸을 옴직거리면 화신이 되는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그 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전부 나와 도반으로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부딪치면 불이 일어나듯이 그 둘이를 모르니까 그 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끊고 다녔고 지금도 끊고 다니고 미래에도 끊고 다닐 거라는 것을 안다면 끄달릴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조금 전도 과거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현실은 공해서 돌아가니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그저 자나 깨나 백박이 으르렁~하는 거와 같이 옴주거리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어서 공했다고 하는 거고 무(無)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뜻의 무가 아니라 꽉 차서 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게 종합된 자체에서 생활하고 들이고 내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근본 불성 자체가 들어가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일체를 들이고 내는 걸 여지 알았으리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그 도리를 모르거든요.

유마힐거사가 '나는 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 고 했는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지금 작용을 안 해주면 이 몸이 쓰러지죠? 내 속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내가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들이고 나니는 얘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란, 왜 이런 게 있죠? 자동차가 갈 때에 딱 고정되게 있는 거는 구르지를 않아요. 바퀴만 구르지 그거는 구르지를 않는 거죠. 심불이란 그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뿌리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허공대로 있듯이 마음도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깁을 가다 엎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빗방울이 수없이 쏟아졌어도 바다에 들어갔다면 한 바다지 빗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즉 말하자면 살아나가면서 보는 습관, 듣는 습관으로 인해서 모두 꼼짝 하지 못하고 묶여서 있지 말고, 마음을 탁 틔워라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광대무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로 자고 깨고 먹고 눕고 일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를 옴주거리면서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금 미망에 빠졌다는 그 생각까지도 놓을 내려놓고 진심하게 믿고 맡기다보면 걸림이 없이 자유스러워지는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세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문 저는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한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싫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부터는 어른들이 일을 시키면 저도 모르게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 들른 하기 싫어도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요?

답 그것도 결국은 너의 한생각에 달려있는 거지. 누가 주고 뺏고 하는 게 아니거든. 들것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가공해서 나오듯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면은 바로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면 돼. 즉 말하자면 운전을 할 때에 차를 옴직여야 바퀴가 돌아가는데 운전대를 쥐고만 있으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지? 그러니깐 실다는 생각이 날 때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 거야. 너의 안 보이는 운전수한테다 맡겨라 이거야. 맡기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법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했으면 한 대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대로 악업 선업이 업연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심부름을 하고 싫다는 생각이 나서 즐겨온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괜히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너도 생



불교 이래서 종다

이동하

동아대 건축학과 2년

"내 생활의 중심"

내가 불교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4년 전이다. 그 무렵 부모님은 자주 부부싸움을 하셨다. 싸움이 끝나면 아버지는 나에게 꼭 한 마디를 했다. "아버지가 힘이 많이 든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삭발하고 스님이 되겠다."

나는 지금도 당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말은 어린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것이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다. 아버지는 늘 불교서적을 탐독하며 지내셨다.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됐다.

군 생활을 할 때였다. 내가 상병이 되었을 즈음 우리 중대 앞에 법당이 들어섰다. 우리 부대는 원래 조그만 직할대대였기 때문에, 종교건물은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 늘 종교에 목이 말라 있었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법당에 나가게 되었고, 예불에 참석해 법사님의 법문을 감사히 들었다. 병장이 되어서는 수계도 받았다. 군대생활은 내게 아픈 상처도 많이 주었지만 불법을 만나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다.

지금은 학교에서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조석 예불을 올린다. 목요일이면 정기법회에 참석해 법사님께 설법을 듣는다. 어느덧 내 생활의 중심은 불교인 것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마다 불단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기도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지난 겨울 방학에는 인도에 갔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던 정각산에 올라가 무영동굴도 보며 부처님의 숨결을 느꼈다. 또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아프간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그때 나는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고행상을 보며 맹세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수행정진 하리라."

2003 '세계 물의 해'

절수기 사용합시다

급증하고 있는 물 수요로 인해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 물 절약이 습관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인당 물 사용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최근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절수기 사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가정 생활용수의 경우 화장실과 목욕탕의 절수기 설치로 약 50%의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대중목욕탕, 여관 등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수기에는 기존 수도꼭지에 절수형 디스크 및 페킹을 내장한 절수형 수도꼭지, 일반 수도꼭지에 포말전을 부착하여 공기와 물방울이 함께 나오게 하는 포말식 수도꼭지, 누름 장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물이 나오는 샤워헤드, 대소변을 구분하여 2개의 레버로 배출량을 조절하는 2단 양변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집 주변의 철물점이나 타일 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후 가정에서 약 50% 물 절약



살아있는 역사 찾아가서 배워요

"자연 벗 삼아 문화 지식도 넓히고 사찰·생태답사 체험행사 등 다양"

◇13일 두레생태기행의 도봉산 유적답사에 참가한 현구네 가족의 모습.

4월 13일 일요일. 아침부터 이현구(14), 지민(10) 남매는 솟아오르는 설레임을 얼굴 가득 담고 있다. 오랜만에 두레생태기행의 유적답사에 참가하게 됐기 때문.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현구는 이번 답사를 부족한 국사지식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작정이었다.

유적답사의 첫 번째 순서는 조선시대 연산군의 묘소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던 것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다. 현구는 이날 처음 무덤 주변의 돌 조각상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사실이 신기한지 유혼석, 향로석, 무관석 등에 대한 문화재 해설가의 설명을 꼼꼼히 공책에 메모한다. 현구는 "역사 현장 답사는 살아있는 공부"라고 말했다.

이날 답사는 연산군 묘, 양 효안공 신도비, 사천 목씨 일가 묘역, 원통사, 도봉계곡 암각글씨, 도봉서원 등을 돌며 진행됐다. 현구와 지민이를 비롯해 이 행사에 참여한 40여 명은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떴다. 물론 봄빛이 가득한 산과 들을 누비는 즐거움도 체험했다.

두레생태기행처럼 4월과 5월 청소년들에게 문화·역사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는 용진신행회, 신라문화원, 터사랑답사회, 대한불교청년회 등이 있다.

용진신행회는 4월 27일과 5월 27일 화순 운주사, 5월 5일 탑사와 송광사, 5월 21일 개심사, 간월암, 수덕사를 답사한다.

신라문화원은 5월 4일 안압지 첨성대 계림 경주향교 월성 등을 살펴보는 어린이문화학교와 삼불사 삼릉 상선암 용장사 등을 둘러보는 경주문화기행(5월 11일)을 연다.

두레생태기행은 5월 4~5일 문화답사로 전남 담양과 보성 차밭 등을 찾아가고, 5월 8일 문경 봉암사에 대한 생태답사도 실시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26~27일 경기도 여주 걸은도자체험학교에서 '만해 도자문화 체험' 행사를 연다.

마곡사의 불교문화전시회(5월 8일), 청주불교련의 목판화 인쇄체험 행사(4월 26일), 대구봉축위의 김기택 연화 도예전(4월 28일) 등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 역사 체험의 장으로 추천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행사 실시 단체

단체명	연락처
대불청	(02)738-1920
두레생태기행	(02)712-5812
용진신행회	(02)2279-1191
신라문화원	(054)774-1950
마곡사	(041)841-6221
청주불교련	(043)294-0107
대구봉축위	(053)253-6388
터사랑답사회	(02)725-1284



◇어머니(좌) 강명자 씨와 변천사(우) 선수.

열 여섯살의 빙상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부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된 변천사(서울 신목고) 선수. 변 선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사찰에 기증하고 싶다"는 당찬 소망을 밝혔다. 변 선수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 안현수(18)와 함께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유망주로 꼽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시합 직전에 긴장감이 몰려오면 스님과 전화 통화를 하며 푼다"고 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인 변 선수는

열여섯의 당찬 포부

"금메달을 부처님께"

"긴장감 스님과 전화통화로 풀어요"

새벽기도, 절밥 먹어야 자신감 생겨

"경기를 앞두면 매일 서울 불심정사를 찾아가서 나와 동료들이 좋은 성적 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 선수는 "경기 전날에는 꼭 불심정사의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절에서 아침 식사를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징크스가 있다"고 귀띔했다.

강남 행원심인당 신도인 어머니 강명자(63·전 쇼트트랙초등연맹 회장) 씨는 "지난 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에서 종합 1위로 입상하고 1000m 세계 신기록을 깨뜨린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봉축기념 거리포교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인성호)는 20일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봉축기념 거리포교 행사를 개최했다. 대불청 회원들은 '평화의 연꽃등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시민들과 연꽃등을 만들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다.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수국사, 구룡사 청년회 출신들로 구성된 대불청 서울지구가 만든 '종교, 지역, 계층 화합의 등', '뭇생명과 이웃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나눔의 등', '청년포교와 법회발전을 위한 정진의 등'은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서울 도심을 환히 비추게 된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자연체험행사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올 7월 중 강원도 영월에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자연 체험 행사를 연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어깨동무 자연탐사'라는 행사에 참가하는 불우청소년들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협동심과 자립심을 기르게 된다.(02)942-0635

명작 비디오 파일

유치원에 간 사나이

'고스트 버스터즈'의 아이반 라이트먼 감독이 만든 코믹 영화 '유치원에 간 사나이'는 1990년 개봉작이다.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맡은 주인공 존 킴블은 LA강력계 형사로 범죄 세계에서 터프가이로 널리 알려진 인물. 마약업자 크리스프를 추적해 온 킴블은 증인을 살해한 크리스프를 감옥으로 보낸다.



한편 경찰국에서는 크리스프의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킴블에게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위장근무를 맡긴다. 유치원 선생이 되어 크리스프의 아내를 사랑하게 된 킴블. 그의 고뇌는 위장근무를 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비롯된다. 그때 포비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도 본심은 한가지라고 충고한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해도 성질은 변함이 없듯 사람 역시 겉모습을 위장한다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드러난다.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수심결>의 구절처럼.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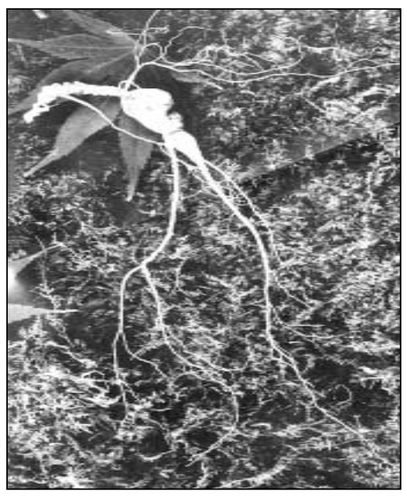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 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인도그림기행 2

'선승' 처럼 다가오는 간디여!

그림·글 이호신

나는 가난한 탁발자

간디의 집과 웨일즈 박물관



◇마하트마 간디(173×137cm).

사용했던 방은 가난한 성자의 체취로 가득

유물의 연륜·다양성에 마음 숙연해지고…

나는 가난한 탁발자이다. 내 속세의 소유물은 여섯 틀의 물레, 감옥에서 쓰던 접시들, 산양 젖통, 여섯 벌의 옷과 타올, 그리고 내 알량한 명예이다. (간디 자서전)

초기 불교의 나라, 부처님의 생애와 뒷모습을 따라가 보는 인도의 여정. 그 첫 만남의 성인은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였다. 뭄바이 간디의 집(Gandhi Memorial Museum)에서 맞닥뜨린 간디의 체온과 영혼은 여행자를 전율케 했다. 아주 어릴적, 나는 간디의 생애를 알기 전부터 간디의 모습을 좋아했다. 알 수 없는 영감이 숭배의 시간으로 불어나면서 더욱 그의 체취가 그리웠는데 시절인연은 이렇게 무르익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쁨은 반감되고 온통 부끄럽고 두려운 생각만이 엄습했다. 간디의 저서가 보관중인 1층을 지나 2층에는 사용했던 방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 그가 처음 물레(찰카) 사용방법을 배운 곳이 여기라 한다. 그가 쓰던 단조로운 식용기와 샌달, 물레 등에서 가난한 성자의 체취가 뭉클하다.

내가 만일 염주를 세는 것과 물레 돌리는 것 가운데 택일해야 한다면, 내가 가난을 알고 이 나라에 굶주림이 있는 한 물레의 편에 손을 들어 그것을 나의 염주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간디의 진리와 사랑은 불교의 지혜(반야)와 자비의 개념에 닿아있다. 또한 자기 희생과 봉사는 대승(大乘)의 보살도(菩薩道)와 결코 다르지 않다. 3년 전(2000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 경유한 남아프리카 공하국 요하네스버그 박물관에서 마주친 간디의 흉상. 그곳에서 그가 소수민족과 인도 난민을 위해 변호사로 애쓴 흔적을 살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그 후 리챠드 아텐보러(Richard Attenborough) 감독의 '간디' 영화에 매료되어 수 차례 비디오를 보며 간디역의 벤 킹슬러(Ben Kingsley)를 좋아하게도 되었다. 영상은 고난에 찬 간디의 생애가 감동으로 다가 왔으며 자서전을 통해서는 그 영혼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 간디는 150년의 영국지배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킨 인도의 아버지로, 타고르는 그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하트마'의 존칭을 부여했다. 그는 평생 비폭력 독립투쟁 외에도 힌두, 회교도의 종교 갈등과 여성의 인권, 계급철폐에 따른 불가촉 천민에 대한 끊임없는 연정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 간디는 참으로 가난한, 걸사정신(乞士精神)을 지닌 탁발자였지만 인도의 운명과 인류를 향해 진리를 추구한 순교자였다.

생전의 모습이 전시된 사진을 화첩에 담아 보는데 선승과 같은 수행자의 모습이 떠오르는게 아닌가. 그 간디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졌다. 그림을 위해 낡은 간디 앨범을 기념관에서 구해 귀국 후에도 자주 넘겨보는데 특이한 것은 어느 장면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런 참모습이요, 자애와 겸허함이 언제나 묻어난다는 사실이다. 그 중 노아카리에서 지팡이를 들고 좁은 인도교를 건너는 장면은 마치 어느 고승의 걸음을 떠올린다. 깎은 머리에 허리를 구부리고 카다르(인도의 수직 무명옷)를 걸친 채 마른 종아리에 샌달을 신은 모습이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조선후기 인물화의 선구, 공재 윤두서의 탈속한 '고승' 그림이 연상되었다. 따라서 그림은 고뇌에 찬 모습에서 험한 길도 미소 띠며 가는 수행자의 표정으로 바꾸고, 막대기를 대 지팡이로 고친 다음 붓을 떼었다.

과거의 역사와 삶은 말이 없지만 유물을 통해 그 영혼의 숨결을 추스린다. 인도 3대 박물관에 꼽힌다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박물관(Prince of wales Museum)'은 인도문 북서쪽 500m지점에 있었다. 미술, 고고학, 자연사로 나뉜 전시 공간은 유물의 연륜과 다양성으로 인해 여행자를 한껏 들뜨게 한다.

기원전의 불상으로부터 주변국, 티베트, 네팔의 불상이 이채롭고 간다라 불상과 부처의 생애를 기린 조각이 눈길을 끈다.

특히 티베트 불교미술의 탱화, 힌두와 이슬람교의 세밀화가 매우 많다. 또 신의 나라답게 수많은 신상의 조각이 즐비한데 그 중 엘리펀트섬에서 출토된 시바신과 가네샤신, 그리고 브라흐만 신상이 눈에 띈다.

'시바신'은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지혜와 행운의 신이라는 '가네샤'는 코끼리 머리에 큰배를 내민 우스꽝스런 형상이다. 또 '브라흐만'은 4개의 머리와 물단지, 활, 판자, 베다를 들고 경배를 받는 모습으로 새겨져있다.

점심시간을 쪼개 서둘러 화첩을 끼고 식당을 나서자 문 앞에는 흥미 있는 먹거리가 펼쳐졌다. 잎담배에 싸서 먹는 '빤'이라는 음식인데 나뭇잎에 끈끈한 액체를 손가락으로 비벼 바른다음 온갖 향신료를 뿌리고 말아서 건네주니 상대편은 입에 쏙 넣는다. 잎만두처럼 여겨지는 빤은 5루피~50루피 까지 있단다. 가만히 보니 가격 탓인가. 주문하는 사람에 따라 재료가 모두 다르다. 한편 부산한 거리를 살피는데 앉은뱅이 소녀가 바퀴 달린 나무판에 앉아 구걸을 해와 몇 루피를 건네고 화첩을 펴들자 소녀는 휙 돌아서 버린다. 그녀의 수치와 자존심을 내가 건드린 모양이다. lhs1957@lycos.co.kr



◇인도의 신상(46.5×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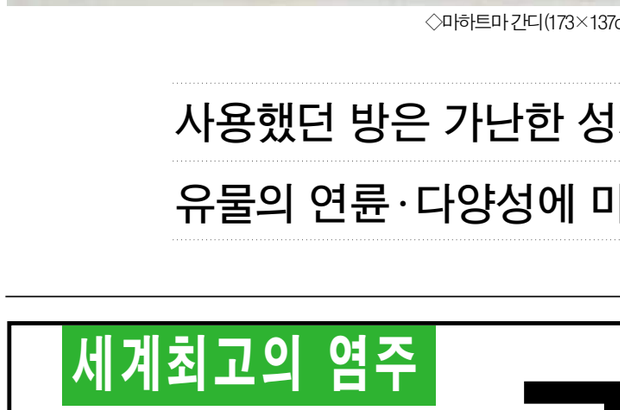
협찬 : 실크로드여행사 · 안성 도피안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는 금강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로즉시보내드립니다.받으신날로부터7일이내에송금하시면됩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 氣

100년 건강 세상을 만드는 지혜



장수호두약돌(小) 장수호두약돌(大)

황토생명공학 센타에서 황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氣(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놀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氣가 발산하며 건강증진과 활력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고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 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 小 33,000원 大 38,000원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143-12-049474 송명화